

2005 연구보고서-12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박 수 미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선 보 영 (연구원)

김 진 옥 (객원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의 측면에서 '성 주류화'를 논할 정도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양성평등은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여성의 인적자원능력이 선진국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2004년 들어 국제평가지수의 관리대상에 '여성 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 지수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정책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중요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며 성(gender)에 따른 수혜 편차는 지양되고 있습니다. 이때 시행 정책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집단들의 성별화된(gender-specific) 특성과 욕구, 일상생활의 구조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성 인지적 정책이 시행·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들의 성별화된 특성과 욕구, 일상생활의 구조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매우 산발적으로 이뤄져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이들 하위 집단에 대한 규명 역시 여성정책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5개의 유형별 여성 집단에 대한 1차적인 규명을 시도했습니다.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여성들의 '일', '가족생활', '여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혀 보았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최근 발표된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될 계획이며 그럼으로써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원내외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2005년 한 해 동안 과제를 진행해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생활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주류화를 모색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여성의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한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둘째,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동질적인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와 여성 내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책 기획 및 집행 단계의 기초 자료를 수립한다. 셋째, 양적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집단별로 유형화함으로써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여성 생활세계의 장기적인 변화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1) '생활세계'와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생활세계 개념 정리
- 2) 이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인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특성과 내용 개관
- 3)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유형화를 위해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한 씨퀀스분석(sequence analysis) 및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실시
- 4) 씨퀀스 분석 결과 도출된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유형별로 선행 연구 검토
- 5) 한국사회 여성의 유형별 시간사용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세계 구성
- 6) 여성 하위집단별, 하위 집단간 생활시간사용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 도출

나.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외국 사례 검토
- 2) 집단 유형화를 위한 시퀀스분석(sequence analysis) 및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 3)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집단간·집단별 시간사용 평균 비교 분석
- 4) 전문가 워크숍 운영

3.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유형화

가. 생활시간조사 자료

1999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시간일지는 2일 동안의 행동과 시간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것으로, 10분 간격으로 어떤 행동을 언제 몇 분 동안 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일지에 기입된 행동은 통계청에서 개발한 행동분류체계에 따라 9개의 대분류와 51개의 중분류, 125개의 소분류로 부호화되어 있다. 이 연구에선 통계청의 행동분류체계에 준하여 여성들의 ‘일’, ‘가족생활’, ‘여가’를 구분하였다. 1) ‘일’은 행동분류체계의 ‘유급노동’ 시간으로 중분류인 ‘일’과 ‘학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가족생활’은 행동분류체계의 ‘무급노동’ 시간으로 중분류인 ‘가사노동’, ‘재화/용역 구입’, ‘가족보살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여가’는 행동분류체계의 ‘잔여범주’ 시간으로 중분류인 ‘조직활동’, ‘교제활동’, ‘레저활동’, ‘대중매체’ 시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유형화 과정

하루의 행동 시간량 및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시퀀스분석(최적 일치법) 및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의미 있는 집단을 구성하였다. 1) 미혼 여성 집단, 2) 20대-40대 전업주부 집단, 3) 20-40대 기혼 취업여성 집단, 4) 50대 이상 중장년 및 고령여성 집단.

군집분석 결과 추출된 5개 유형 집단 가운데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되

어야 하는 ‘잔여 집단’을 제외하고 대신 ‘이혼 여성 집단’을 추가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성 내부의 하위 집단을 규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탈가족화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이혼 여성 집단’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 최적 일치법과 군집분석 결과 및 시의성을 토대로 유형화한 5개 집단은 여성의 ‘생애과정’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교차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여성의 유형별 생활세계

가. 미혼여성

이 연구에서 미혼 여성은 20-25세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고졸이상이 95%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의 소유자였다. 이들은 80% 가량이 수입노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수입노동참여율과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미혼여성의 노동시장 내 위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미혼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주로 서비스직/판매직/사무직에 집중되어 있는 등 성별 직종 분리현상을 뚜렷이 나타내었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매우 높았다. 또한 미혼자 집단 내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짧고, 무급노동시간은 긴 성별분업현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미혼자 집단은 연령, 교육수준,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한 생활세계를 지닌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미혼자 집단의 생활세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변수는 ‘가족과의 동거여부’였는데, 다른 가족과의 동거 미혼자 집단에 비해 독신 미혼자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긴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으로 인해 시간 압박감이 큰 편이었다.

나. 20-40대 전업주부

한국의 전업주부는 주로 30-40대에 분포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80% 가량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은 한국 사회에서 출산 및 육아부담으로 인해 젊은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육아 및 가사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의 생활세계 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세계는 특히 ‘미취학아동유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사노동보다는 보살핌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전업주부들의 시간사용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의 전통적인 가사노동 시간이 상당히 일정한 편이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20-40대 전업주부 집단의 생활세계는 전업주부라는 집단 내 동일성의 측면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의 측면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 20-40대 기혼취업여성

20-40대 기혼취업여성은 주로 30-40대 여성들로, 생애주기상 육아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으로 짐작된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나 기혼 남성집단과 전업주부집단에 비해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맞벌이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서비스직이나 판매직과 같은 하위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비율이 높은 점 등 매우 열악한 노동시장 내 지위를 보이고 있다.

20-40대 기혼취업여성의 생활세계 구성에는 ‘수입노동 시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들의 생활세계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 이로 인한 여가시간의 감소 등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인 수입노동 시간은 다시 연령, 교육수준, 직종, 미취학아동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집단내의 동일성보다 다양성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고령여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여성은 주로 65세-74세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고령 남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직종이나 근로시간 등 고령여성의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고령여성

은 고령남성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고령여성들이 주로 보조적 노동력으로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낮은 학력과 보조적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던 점은 고령여성의 경제적 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 및 생활세계 구성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고령여성의 생활세계는 수입노동 여부와 수입노동 시간의 길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수입노동 여부는 농가/비농가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이 되어도 상당한 유급노동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급노동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혼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중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은퇴한 고령자의 여유로운 삶은 거리가 먼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여성의 경우 저학력과 낮은 직업위세, 열악한 경제적 자립도 등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 요인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고령층에게서 여가가 곧 대부분의 생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이혼여성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이혼여성은 주로 40대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대부분(92%)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여성 집단이 저학력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혼이 아직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은 적극적인 능동적인 이미지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이혼여성들은 생애주기상 이혼남성에 비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이혼여성은 생계부양자와 가사노동자 역할의 동시 수행으로 상당한 시간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혼여성들의 생활세계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노동 여부 및 근로시간에서 남성과 비슷한 노동형태를 지닌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이혼여성들은 저임금,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등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긴 유급노동 시간을 나타내는 직종의 특성상 이들의 보살핌 노동 및 여가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등 생활세계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이혼여성집단은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는 상당히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혼 여성집단은 연령과 교육수준, 수입노동 여부, 미취학아동 유무, 직종, 주거형태(동거 또는 독신)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이 같은 다양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동질적 특성과 함께 집단내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정책 제언

- 1) 동질적인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정책 지속 필요성: 여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은, 여성을 일생 동안 무급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임 ⇒ 무급가사노동의 사회화, 양성화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여성정책 과제임.
- 2)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필요성 증대
 - 미혼 여성 집단: 성별직종분리,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열악한 노동 구조 확인 ⇒ 미혼 여성에게서 이미 발견되는 성차별적 노동시장 관행 시정 시급
 - 20-40대 전업주부 집단: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육아 이후 경제생활복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 필요
 - 20-40대 기혼취업여성 집단:
 - 저소득층의 경우, 가사 및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이면서 유연한 일자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 지원 필요
 - 중산층 취업주부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충 및 양육비 지원, 추가적 세제혜택(소득공제)이 실효성 있을 것임.
 - 고령 여성 집단:
 -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 ⇒ 사회적 기업과 같은 다변화된 일자리 창출 방식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도입함으로써 유휴 노동력 활용 및 고령 여성의 최저 생계 보장

- 전반적으로 열악한 여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령자 중심의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필요성 증대

• 이혼 여성 집단:

- 이혼 여성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숙련 종사자, 이중부담 심각 ⇒ 가사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상응하는 수입보전의 형태보다는 노동권의 안정 및 지속성 보장에 무게 중심이 두어져야 할 것임
- 결혼 지위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시급

3) 모든 집단에서 전반적인 여가 생활의 열악함 발견 ⇒ 문화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가 시설의 확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노력 이전에,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이 '일'과 공존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 여가 활용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 확보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선결될 필요성 확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방법	7
II. “생활세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9
1. ‘생활세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1
가. ‘생활세계’의 개념	11
나. 생활시간 관련 선행연구 검토	12
2. 유형별 한국 여성의 생활세계	16
가. 미혼여성	18
나. 기혼여성: 전업주부	22
다. 기혼여성: 취업주부	26
라. 고령여성	30
마. 이혼여성	34
III.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유형화	41
1. 생활시간조사 개요	43
2.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유형화 과정	46
가. 최적 일치법을 활용한 시간사용 씨퀀스 분석	46
나. 씨퀀스 분석 결과 유형화된 하위 여성 집단	49
IV. 한국여성의 유형별 생활세계	51
1. 미혼 여성의 생활세계	53
가.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53
나.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생활세계: 일, 가족, 여가	58

다. 미혼 여성 집단 내부의 생활세계: 일, 가족, 여가	67
라. 소결	79
2. 기혼 여성: 전업주부와 기혼취업여성	80
가.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일, 가족, 여가	93
나. 20~40대 전업주부의 일, 가족, 여가	114
다. 소결: 20~40대 기혼여성의 일, 가족, 여가	130
3. 고령 여성의 생활세계	132
가.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132
나. 고령 여성과 고령 남성의 생활시간	137
다. 고령 여성의 일, 가족, 여가	147
라. 소결	158
4. 이혼 여성의 생활세계	162
가.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162
나. 이혼 여성과 이혼 남성의 생활시간	166
다. 이혼 여성의 일, 가족, 여가	176
라. 소결	187
V. 결론 및 정책 제언	191
1. 결론: 유형별 여성의 생활세계	193
가. 일, 가족, 여가의 성별·생애주기별 비교	193
나. 유형별 여성의 생활세계 비교	198
2. 정책 제언	203
참고 문헌	209
부 표	215

표 목 차

<표 II-1>	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0	18
<표 II-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4	26
<표 II-3>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 1990-2004	27
<표 II-4>	고령자(65세이상) 규모 및 추이	30
<표 III-1>	행동분류체계	44
<표 IV-1>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4
<표 IV-2>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생활시간	58
<표 IV-3>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일	59
<표 IV-4>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가정 생활	60
<표 IV-5>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자유 시간	60
<표 IV-6>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행위자별 생활시간	61
<표 IV-7>	단독가구 여부별 시간 사용	63
<표 IV-8>	미혼 여성의 단독가구 여부별·행위자별 생활시간	64
<표 IV-9>	미혼여성 주거형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70
<표 IV-10>	미혼여성의 생활시간	73
<표 IV-11>	미혼여성의 생활시간: 유급노동	75
<표 IV-12>	미혼여성의 생활시간: 무급노동	76
<표 IV-13>	미혼여성의 생활시간: 여가	78
<표 IV-14>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4
<표 IV-15>	생활시간의 분류	86
<표 IV-16>	집단별 생활시간사용의 개관: 시간량	88
<표 IV-17>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일	95
<표 IV-18>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가족(무급노동전체)	98
<표 IV-19>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가족(가사노동)	99
<표 IV-20>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가족(보살핌 노동)	103
<표 IV-21>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전체 여가시간)	105
<표 IV-22>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조직활동)	107
<표 IV-23>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교제활동)	108

<표 IV-24>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대중매체)	109
<표 IV-25>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학습)	110
<표 IV-26>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레저)	111
<표 IV-27>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일	115
<표 IV-28>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가족(가사노동)	118
<표 IV-29>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가족(보살핌 노동)	119
<표 IV-30>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전체 여가시간)	121
<표 IV-31>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조직활동)	123
<표 IV-32>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교제활동)	124
<표 IV-33>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대중매체)	125
<표 IV-34>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학습)	126
<표 IV-35>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레저)	127
<표 IV-36>	고령 여성과 고령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4
<표 IV-37>	생활영역별 고령남성과 고령여성의 생활시간	138
<표 IV-38>	하위 활동영역별 고령남성과 고령여성의 생활시간	139
<표 IV-39>	고령여성과 남성이 선택한 행동의 종류와 시간	142
<표 IV-40>	주관적 시간의식	146
<표 IV-41>	고령여성의 생활시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148
<표 IV-42>	고령여성의 하위집단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153
<표 IV-43>	고령여성의 생활시간: 여가시간	154
<표 IV-44>	고령여성이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와 여가행동 시간	157
<표 IV-45>	이혼 여성과 이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64
<표 IV-46>	생활영역별 이혼남성과 이혼여성의 생활시간	167
<표 IV-47>	하위 활동영역별 이혼남성과 이혼여성의 생활시간	169
<표 IV-48>	주관적 시간의식	175
<표 IV-49>	이혼여성의 생활시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178
<표 IV-50>	이혼여성의 하위집단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181
<표 IV-51>	이혼여성의 생활시간: 여가시간	182
<표 IV-52>	이혼여성이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와 여가행동시간의 순서	187

그림 목 차

<그림 II-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34
<그림 III-1>	배열간 거리값 계산의 비교 기준배열	48
<그림 IV-1>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개인유지 시간대 분포	65
<그림 IV-2>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유급노동 시간대 분포	65
<그림 IV-3>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대 분포	66
<그림 IV-4>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자유시간 시간대 분포	66
<그림 IV-5>	각 요일 및 시간대별 행위자 빈도: 개인유지	90
<그림 IV-6>	각 요일 및 시간대별 행위자 빈도: 일	90
<그림 IV-7>	각 요일 및 시간대별 행위자 빈도: 가족	91
<그림 IV-8>	각 요일 및 시간대별 행위자 빈도: 여가	91
<그림 IV-9>	미취학 아동 유무별 취업주부의 유급노동시간(요일별)	96
<그림 IV-10>	미취학 아동 유무별 취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요일평균) ..	101
<그림 IV-11>	미취학 아동 유무별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요일평균) ..	116
<그림 IV-12>	미취학 아동 유무별 전업주부의 여가시간(요일평균)	122
<그림 IV-13>	고령자 전체의 각종 활동 행위자 비율	143
<그림 IV-14>	성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행위자 비율	144
<그림 IV-15>	성별 여가행동의 행위자비율	144
<그림 IV-16>	연령별 하루생활시간의 구조	160
<그림 IV-17>	수입노동여부에 따른 하루생활시간의 구조	160
<그림 IV-18>	이혼자 전체의 각종 활동 행위자 비율	171
<그림 IV-19>	성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행동의 행위자비율	172
<그림 IV-20>	성별 여가행동의 행위자비율	173
<그림 IV-21>	하루동안 선택한 여가행동의 개수	185
<그림 V-1>	집단별 개인유지시간	193
<그림 V-2>	집단별 유급노동시간	194
<그림 V-3>	집단별 무급노동시간(전체)	195
<그림 V-4>	집단별 무급노동시간(가사)	196
<그림 V-5>	집단별 무급노동시간(보살핌)	196
<그림 V-6>	집단별 여가시간	197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의 측면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논할 정도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양성평등은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여성의 인적자원능력이 선진국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2004년 들어 국제평가지수의 관리대상에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 지수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정책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중요한 집단으로 정착하였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며 성(gender)에 따른 수혜 편차는 지양되고 있다. 바야흐로 ‘주류의 전환’을 통해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시행 정책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집단들의 성별화된(gender-specific) 특성과 욕구, 일상생활의 구조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 여성의 생활세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성 인지적 정책이 시행·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들의 성별화된 특성과 욕구, 일상생활의 구조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매우 산발적으로 이뤄져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남성 내부에는, 여성 내부에는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얼마나 다른 집단들이 섞여 있는지 하는 문제들은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생활세계란 “인간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행위공간이다(김왕배, 1999).” 일상이란 보잘 것 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르페브르, 1992). 사회구조와 개인간의 의미 있는 연결점은 생활구조 또는 생활세계 속에서 표현된

4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다. 실제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주장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일과표(social time table)대로 생애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개인들은 일상성의 반복 속에서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고 생활세계를 구조화한다.

생활세계 또는 생활구조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생활시간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원임과 동시에 그 양이 한정되어 제약 요소로도 작용하는 최소 자원이다. 특히 산업사회에서는 시각에 의해 생활이 규정된다는 점에서 시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기영, 1994).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시간으로 보고 개인의 생활양식과 생활태도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생활 시간적 특성에 의해 생활세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도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해 볼 것이다. 생활시간 연구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차원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연구는 우선 생활시간의 측면에서 한국여성들의 생활세계를 규명하고 차후에 질적 연구 방법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여성들의 일상생활, 즉 생활세계는 어떠할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한국사회 남성들의 일상생활과 비교를 해봄으로써 비로소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구성함에 있어 '일', '가족', '여가'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일'과 '가족' 생활의 병행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일과 가족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물론 무엇을 '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일'과 '가족' 생활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가족 관련 활동도 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노동 활동에 한정하여 협의의 '일' 시간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 연구는 여성의 '여가' 실태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때의 '여가' 활동도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여가라기보다는 '잔여 시간'에 가까운 소극적인 개념이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 관행은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며 '여가'를 잔여 범주로서 접근하게 한다. 이와 같은 구분 속에서 여성의 '일', '가족', '여가'가 남성의 '일', '가족', '여가'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 집단 내부는 생애과정 단계나 경제활동상태, 그밖에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를 갖는 하위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성들 내부의 하위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보다 섬세한 여성정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 이 연구는 ‘연령’이나 ‘결혼지위’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학력’,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여성 내부의 이질적인 집단을 구분하였다. 시간을 중심으로 한 종단적 측면에서 여성집단은 각각의 생애과정 단계를 대표하도록 구분되었다. 또한 공간을 중심으로 한 횡단적 측면에서 여성집단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도록 구분되었다.

이 연구는 생활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주류화를 모색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여성의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한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동질적인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와 여성 내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책 기획 및 집행 단계의 기초 자료를 수립할 것이다. 셋째, 양적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집단별로 유형화함에 따라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준거점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여성 생활세계의 장기적인 변화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한국사회 여성의 생활세계를 파악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 연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세계’와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생활세계의 개념을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세계’는 ‘생활구조’, ‘생활양식’, ‘일상생활’, ‘라이

프 스타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논의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회구조의 거시적 측면과 개인 단위의 미시적 측면을 연결시켜주는 중범위 수준으로 생활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유형별 일상생활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여성을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일과 가족생활, 여가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한다. 글 신는 순서에는 맞지 않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후행하는 분석결과에 의해 도출된 유형집단별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분석자료인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특성과 내용을 살펴본다.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나눠서 이틀 동안 매 10분마다 행동 내용을 적도록 한 자기기입식 시간일지(time diary)이다. 이 조사 자료에서 조사한 분석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술하고,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분류를 대, 중, 소 범위에서 살펴본다.

셋째, 한국사회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한 씨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을 실시하고 이 과정을 설명한다. 10분 단위로 연결된 여성들의 시간사용 연쇄(sequence)는 각 여성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사슬(chain)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분석대상 여성들의 시간사용 씨퀀스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유사한 형태로 분류하는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시도함으로써 여성 집단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넷째, 위의 씨퀀스 분석 결과 도출된 한국여성의 일상생활 유형별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여성들 내부의 하위집단별로 일상생활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섯째, 한국사회 여성의 유형별 시간사용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한다. 먼저 각 여성 집단과 해당 남성 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생활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유사한지를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 집단 내부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시간 사용의 실태를 비교하고, 여성 집단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비교를 한다. 이때 각 집단의 생활세계는 '일', '가족', '여가'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여섯째, 여성 하위집단별, 하위 집단간 생활시간사용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낸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여성들의 동질적인 생활 세계와 이질적인 생활세계를 규명함으로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일조하고자 한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세계와 생활시간조사 연구 및 한국사회 여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국내 문헌 연구 및 외국의 경험적 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 비교의 논거를 마련한다.

둘째,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분석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집단별·집단간 평균 비교'와 '교차 분석'을 주로 활용할 것이다.

셋째,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시간별 행동 씨퀀스를 중심으로 씨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 여기서는 최적 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과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다.

넷째,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을 운영하여 한국 여성의 가족, 노동, 문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다.

Ⅱ



“생활세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생활세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1
2. 유형별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16



1. ‘생활세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가. ‘생활세계’의 개념

우리는 누구나 일상을 살아간다. 일상이란 매우 반복적이고 단순하며 사소로운 일들로 가득 찬,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며(김왕배, 1999), 이러한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생활세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은 “보잘 것 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일상생활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등 주기적인 시간 공간 속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행위들로 구성된다(Lefebvre, 1992).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겨우 표시가 날까 말까한 일상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일반성 혹은 구조가 되고 그것은 사회의 각 층에 침투하여 영구히 반복되는 존재양식, 행동양식을 특징짓는다(Braudel, 1995). 즉, 일상생활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상적인 구조까지 확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또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일상의 특징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후설(Husserl)이 인간의 행위를 객관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양(量)화시키려는 실증주의에 대항하여 인간의 주관적 의미가 지향된 곳으로서의 생활세계를 강조한 이래, 생활세계론은 슈츠(Schutz)등을 거치면서 사회학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분파들이 생겨났다¹⁾(김왕배, 199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일상생활연구회를 통해 일상생활에 관한 기존 이론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일상성 연구가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강수택, 1992, 1994; 최재현, 1985). 일상생활과 권력,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자 계급 가족의 생활실태, 도시중산층의 생

1) 기존의 사회학 분야에서 일상생활은 현상학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맑스주의 세 부류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일상생활에 대한 공통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부류의 학문적 관점에서 생활세계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활양식 등 일부 부분영역의 연구도 진행되었다(심영희, 1995; 윤여덕·나영선, 1994; 이호재·지은희, 1988; 장경섭, 1995; 홍두승·김미희, 1988 등). 또한 분석의 초점이 다르긴 하지만 생활양식론이나 노동계급 상태론 역시 생활세계에 대한 선구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이시재, 1990; 백옥인, 1989).

그러나 생활세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 변화해가는 일상생활의 형식과 내용을 추적하기 위한 더 총체적인 분석들을 보이고 있지 못하거나, 부분 영역에 대한 경험연구에 치우침으로써 이론과 경험과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김왕배, 1999). 또한 일상생활에 관한 기존 이론들은 성(gender) 요인을 간과하고 있는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여성의 일상세계는 남성들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복잡성을 드러내게 된다. 즉, 여성의 일상성은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가시적, 비가시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그 의미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일상성 이론들은 이 같은 여성의 경험과 그 의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생활세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그 성별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생활세계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윤택림, 1996).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와 개인간의 의미 있는 연결점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여성들의 생활세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는 먼저 한국사회 남성들의 일상생활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연령, 직업, 결혼지위,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나. 생활시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생활세계 또는 생활구조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생활시간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시간사용에 대한 선택에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가 반영되며,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가는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예시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경미, 1991). 이 절에서는 이들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생활시간 관련 주요개념 및 연구동향

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생활시간의 개념 및 분류

생활시간이란 개인이 매 시간, 일, 주, 월, 연 그리고 생애 등의 일정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와 학문영역에 따라 생활시간 또는 시간사용(Time use), 시간예산(Time budget), 시간배분(Time allocation)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통계에서는 시간예산을, 경제학에서는 시간배분을, 사회학에서는 시간사용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학에서는 주로 시간사용을 사용하면서 시간배분과 시간예산을 사용하기도 한다(김승권 외, 2001).

생활시간은 일반적으로 유급노동(paid work)과 무급노동(unpaid work), 개인유지, 자유시간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연구목적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및 분류될 수 있다. 연구자들의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Sullivan 과 Gershuny(2001)는 개인의 생활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레저활동, 생리적 시간을 포함한 개인 돌봄(personal care)의 네 개의 영역으로 크게 나누었고, Feldman과 Hornik(1981)은 크게 노동과 노동이 아닌 일로 분류하고 후자에 필수적 일, 가사노동, 여가를 포함시켰다. Robinson(1976)은 생활시간을 크게 의무적인 활동시간, 자유시간 두 범주로 나누고 전자에 노동, 가사노동, 자녀양육, 개인적인 필요, 교통시간의 영역을, 후자에 조직 활동과 교육, 대중매체 이용, 사회적 오락적인 시간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생활시간은 생리적 시간과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여가) 시간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조희금, 1993; 이기영 외, 1994; 박수경·홍향숙, 1994; 임정빈·서병숙, 1989 등). 이들 연구에서 수입노동 또는 유급노동시간은 시장에서 수입을 만드는 활동들에 할애된 시간을 의미하며, 가사노동 또는 무급노동시간에는 음식준비, 청소, 세탁, 집관리, 가정경영, 아기돌보기 및 그 외 가족돌보기, 쇼핑 등이 포함된다. 여가 또는 사회문화적 시간에는 자유시간에 여가활동으로 사용한 시간과 종교활동이나 시민활동 등에 사용한 시간들이 포함된다.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1985)에서는 생활시간을 생활필수와 노동, 여가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생활필수에는 수면이나 식사 등과 같은 생리적 활동들이, 노동에는 일과 가사, 통근 등이, 여가에는 개인적 교제와 안정 및 휴식, 취미와 오락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 활용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시간일지에 기록된 행동을 통계청에서 개발한 행동분류체계에 따라 9개의 대분류와 51개의 중분류, 125개의 소분류로 부호화하고 있는데, 9개의 대분류는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필수생활시간에는 수면, 식사, 세수 및 화장, 개인위생 등에 필요한 시간이 포함되며, 일, 가사(가족보살피기 포함), 학습 및 이동은 의무생활시간에,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은 여가생활시간에 포함된다.

2) 생활시간 관련 연구 동향

생활시간 관련 초기 연구는 주로 노동분석적 측면에서 수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구소련에서 실시된 노동자의 시간연구를 들 수 있다. 구소련의 연구는 노동인구의 일반적인 상태와 표준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조직과 관리, 생산성의 향상과 문맹퇴치 등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며(김희재, 2003), 산업별 노동시간 실태, 적정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규칙과 표준작성 등 노동관련 사항과 함께 가사시간과 자유시간, 이동시간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김승권 외, 2001).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2차대전 이후 생활시간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여가에 중점을 둔 시간연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영국의 BBC 방송국과 일본의 NHK 방송국이 방송회사의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실시한 생활시간사용조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7년~1979년에 11개주 2,100가구의 양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NE113 프로젝트 자료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생활시간 관련 연구들은 취업부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사노동시간, 시간의 가치측정, 자녀의 생활시간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생활에 투입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1).

생활시간과 관련된 최근 연구로는 탈산업사회에서 일과 레저에 관한 Gershuny

(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40여년 가까이 다양한 선진국에서 수집된 20만일 가량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는데, 생활시간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여가 및 소비시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를 국가와 성, 계급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은 유급노동의 비율이, 남성은 무급노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두 성별간의 유급노동-무급노동 사이의 비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과거에 비해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높은 계급으로 갈수록 적은 여가 시간을 가지고, 무급노동보다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산업에 있어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여가 및 소비시간의 증가로 서비스와 관련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계급과 성에 의한 시간 사용차이가 감소하는 근대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시간 사용연구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정학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주요 연구영역으로는 시간사용구조와 가사노동시간, 가사작업 간소화, 여가, 시간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시간사용구조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외숙·이기춘, 1988). 시간사용구조에 관한 초기 연구는 하루 24시간을 몇 가지 활동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활동영역별 시간량을 조사하는데 그쳤으나, 이후 시간사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연구나 취업주부,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등의 시간사용구조 및 영향변수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생활시간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국가간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한경미, 1991; 두경자, 1994; 이기영 외, 2001). 생활시간에 관한 국제 비교는 각 국가마다 조사 대상자의 분류나 시간 자료의 형태, 활동 분류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하나,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생활세계 구성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간 생활시간 비교연구로는 1999년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한 국민생활 시간 활용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이기영 외, 2001)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미국, 핀란드 4개국을 대상으로 성, 연령, 취업여부 등에 따른 국가간 생활시간 배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시간배분의 측면에서 남녀간 불평등이 크

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불평등은 주로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성별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생활배분에는 시간 가용성보다는 의식이나 규범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시간관련 실태 조사로는 한국방송공사에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5년 간격으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 조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방송정책 및 국가 정책 수립이라는 연구 목적에 따라 생활의 다면적인 측면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이기영 외, 2001), 생활시간배분에 있어 개별 활동을 적정 생활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와 응답자의 연령, 가족생활주기, 학력 등 응답자 특성별 자료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김승권 외, 2001).

이후 1999년부터 통계청의 생활시간사용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전국의 대규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목적이 국민 생활시간과 생활양식의 파악에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대표적 연구로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 관한 분석(김준영, 2001; 문숙재 외, 2001)과 국민생활 시간 활용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이기영, 2001), 생활시간 배분실태 현황과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김승권 외, 2001)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 및 시간의 배분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부터 생활양식이나 사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 같은 중요성에 따라 현재 생활시간 관련연구는 노동분석적 측면은 물론, 시간사용구조와 가사노동시간, 사회변화나 삶의 질, 레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유형별 한국 여성의 생활세계

여성 집단 내부는 생애과정 단계나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하위집단은 서로 다른 일상생활 유형을 갖게 된다. 여성의 생활세계는 특히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생애과정 단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였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거나 장기간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르는 소위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생애과정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제 일상생활에 배분하는 시간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여성 내부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기혼여성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나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에서 미혼여성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과 함께 요구되어지는 가족생활 내에서의 역할 증대는 여성의 시간배분에서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혼여성의 생활세계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이현승, 1996). 마찬가지로 연령의 증가나 사별, 이혼 등의 생애과정 또한 여성의 생활세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혼여성의 경우 생계를 위한 유급노동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활세계의 양상에서 다른 여성 집단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생활세계가 생애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사회가 남성에게는 가계부양자 역할을, 여성에게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성별 역할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한경혜·김진희, 2003). 또한 여성의 생활세계와 생애과정 사이의 이 같은 연관성은 결혼이나 출산의 선택을 통해 생애과정상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최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과 가족, 여가로 대표되는 생활세계의 구성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성별간·성별내 차이와 함께 시간배분의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성역할 규범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유형별 한국 여성의 생활세계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이후 연구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을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전업주부/취업주부), 고령여성, 이혼여성의 다섯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의 일상생활을 일(유급노동)과 가족(무급노동), 여가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 다섯 집단의 분류는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선행연구검토에서는 각 집단이 함의하는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집단 특성을 개관하도록 하겠다.

가. 미혼여성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집단은 전체 인구의 30.1%이며, 미혼자 집단 내 구성은 남성이 57.8%, 여성이 42.2%로 남성 미혼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통계청, 2001). 그러나 여성의 미혼비율(15세-49세)은 1970년(31.5%)이래 2000년(34.9%)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25세-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9.7%에서 2000년 40.1%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표 II-1 참조>). 미혼여성비율의 상승은 초혼연령의 증가 및 독신(celibacy)비율²⁾ 증가에 기인한다. 2004년 현재 여성의 초혼연령은 평균 27.5세로 1972년 22.6세에 비해 약 5세 정도 늘어났으며, 독신 여성의 비율 또한 1970년 0.1%에서 2000년 1.7%로 17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 미혼자 비율의 급증세는 결혼에 관한 전통적 규범의 약화와 태도 변화, 학업연장이나 경제활동 등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순일 외, 2004).

<표 II-1> 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0

(단위: %)

구분	여자 연령층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31.5	97.1	57.2	9.7	1.4	0.4	0.1	0.1
1975	36.0	97.4	62.5	11.8	2.1	0.7	0.3	0.2
1980	36.5	98.2	66.1	14.1	2.7	1.0	0.5	0.3
1985	36.3	99.1	72.1	18.4	4.2	1.6	0.7	0.4
1990	36.4	99.5	80.5	22.1	5.3	2.4	1.1	0.4
1995	34.6	99.2	83.3	29.6	6.7	3.3	1.9	1.0
2000	34.9	99.3	89.1	40.1	10.7	4.3	2.6	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미혼여성은 주로 20-29세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 20세-24세의 미혼율이 가장 높았다(통계청, 2000). 교육수준별로는 남녀미혼집단 모두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2) 인구학적으로 독신(celibacy)은 생애동안 전혀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비율로, 45~49세에서 미혼으로 남아 있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됨.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통계청, 2001). 학력과 관련하여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김태홍·김종숙, 2002).

최근 미혼여성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급속한 독신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통계청 자료(2001)에 따르면 2000년 현재 1인 가구 규모는 전체 가구의 15.5%에 해당하는 2,224천 가구로 이는 1980년대에 비해 3배 정도 급증한 수치이다.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³⁾을 살펴보면, 미혼여성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20-29세가 23.1%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만혼과 독신주의화의 영향으로 30세 이상 연령에서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윤소영, 2002). 혼인상태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미혼이 4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남성(61.0%)이 여성(29.8%)보다 많았고 이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많았다(통계청, 2001).

한편, ‘미혼’은 결혼상태를 기준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는 ‘혼자 사는 미혼자’와 다른 가족원과 동거하는 미혼자,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자(celibacy), 자신의 삶을 즐기고 최적의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보류하는 일시적 독신 등 다양한 집단이 모두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 집단의 공통점과 더불어 미혼여성 내의 다양성에 따른 생활양식과 행동패턴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미혼여성과 일

2004년 현재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3.3%로, 기혼여성의 48.7%보다는 높고, 미혼남성의 53.6%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판매직이 24.2%,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17.1%, 전문가가 16.5%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DB).

그러나 미혼여성의 학력별 고용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미혼여성들이

3) 2000년 현재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비는 0-19세가 2.1%, 20-29세가 23.1%, 30-39세가 18.7%, 40-49세가 13.3%, 50-59세가 11.1%, 60-69세가 15.8%, 70세 이상이 16.0%이었음.

임시직과 같이 낮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적 위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 미혼여성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용직에 취업하는 비율이 1990년 30%수준에서 2001년 16%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들의 30%가량이 임시·일용고로 일하고 있었다(김태홍·김종숙, 2002). 이는 지속적인 고학력화를 고려해볼 때,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일용고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문대졸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수준인 85%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용직 취업 비율도 4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상용직 취업비율과 비슷한 35%가량이 임시 및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전문대졸 여성의 일자리 또한 고졸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 및 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구성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태홍·김종숙, 2002).

대졸 여성의 상용직 비율은 40.1%로 1990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나 임시 및 일용고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상용직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른 학력의 여성과 고용 환경의 열악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가 구성비가 증가된 반면 준전문가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과거 고졸여성이 취업했던 직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함에 따라 고용의 질적 측면은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있다(김태홍·김종숙, 2002).

한편 이와 같은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성 내부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일부 여성들은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수로 여기고 자신들의 일에 몰두함으로써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변화순 등(2001)에 따르면 30대 미혼들은 '직장생활'을 독신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보람, 혼자만의 삶을 통한 자유감과 함께 일로 인한 시간적 제약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다른 여성들은 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관념 역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보다는 가정에 우선권을 두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 2차 노동시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여성이 있는가하면 노동시장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기대를 걸고, 가부장적 결혼제도로 편입하고자 하는 등 결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여성들도 존재한다(김경화, 2004).

이상에서 미혼여성들의 일반적인 고용현황 및 일 관련 태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혼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수입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30-40대 미혼독신남녀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윤소영, 2002)에 따르면, 30-40대 미혼들은 하루 평균 5시간 25분을 고용된 일이나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구직활동 등의 ‘일’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더 긴 시간을 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혼자 사는 30-40대 독신남녀들의 수입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4분으로, 다른 미혼집단에 비해 2시간 가량 긴 시간을 ‘일’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는 사람의 비율도 30%나 있었다. 이는 독신미혼집단의 경우 기혼집단 및 다른 미혼집단에 비해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미혼여성과 가족, 여가

미혼여성의 급격한 증가추세와 함께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이슈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들은 체계적이기 보다는 에세이나 단편 취재 등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이 산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윤소영, 2002). 또한 기존 연구에서 다른 가족원과 동거하는 미혼집단과 독신미혼집단 등과 같이 미혼집단 내의 이질적인 집단간의 일상생활의 차이점을 밝히거나, 그것이 기혼집단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기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미혼여성의 가족 및 여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혼독신남녀는 ‘화려한 싱글’로 ‘자유’의 대명사로 표현되며, 이들의 주말은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윤소영, 2002). 실제로 미혼여성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학습, 교양강좌 등 자기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거나, 인간관계에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주말이나 휴일을 집 밖에서 즐기는 경향이 강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박찬욱 외, 1992).

그러나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최근 연구(윤소영, 2002)를 살펴보면 혼자 사는 30-40대 미혼 남녀는 기혼 및 다른 미혼집단에 비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많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30-40대 미혼집단⁴⁾이 하루 평균 5시간 25분을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 혼자 사는 미혼집단은 하루 평균 3시간 4분으로 두 시간 이상 적은 시간을 여가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독신자들이 실제로는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여가시간을 주로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여가활동의 내용 또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독신남녀의 시간사용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이들이 가정관리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미혼 남성과 여성이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각각 평일 44분과 1시간 7분, 휴일 1시간 40분과 2시간 31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정관리활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많았던 것과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로, 혼자 사는 미혼남녀의 경우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의식주 생활을 혼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뚜렷한 성별 분업 현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에게 가정관리활동은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 되므로, 다른 미혼집단에 비해 가정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휴일에 이 같은 활동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기혼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는 기혼여성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 특성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경제활동참여여부와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전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4) 이 글에서 미혼집단은 결혼상태만을 근거로 구분한 개념으로, 여기에는 다른 가족원과 동거하거나, 1인가구를 형성한 미혼 등 다양한 형태의 미혼집단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면,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미혼집단은 독신 또는 혼자 사는 미혼집단으로 표기하였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기혼자의 비율은 50.2%였으며,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이 22%, 여성이 78%로 여성이 세 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30-34세, 35-39세의 비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45-49세, 50-54세가 많았다(통계청, 2000). 또한 남성과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여성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8%가 가사와 육아 관련 활동을 하였던 반면, 남성은 45.4%가 학교를 통학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이는 우리나라 전업주부들이 비교적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주기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비경제활동 여성의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현재 중졸이하 여성의 비경제활동비율은 45.8%였는데 비해 고졸은 50.4%, 전문대졸은 52.9%, 대졸이상은 53.4%였다(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이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연령대에 맞추어 살펴보면, 30-34세와 35-39세 모두 대졸이상의 여성이 각각 26.8%와 21.5%로 가장 많았고 고졸 역시 각각 18.9%와 14.9%로 높게 나타났다(김태홍·김미경, 2002).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경제활동비율이 낮아지는 기혼 남성 및 미혼 여성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특징으로,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 및 경력단절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남편의 직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6.4%로 가장 많았으나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14.2%), 사무종사자(13.5%),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11.0%), 기술공 및 준전문가(10.3%)등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홀벌이 남편이 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판매직, 조립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전업주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전업주부와 가족

전업주부들이 수행하는 무급노동은 크게 식사준비와 청소, 빨래, 장보기, 집안일 계획, 가계부 기록 등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와 놀아주기, 숙제 도와주기, 밥 먹이기, 목욕시키기, 병간호하기 등의 자녀돌보기 시간으로 구성된다.

주부의 무급노동시간은 주부의 나이와 교육수준, 소득, 자녀 나이 등의 변수와 평일, 휴일의 여부, 고용인의 유무에 따라 시간사용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박명숙·백경임, 1997). 먼저 나이의 경우, 젊은 연령층일수록 주부의 무급노동시간은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녀 양육과 같은 가족생활주기와 관련된 결과로 파악된다.

주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인 교육수준과 소득의 경우,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들이 무급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은 높아지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득 또한 가사노동을 재화나 용역 등으로 대체시킴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촉진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숙재·김혜연, 1995).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막내자녀의 연령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6세 미만의 자녀의 존재유무는 주부의 가사노동의 양과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명숙·백경임, 1997). 이는 막내자녀가 미취학 자녀일 경우 ‘밥 먹이기’나 ‘돌보기’ 등 기본적인 보살핌 활동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한편 주부들의 교육수준 및 가사노동 관련 자원 요인들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업주부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은 1968년 8.97시간에서 1992년 9.1시간으로 20여 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 1996). 이는 앞서 언급한 주부의 개인적 요인이나 환경적, 자원적 요인이 달라진다고 해도 여성이 자녀부양이나 가사와 같은 일들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과 중요한 ‘집안일’로 간주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주부의 기본적인 가사노동시간이 변화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2) 전업주부와 여가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여성의 여가 참여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주부들의 평균 여가시간은 매우 적으며, 그 내용 또한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외숙, 1991; 홍성희, 1991; 문숙재, 1996).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시간은 최근의 연구일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막내자녀가 초등학교생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생활주기의 진행에 따라 20분 내외의 차이를 보일 뿐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안영희, 1977; 임정빈, 1980; 김효숙, 1983; 이기영 외, 1994).

전업주부의 여가시간 및 여가유형은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자녀수, 막내자녀의 나이, 가족의 수, 소득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부의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백주현, 1989)에 따르면 40대 이전의 젊은 연령층의 주부일수록 여가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았다. 여가시간 및 유형에 대한 이 같은 연령의 영향은 연령별로 상이한 노동관과 여가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일요노동기피’와 여가선호현상은 연령에 따른 여가관의 차이를 잘 보여주며,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긴 여가시간과 다양한 여가유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이승미, 1996).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늘어나는데 특히 적극적인 여가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미, 1991). 또한 자녀수가 많고,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감소하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보살핌의 필요성으로 인해 증가된 무급노동시간이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여진다(민경애·윤복자, 1985; 박명숙·백경임, 1997).

한편, 주부의 여가시간 및 유형은 앞서 언급된 환경적 요인보다는 주부 개인의 시간관리 능력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민경애·윤복자, 1985), 자녀의 일과(윤태림, 1996)나 주부의 가사작업시간의 정도(문숙재, 1996)에 따라 주부들의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등 주부의 여가시간에 대한 논의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기혼여성: 취업주부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1.2%로 1980년에 비해 약 10% 정도 증가하였다(<표Ⅱ-2 참조>). 이는 같은 기간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50.8%에서 53.3%로 2.5%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증가율이며, 비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취업까지를 고려한다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의 여성 경제참여율 증가는 기혼여성의 참여율 증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0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에는 한국 경제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성교육수준의 향상 및 직업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과 남편의 불안정한 수입 및 실직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경애, 1999). 실제로 기혼여성의 취업동기에 따라 맞벌이를 유형화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여성의 상당수는 가족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취업을 선택하는 생계유지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충선, 1995).

<표 Ⅱ-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4

(단위: %)

구분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2000	2004
기혼	41.5	42.5	49.2	49.5	51.8	49.7	51.0	51.2
미혼	50.8	44.7	46.5	50.4	49.6	46.2	47.9	5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연령별로 취업주부들은 40대 이상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취업자들 대부분이 30-39세와 40-49세에 해당되었던 것과 달리 여성 취업자들은 40-49세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20-29세, 30-39세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이는 결혼 및 출산 등의 생애주기적 상황이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

는 동시에 취업주부의 상당수가 이 같은 시기를 넘긴 연령대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임을 보여준다.

한편, 각 년도별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표 II-3>참조), 미혼자의 비율이 높은 20-29세, 결혼과 출산이 시작되는 30-39세 여성의 경우 해가 거듭될수록 취업자 비율이 낮아지는 데 반해, 40-49세 여성의 경우 매해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좀 더 세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를 통해 취업주부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3>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 1990-2004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29세	27.4	28.1	24.9	24.6	24.5	24.1	23.8
30-39세	23.8	26.1	24.9	24.6	24.1	24.0	23.7
40-49세	20.7	20.2	24.3	25.0	25.6	26.3	2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취업주부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DB), 이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많았던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 취업자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전업주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취업주부들의 낮은 교육수준은 이들의 취업 직종이나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박충선, 1995) 이러한 요소들에 따른 취업 주부 내 생활세계의 다양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취업주부와 일

2003년 현재 취업주부의 직업분포율은 서비스 판매직 39.7%, 단순 노무직 14.1%, 사무직 11.6%, 전문직 8.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서비스판매직 비율은 0.5%p, 사무직은 2.9%p, 전문직은 2.4%p 증가한 반면, 단순노무직은 3.8%p 감소한 수치이다(김승권 외, 2003). 그러나 취업주부의 전문직 및 사무직 비

율이 증가하였다고 해도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 종사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취업주부들은 여전히 임금수준이나 고용지위 등이 낮은 직종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미혼여성의 직종분포와 비교해보면, 사무직 종사직 및 전문직의 비율이 떨어진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비율이 크게 늘어나 혼인상태에 따라 직종이 분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취업주부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더 낮고 열악한 노동 지위에 속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현재 여성취업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4시간으로, 여성취업자의 약 17%가 35시간미만의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던 반면, 남성취업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7.6시간이었으며, 35시간미만의 시간제 근무자는 9.5%에 불과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 직종별 근로시간은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이 일 평균 8.9시간, 기능근로자 및 농업업숙련근로자가 8.7시간, 서비스 종사자가 8.6시간,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8.5시간, 전문직 종사자가 7.9시간, 사무직 종사자 8.0시간으로, 기혼여성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근로시간이 다른 직종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DB). 이를 통해 취업주부는 기혼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처해있으며, 상당한 유급노동시간으로 인해 시간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취업주부와 가족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과 같은 무급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가사나 자녀양육 관련 활동에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급노동시간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이러한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량의 차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취업여성의 무급노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손문금, 2005), 취업주부가 무급노동시간의 대부분을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주로 신체적 돌보기)에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청소 및 정리와 가재 도구·집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미취학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와 놀아주기 등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남성들의 경우 무급노동을 하더라도 유급노동과 같이 시작과 끝이 분명한 가사노동을 하며, 가족보살피기 노동도 놀이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반면, 여성은 매일매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전업주부에 짧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이 평균 6-11시간 정도인 반면, 취업주부는 평균 4-7시간이었다(최명숙, 1987; 안순덕 외, 1991; 한경미, 1991; 조희금, 1993; 이기영 외, 1994). 그러나 취업주부의 짧은 무급노동시간은 가족원과의 가사노동분담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취업주부 자신의 조정으로 인한 결과로, 이를 수입노동시간과 함께 고려할 경우 취업주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가사에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은 요일이나 생활수준, 직업지위, 소득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요일의 경우, 취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은 평일에 비해 휴일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조희금, 1997), 이는 기혼 취업여성들이 휴일을 활용해 평일에 부족했던 가정관리 활동이나 자녀 돌보기 등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주부의 생활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높을 경우 가사노동의 아웃소싱을 통해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생활수준이 낮거나 저소득 주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임금에 노동 강도가 센 하위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생계를 위해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주부 스스로 전담하던가, 자신의 생리적 시간이나 여가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3) 취업주부와 여가

취업주부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가정·직장·개인생활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과중한 노동부담은 물론 시간부족으로 인한 시간갈등을 항상 경험하고 있다(문숙재, 1996).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주부는 생리적 시간과 여가시간을 줄임으로써 부족한 노동시간을 보충하려 한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여가시간에 대한 분류와 개념이 연구목적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은 전업주부에 비해 약 2-3배 정도 적으며, 평일에 비해 휴일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 되고 있다(이승미, 1996).

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은 시간배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결과(조희금, 1997), 취업주부는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와 같은 대중매체 활용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휴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기혼 남성들이 운동과 옥외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취업주부들은 오락, 대화, 휴식, 뜨개질 등과 같은 가정중심적 활동과 종교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취업주부의 여가활동이 가사노동과 분명히 구별되지 못하고, 가사노동이면서 동시에 여가활동의 성격을 갖는 반여가활동(semi-leisure activity)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문숙재 외, 2005).

라. 고령여성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372천명으로 총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표 II-4 참조>).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995년부터 2000년의 기간동안 27.7%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고령 인구는 남성이 38.2%, 여성이 61.8%로 고령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남성의 증가율이 32.1%이었던 반면 여성의 증가율은 25.2%로 나타나 남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2).

<표 II-4> 고령자(65세이상) 규모 및 추이

(단위 : 천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총인구	37,407	40,420	8.1	43,390	7.3	44,554	2.7	45,985	3.2	
65세이상	1,446	1,750	21.0	2,262	29.3	2,640	16.7	3,372	27.7	
남 자	539	652	20.9	811	24.3	975	20.2	1,287	32.1	
여 자	907	1,097	21.0	1,452	32.3	1,666	14.7	2,084	25.2	
구성비	3.9	4.3	5.2	5.9	7.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 2000.

연령별로는 65세-69세가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세-74세 27.2%, 75세-79세 17.8% 등의 순이었으며 80세 이상으로 갈수록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이 52%, 사별이 47%, 이혼과 미혼이 각각 0.7%, 0.3%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44.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이 33.8%, 중학교 8.4%, 고등학교 8.0% 등의 순이며, 대학 이상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령남성의 경우 무학의 비중이 16.6%로 크게 감소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고령여성은 무학(47.3%)과 초등학교 졸업(37.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학력수준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0).

세대구성별로는 2000년 현재 전체 고령인구 중 29.9%가 3세대 가구에 분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1세대 가구(28.7%)와 2세대 가구(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세대 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혼자 사는 1인 노인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02). 이는 전체 고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인구 집단 내에서 고령여성 집단의 사회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1) 고령여성과 일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시간이나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고, 노동에 배분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 경험이 적고,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인구 중 25.2%인 842천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남성의 44.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령여성은 22.8%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남녀 모두 농업 및 임업(74.5%)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도매·소매업과 보건복지공공개인서비스업 및 기타에 해당되었다. 종사상 지위로는 고령남성의 경우 자영자가 76.2%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고령여성의 경우

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46.4%로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통계청, 2002).

한편 노인들의 유급노동시간은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나 연령, 직종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5세-69세의 낮은 연령층이 57.9%, 70대가 38.3%, 80대 3.8%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령과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노인의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직종을 들 수 있다. 노인의 생활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정경희, 2001),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세 시간 이상 긴 유급노동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경우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농현상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된 상태에서도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고령여성과 가족

일반적으로 노인 시기는 신체가 약해지고 경제적 수입이 감소되는 등 단독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행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노인들에 대한 가사노동의 요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문숙재, 1996), 결혼 상태나 세대구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고령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이라 할지라도 청소 및 정리, 음식준비 등의 기본적인 가사활동은 노인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여성의 경우 젊었을 때와 다름없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의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시간이 유지되는 가사노동과 달리 노인들의 가족보살피기 관련 시간은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남성이 12분, 고령여성이 18분으로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남녀간의 차이도 크지 않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욱 급감하였다. 이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연령까지는 손자녀의 출산이나 아이

돌보기, 집안 보살핌 등 가정의 주변역할을 분담하거나 육아 또는 가사돌보기의 경험자로서 기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동거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서 이들의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이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김태현, 1981).

3) 고령여성과 여가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따라서 ‘재생산을 위한 활력’으로 여겨지는 일반성인의 여가와 달리 노인의 여가는 매일 매일의 생활 전체이며, 취미나 오락, 자기개발 등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다양하고 전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조경옥, 2005).

고령 여성의 여가유형은 일반적으로 TV나 신문보기, 친구나 이웃과의 답소, 집안일 보기 등의 소극적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이 많은데, 이는 남성노인에 비해 사회적 활동 경험이 제한적인 고령여성의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 또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조경옥,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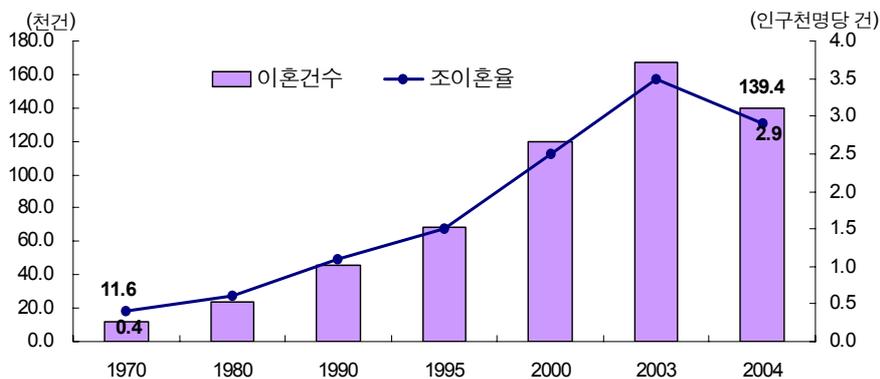
한편 노인의 여가유형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이가옥 외, 1995), 고령남성의 여가활동의 종류가 3.1개인 반면 고령여성은 2.4개로 고령여성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하는 여가활동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경제적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노인 1인가구의 83.7% 가량이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정부지원과 가족, 친인척의 도움이 수입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변화순 외, 2001).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로 지낸 노인이 대부분이고 무배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클 것이며(유영주 외, 2000), 이는 이들의 여가활동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과
의 관계인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조경옥, 2005).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지향적
으로 사회화되어온 고령여성들에게 ‘가족관계’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유영주 외, 2000), 가족과의 관계는 고령여성의 삶에 각별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가족, 친척이나 이웃,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지망이 클수록 여가활동에 참여
할 기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나 거주조건,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제
약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 참여정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조경옥, 2005).

마. 이혼여성

2005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1970년 이후 혼인·이혼 주요 특성 변동추이’ 결과
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혼발생건수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1998
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1980년 0.4건에서 1990년 1.1건, 2000년 2.5건, 2003년 3.5건, 2004년 2.9건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OECD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높은 영국의 이혼율이 2.6건인 것을 감
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그림 II-1>참조).



<그림 II-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자료: 통계청, 『1970년 이후 혼인·이혼 주요특성 변동추이』, 2005.

이혼율의 증가는 한부모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데 전체 가구 중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형성 비중은 1975년 4.3%에서 2000년 11.6%로 증가하였다. 2000년 현재 한부모 가족 형성의 원인은 사별이 44.7%로 가장 많고 이혼에 의한 것이 21.9%로 나타났으나,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형성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장혜경·민가영, 2002). 성별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구성을 살펴보면, 2000년 현재 한부모 가구 중 80.4%가 여성한부모 가족으로 이혼으로 인한 여성 가구주 및 여성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장혜경 외, 2001).

연령별 이혼 비율을 살펴보면 30-34세가 1975년 1.1%에서 2000년 1.5%로, 같은 기간 35-39세가 1.1%에서 3.0%로, 40-44세가 1.0%에서 4.3%로, 45-49세가 0.9%에서 4.4%로 증가하여 30대 이상의 각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녀 모두 35-39세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의 경우는 40-44세, 45-49세의 순이었으며, 여성은 30-34세, 40-44세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이처럼 30-40대에 이혼여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생애주기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4년 현재 이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인 65.5%가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으며, 대개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통계청, 2005).

한편 양부모가족과 한부모 가족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조영희, 2004), 한부모 가족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4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24.06%, 초등학교 졸업이 21.39%, 전문대졸 이상 9.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부·모 모두 20% 가량이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되는 반면, 양부모 가족의 모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6.83%에 그치고 있어 한부모 가족 부·모의 교육수준이 양부모 가족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3차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30-40대 편모가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성림, 2004), 편모가족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 절반가량이(53.68%) 분포되어 있어 이들이 대체로 낮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부모 가족은 사별, 이혼, 별거 등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

혼여성의 경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최근 한부모 가족 형성에서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및 30-40대 편모가족에서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37%)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통해 이혼여성의 교육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 이혼여성과 일

이혼 당사자에게 있어 이혼 후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가정 내 경제적 자원이 유입 및 배분되어 온 경우 이혼 후 여성은 주 수입원을 상당부분 상실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혼여성의 경우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30-40대의 유자녀 한부모가족에 관한 연구(조영희, 2004)에서 양부모 가족의 모가 54%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편모가족의 모의 경우 82%가량이 취업상태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편모 가족의 모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양부모 가족의 부의 취업률이 95%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부모가 된 이후 취업한 비율이 편부의 경우 3.9%에 불과한 반면 편모의 경우에는 53.5%였으며, 한부모가 되기 이전의 취업상태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편부와 편모가 각각 69.4%, 21.2%로 나타나 편모여성가족의 경제적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여성들은 주로 단순노무직과 판매 및 영업 관련직과 같이 저임금 및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장혜경·민가영, 2002), 이는 이혼 후 여성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해도 경험 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문숙재·윤소영, 2000). 구체적으로 이혼여성들의 주요 직종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이 30.7%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16.5%, 전문직이 15%, 판매 및 영업 관련직이 11.8%, 자영업이 9.4%의 순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02). 이는 취업주부가 서비스 판매직에 39.7%, 단순노무직 14.1%, 사무직 11.6%, 전문직 8.4% 등의 직종분포를 나타내었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김승권 외, 2003). 또한 이혼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단순노무직이나 판매 및 영업 관련직의 경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8.5시간과 8.6시간으로 매우 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이혼여성과 가족

이혼여성은 생계부양자와 가사노동자로서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시간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여성들은 부족한 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식사준비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가사노동 보다는 자녀보살피기 시간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혼여성들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육체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을 기울이기 어려우며, 시간 부족과 빈곤 상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표출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점들이 보고 되고 있다(장혜경·민가영, 2002).

한편 이혼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이혼여성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여성들은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적은 수의 가족원과 함께 살 가능성이 높는데, 가족수가 적을수록 그만큼 가정관리나 가족 보살피기에 필요한 시간도 감소될 수 있다. 특히 남성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취학 자녀수가 많거나 다른 성인과 함께 사는 경우, 이혼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많을 경우에도 이혼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은 감소할 수 있다. 부모 형제와 같은 동거 가족은 이혼여성의 시간사용에 일관성 있는 영향을 주기 보다는 동거가족원이 가정관리나 가족돌보기를 도울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이혼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조영희, 2004).

3) 이혼여성과 여가

생계부양자와 가사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해야 하는 이혼여성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여가시간을 줄여 시간부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문숙재 외, 2000). 시간부족과 함께 앞서 언급한 이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여가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할 경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가의 종류와 범위가 제약될 수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여성의 경우 여가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김외숙, 1991; 임호남·박준석, 1997).

이혼여성이 갖는 심리적 요인도 이혼여성의 여가시간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혼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심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은 이혼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한국여성개발원의 전국 가족조사 결과(2003), 사별·이혼여성이 유배우자나 미혼/비혼에 비해 정신건강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스트레스 또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될 경우, 이혼여성들은 주변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어렵게 되어 폐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쉽다. 이 경우 이혼 여성의 여가는 가족단위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활동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여가시간에 수행하는 활동 역시 TV 시청이나 종교 활동 등과 같은 특정 활동에 편중되어 있을 수 있다(조영희, 2004).

그러나 최근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나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이혼을 좌절이나 실패 등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성공이나 성취 혹은 새로운 삶에 대한 적극적 선택으로 수용하는 시각도 존재한다(조성연, 2004). 실제로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72%가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후의 생활을 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장혜경·민가영, 2002). 따라서 이혼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혼여성이 동일한 상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이혼의 사유나 이혼 이후의 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혼여성의 심리적 안정 및 적응 양상은 물론 여가 시간 및 활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혼여성 자신의 개인적 자원과 주변의 지지와 보조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의 지원에 따라서도 이혼여성의 생활시간 및 여가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옥선화 외, 2004).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거나 친정 혹은 친구 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받을수록 이혼 생활에 적응이 빨라짐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달리, 충분

한 경제적 능력을 지니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의 지지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속하는 이혼여성들은 고립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Ⅲ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유형화

1. 생활시간조사 개요	43
2.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유형화 과정	46



1. 생활시간조사 개요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생활시간 조사는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는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14일까지의 13일간 진행되었다. 조사항목은 시간일지와 주택종류, 입주형태 및 미취학 아동 보유형태 등의 가구관련 사항, 그리고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개인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등의 개인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은 계통추출방법에 의해 다목적 표본 중 850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으며, 표본추출결과 17,000가구의 46,109명이 선정되었다. 이 중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응답자는 93.2%인 42,973명이었으며, 85,906일의 시간일지가 활용되었다.

시간일지는 2일(48시간) 동안의 행동과 시간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것으로, 10분 간격으로 어떤 행동을 언제 몇 분 동안 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일지에 기입된 행동은 통계청에서 개발한 행동분류체계에 따라 9개의 대분류와 51개의 중분류, 125개의 소분류로 부호화 되어 있다(<표 III-1> 참조).

9개의 대분류는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필수생활 시간에는 수면, 식사, 세수 및 화장, 개인위생 등에 필요한 시간이 포함되며, 일, 가사(가족보살피기 포함), 학습 및 이동은 의무생활시간에,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은 여가생활시간에 포함된다.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요일 구별 없이 하루 평균 특정행동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관한 자료는 물론 특정행동의 시간과 시간대에 관한 자료, 연령별, 성별, 혼인상태별, 학력별, 취업상태별 생활 형태에 관한 자료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표 III-1>에 나타난 통계청의 행동분류체계에 준하여 ‘일’, ‘가족생활’, ‘여가’를 구분하였다. 먼저 ‘일’은 행동분류체계의 ‘유급노동’ 시간으로 중분류인

‘일’과 ‘학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전일제 학생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IV장의 분석 결과 나타난 ‘학습’시간은 유급노동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의 학습은 ‘일’ 범주에 속한다. 다음으로 ‘가족생활’은 행동분류체계의 ‘무급노동’ 시간으로 중분류인 ‘가사노동’, ‘재화/용역 구입’, ‘가족보살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여가’는 행동분류체계의 ‘잔여범주’ 시간으로 중분류인 ‘조직활동’, ‘교제활동’, ‘레저활동’, ‘대중매체’ 시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III-1> 행동분류체계⁵⁾

시간분류	행동분류체계		
비자유 시간	개인유지 (필요시간)	개인유지	11 수면 12 식사 및 간식 13 개인관리 14 건강관리(의료적) 199 기타 개인유지
	유급노동 (계약시간)	일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2 무급가족종사일 2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4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25 구직활동 26 일관련 물품구입 27 기타일 관련 행동
		학습	31 학생의 학교교습 32 학생의 학교외 학습 33 학습관련 물품구입
	무급노동 (의무시간)	가사노동	41 음식준비 및 정리 42 의류관리(421~424) 43 청소 및 정리 44 그 외 집 관리 461 가계부 정리 462 가정계획 499 기타 가사일 463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계속)

5)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통계청의 공식 행동분류체계임.

시간분류		행동체계분류		
비자유 시간	무급노동 (의무시간)	재화/용역 구입	441 집손질 및 관련서비스 받기 442 세차, 차량 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족보살피기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생 보살피기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자유 시간	잔여범주 (여가소비)	조직활동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62 지역공동체 활동 63 사회참여 활동 64 자원봉사 74 종교활동	
		교제활동	71 교제활동 755 유흥(술, 춤, 노래방)	
		레저활동	학습	73 일반인의 학습
			문화	75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취미	76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425 재봉, 뜨개질 78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아이쇼핑, 비디오 빌리기)
대중매체	72 대중매체 이용			
이동: 811 개인유지관련 이동, 821 출퇴근, 822 그 외 일 관련 이동 831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 841 가정관리 관련 이동, 851 가족보살피기 관련이동				
기타: 919 생활시간 조사 설문지 기입, 999 그 외 기타				

2.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유형화 과정

가. 최적 일치법⁶⁾을 활용한 시간사용 시퀀스 분석

최적 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은 전체 사건 혹은 상태의 배열 형태를 지닌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자료인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적합한 배열 분석 방법이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기록 방식에 따라 분석 대상 여성들이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나눈 144개의 행동 기록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여성들은 144개의 스펠(spell)⁷⁾을 지니며 각 스펠은 다양한 순서와 길이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한 여성의 24시간은 144개의 스펠이 마치 쇠사슬처럼 연결된 형태이며 각 고리 즉 스펠을 시퀀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최적 일치법의 기본 발상은 다음과 같다. 가상의 두 사람의 하루 행동 내용이 시간별로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	8:00	8:10	8:20	8:30	8:40	8:50...
사례 1	아침식사	회사로 출발	버스로 이동	버스로 이동	회사 도착	근무
사례 2	아침식사	설거지	청소	청소	재택 근무	재택 근무

최적일치법의 기본은 이러한 자료에 대해, 각 시점에서의 상태를 몇 번이나 교체(substitution), 삽입(insertion), 혹은 삭제(deletion)하는 조작을 하여야, 사례1이 사례2와 혹은 사례2가 사례1과 동일하게 (즉 두 사례가 일치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서 두 배열 간의 근접성 혹은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6) 최적 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은 통상적으로 DNA 혹은 단백질의 배열을 연구하는 분자생물학자들에 의해 종종 진화의 계통을 재구성하는 도구로서 이용되어 왔던 일련의 기법들이다. 이것을 사회과학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앤드류 애벗(Andrew Abbott, 1983)이다. 그는 사회적 과정을 일련의 사건의 연속으로 보고 그러한 사건들의 배열과 순서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정의 연구에 핵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발생순서에 대한 연구에 최적 일치법을 적용하였다. 애벗의 선구적 연구를 뒤이어 많은 연구들이 최적 일치 분석을 사건 발생 순서의 연구에 이용하였다. 이하 최적 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에 대한 설명은 “최적 일치법을 통한 한일간의 직업배열 비교(한준, 2004)”의 설명 방식을 따랐음을 밝혀 둔다.

7) 일반적으로 분석 대상이 기간(duration)이 될 때 동일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공간(state space)을 스펠(spell)이라고 한다.

사례1의 경우 8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8시 10분에는 집을 떠나 버스를 타고 8시 40분에 회사에 도착한다. 그 이후 회사에서 유급노동을 시작한다. 이에 비해 사례2는 사례1과 마찬가지로 8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8시 40분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마친 후 집에서 유급노동을 시작한다. 이 두 사례의 씨퀀스를 비교해 보면, 사례1과 사례2는 8시를 기점으로 동일한 씨퀀스를 지나다가 8시 50분 유급노동을 할 때까지 4개의 행동 씨퀀스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두 사례의 배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례1과 사례2의 씨퀀스가 다른 두 번째 씨퀀스부터 다섯 번째 씨퀀스에 대한 조작이 필요하다. 즉 사례1을 기준으로 할 때, 사례2의 두 번째 씨퀀스인 ‘설거지’를 삭제하거나 사례1의 과 동일한 ‘회사로 출발’ 씨퀀스를 삽입하거나 해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각 조작이 하나의 계열 내에서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열 쌍(pair)의 대응되는 단위 혹은 상태를 비교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때 각각의 단위 혹은 상태를 대응시키는 기준이 시간축(clock)이다⁸⁾.

최적 일치법을 자료에 적용해서 배열을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자료의 크기이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큰 규모의 자료가 계산상의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최적 일치법에서는 자료의 비교 가능한 모든 배열의 쌍을 비교하기 때문에 만약 사례의 수가 n 이라면 실제 비교되어야 할 계열의 쌍은 $n(n-1)/2$ 개이다. 이 연구의 분석 자료를 예로 들자면, 33,980명의 비교 계열 쌍은 $33,980 \times 33,979 / 2 = 577,303,210$ 개이다. 즉 5억 7천만 개의 계열이 서로 비교되면서 삭제, 삽입, 대체 비용을 계산하여 상호 거리값을 산출해야 한다. 여기에 각 계열에 포함된 144개의 씨퀀스를 고려한다면 이 계산 과정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쌍별 계산과 함께 특정한 기준배열(reference sequence)을 이용해서 최적 일치법을 적용한 Scherer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정한 유형의 시간배열을 추출하기 위해 활용한 과정은 다음과 같

8) 두 개의 계열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조작을 통하여 서로 ‘일치’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최적’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각각의 교체, 삽입, 혹은 삭제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계열의 쌍에 대해 일종의 ‘비용’을 초래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때 최적일치법은 각각의 짝 지워진 배열들을 일치시키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일련의 조작을 찾아서, 그 조작에 들어간 비용을 토대로 이들 배열간의 전반적인 거리의 값을 부여한다.

다. 분석 대상 33,980명 가운데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대표성을 지닐 만 하다고 여겨지는 1,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최적 일치법 시간 계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찰 스펬의 기간을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다. 그리고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스펬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스펬을 삭제하여 개인당 총 20개의 스펬을 갖도록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1,000개의 표본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구성된 세 개의 기준배열과 비교함으로써 각 배열간의 거리값을 산출하였다. 비교가 되는 기준배열은 다음과 같다.

기준1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기준2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기준3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여가

<그림 III-1> 배열간 거리값 계산의 비교 기준배열

즉 세 명의 극단적 하루 시간 사용 유형은 ① 하루 종일 유급노동만 하는 여성, ② 하루 종일 가사노동만 하는 여성, ③ 하루 종일 여가 생활만 하는 여성으로 설정되었다. 이 세 유형과 각 표본의 배열들이 비교됨으로써 거리값을 얻었다.

이와 같이 최적 일치법에 의해 배열자료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배열들에 대한 일종의 거리값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거리값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⁹⁾. 최적 일치법으로부터 얻어진 배열간 거리로부터 군집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배열들 중에서 유사한 패턴을

9) 정보손실을 감수하고 1,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씨퀀스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조사자료 전체에 대한 군집분석만을 실시했을 때, 시간량에 대한 유형화는 가능하지만 시간대 즉 행동 순서와 시간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배열들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몇 개의 구별되는 패턴들이 존재하며, 각 패턴들 사이에서 배열들의 분포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들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적 일치법과 군집분석을 통해서 찾은 배열의 군집들이 어떤 배경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만약 현실적으로 구별되어 나타나는 배열의 군집들이 그에 속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혹은 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배경적 변수들이 개인들의 생활시간 배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관계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씨퀀스 분석 결과 유형화된 하위 여성 집단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표본을 대상으로 최적 일치법과 군집분석을 시도한 결과 본 분석 자료는 5개의 의미 있는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5개 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부표 1>과 같으며(보고서 맨 끝에 위치) 5개 유형의 개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1집단: 미혼 여성 중심

- 148명 포함
- 20대-30대 미혼 여성이 주를 이룸
- 임금노동자가 주를 이룸

② 2집단: 전업주부 중심

- 251명 포함
- 30대 기혼 여성이 주를 이룸
- 미취학 아동 많음
- 전업주부가 주를 이룸(78%)
- 고졸 학력자가 많은 편임

③ 3집단: 기혼 취업주부 중심

- 452명 포함

- 40대 기혼 여성이 주를 이룸
- 미취학 아동 별로 없음
- 중졸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많음
- 임금노동자 비율 높은 편임(64%)
- 직종 다양

④ 4집단: 고령 여성 중심

- 138명 포함
- 50대 이상 고령 여성이 비교적 많은 편임
- 무급가족종사자와 비경제활동자 주류
- 농업 종사자 많은 편임

⑤ 잔여 집단(residual group):

- 260명 포함
- 특성화되지 않은 다양한 집단이 혼재함

하루의 행동 시간량 및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의미 있는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1) 미혼 여성 집단, 2) 30대-40대 전업주부 집단, 3) 30-40대 기혼 취업여성 집단, 4) 50대 이상 중장년 및 고령여성 집단. 군집분석 결과 추출된 5개 유형 집단 가운데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후행되어야 하는 ‘잔여 집단’을 제외하고 대신 ‘이혼 여성 집단’을 추가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성 내부의 하위 집단을 규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탈가족화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이혼 여성 집단’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 최적 일치 법과 군집분석 결과 및 시의성을 토대로 유형화한 5개 집단은 여성의 ‘생애과정’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교차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의 생활세계를 규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IV



한국여성의 유형별 생활세계

1. 미혼 여성의 생활세계	53
2. 기혼 여성: 전업주부와 기혼취업여성	80
3. 고령 여성의 생활세계	132
4. 이혼 여성의 생활세계	162

Two horizontal decorative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r is a thin line with a fine grid pattern. The bottom bar is a thicker, solid black bar with a fine grid pattern.

1. 미혼 여성의 생활세계

가.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이 장에서 분석되는 미혼자 집단은 여성이 2,142명, 남성이 2,585명으로 총 4,727명이다.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IV-1>과 같다. 미혼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성별로 비교함으로써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각각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짐작해 보고자 한다. <표 IV-1>을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 본 미혼남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미혼 집단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에선 미혼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고 영남 지역에선 미혼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며, 그밖의 지역에선 미혼남녀의 비율이 고른 편이다.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부모 집에서 분가하여 단독 가구 형태로 지내는 경향이 조금 높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주 형태의 차이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혼 남녀의 삶의 양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미혼 남성이 단독 주택에 사는 비율이 더 높으며 자가 소유의 집에 거하는 비율은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여성이 더 높았다. 반면 자동차 보유 상태는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조금 높았다. 20대와 30대 청년층을 5세 간격으로 나눠서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 미혼 여성의 연령이 현저히 낮았으며 이들의 학력 수준은 대체로 미혼 남성보다 높았다.

자료에 포함된 미혼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본 분석에서 분석대상을 20세 이상 성인 및 재학이나 휴학 상태에서의 취업까지를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미혼 남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뚜렷이 발견되는데 미혼 취업 여성의 84%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혼 남성은 상대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기능원,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들의 임금노동자 비율이 미혼 남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고령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청년층에서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혼 여성에 비해 미혼 남성의 농림업 종사 비율이 높은 사실과 연관된다. 미혼 취업집단 가운데 고용된 직장과 다른 곳에서 일하는 비율은 남성이 조금 높다. 고용된 직장과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 미혼 남성은 파견근무의 비율이 높고 미혼 여성은 재택근무의 비율이 높았다.

시간 인식과 관련하여 미혼자 집단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시간 부족을 인식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조금 높지만,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은 미혼 남성집단으로 나타났다. 시간 부족의 이유 가운데 성별로 차이가 나는 응답은 미혼 여성의 경우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라는 이유인 반면 미혼 남성의 경우 ‘이동 시간이 길어서’였다.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성별 차이가 있는 응답은 미혼 남성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인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 ‘피곤하거나 아파서’로 나타났다. 한편 근무 후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는 미혼남녀가 비슷했으며, 다만 그 이유는 성별로 약간 차이를 보였다. 미혼 남성들이 피곤을 느끼는 이유로 미혼 여성보다 많이 응답한 것은 ‘일 자체가 힘들어서’인 반면, 미혼 여성들이 미혼 남성보다 많이 응답한 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직장내 인간관계 때문에’였다.

<표 IV-1>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남자	여자
총합		2,585(54.69)	2,142(45.31)
지역	서울	376(14.55)	386(18.02)
	경기/인천	416(16.09)	358(16.71)
	영남	886(34.27)	646(30.16)
	충청/강원	447(17.29)	364(16.99)
	호남/제주	460(17.79)	388(18.11)
총합		2,585(54.69)	2,142(45.31)
입주 형태	자기집	1,581(61.16)	1,338(62.46)
	전세	551(21.32)	521(24.32)
	월세/사글세	353(13.66)	231(10.78)
	무상 및 사택	100(3.87)	52(2.43)
총합		2,585(54.69)	2,142(45.31)

(계속)

		남자	여자
자가용 보유	있음	1,286(49.75)	906(42.30)
	없음	1,299(50.25)	1,236(57.70)
총합		2,585(54.69)	2,142(45.31)
연령(5세 간격)	20~25세	976(37.76)	1,433(66.90)
	26~30세	1,114(43.09)	551(25.72)
	31~35세	358(13.85)	130(6.07)
	36~40세	137(5.30)	28(1.31)
총합		2,585(54.69)	2,142(45.31)
교육수준	중졸이하	187(7.24)	45(2.10)
	고졸이하	1,228(47.50)	883(41.22)
	대졸이하	1,170(45.26)	1,214(56.68)
총합		2,585(54.69)	2,142(45.31)
수입활동 여부	했음	2,030(78.53)	1,726(80.58)
	하지 않았음	555(21.47)	416(19.42)
총합		2,585(54.69)	2,142(45.31)
직종	고위임직원/ 관리자	19(0.94)	0(0.00)
	전문가	7(0.34)	2(0.12)
	기술공/준전문가	119(5.86)	122(7.07)
	사무종사자	258(12.71)	361(20.92)
	서비스종사자	221(10.89)	698(40.44)
	판매종사자	339(16.70)	391(22.65)
	농업/임업/어업 및 숙련종사자	143(7.04)	22(1.27)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336(16.55)	38(2.2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54(17.44)	53(3.07)
	단순노무종사자	234(11.53)	39(2.26)
총합		2,030(54.05)	1,726(45.95)

(계속)

		남자	여자
산업	농업	152(7.49)	24(1.39)
	임업	6(0.30)	1(0.06)
	광업	3(0.15)	0(0.00)
	제조업	522(25.71)	229(13.27)
	전기/가스/수도사업	5(0.25)	5(0.29)
	건설업	210(10.34)	61(3.53)
	도소매업	407(20.05)	372(21.55)
	숙박/음식점업	103(5.07)	117(6.78)
	운수업	104(5.12)	34(1.97)
	통신업	21(1.03)	24(1.39)
	금융/보험업	49(2.41)	116(6.72)
	부동산/임대업	22(1.08)	22(1.27)
	사업서비스업	216(10.64)	181(10.49)
	교육서비스업	91(4.48)	308(17.84)
	보건/사회복지사업	26(1.28)	133(7.71)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4.43)	96(5.56)
	가사서비스업	2(0.10)	3(0.17)
	국제 및 외국기관	1(0.05)	0(0.00)
총합		2,030(54.05)	1,726(45.9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645(81.03)	1,582(91.66)
	고용주	26(1.28)	13(0.75)
	자영업자	172(8.47)	59(3.42)
	무급가족종사자	187(9.21)	72(4.17)
총합		2,030(54.05)	1,726(45.95)
근무지	고용된 직장에서	1,502(91.31)	1,497(94.63)
	고용된 직장과 다른곳에서	139(8.45)	76(4.80)
	가내하청 일	1(0.06)	6(0.38)
	기타	3(0.18)	3(0.19)
총합		1,645(50.98)	1,582(49.02)
파견, 재택 여부	파견근무	131(94.24)	68(89.47)
	재택근무	8(5.76)	8(10.53)
	총합	139(64.65)	76(35.35)

(계속)

		남자	여자
시간부족 인식	항상 느낀다	618(23.91)	492(22.97)
	거의 느낀다	1,287(49.79)	1,156(53.97)
	거의 느끼지 않는다	512(19.81)	384(17.93)
	전혀 느끼지 않는다	168(6.50)	110(5.14)
총합		2,585(54.69)	2,142(45.31)
시간부족 이유	일(학습) 때문에	1,194(62.68)	1,035(62.80)
	자녀양육/집안일 때문에	12(0.63)	9(0.55)
	시간관리를 잘 못해서	261(13.70)	244(14.81)
	교제/사회활동 때문에	293(15.38)	261(15.84)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127(6.67)	77(4.67)
	기타	18(0.94)	22(1.33)
총합		1,905(53.62)	1,648(46.38)
여유시간 활용	항상 활용한다	169(6.54)	109(5.09)
	가끔 활용한다	1,078(41.70)	903(42.16)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	969(37.49)	821(38.33)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	369(14.27)	309(14.43)
총합		2,585(54.69)	2,142(45.31)
여유시간 미활용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506(40.58)	363(35.87)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	143(11.47)	124(12.25)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38(19.09)	194(19.17)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205(16.44)	106(10.47)
	피곤하거나 아파서	137(10.99)	203(20.06)
	기타	18(1.44)	22(2.17)
총합		1,247(55.20)	1,012(44.80)
피곤함 인식	항상 느낀다	602(29.66)	519(30.07)
	가끔 느낀다	1,076(53.00)	934(54.11)
	거의 느끼지 않는다	302(14.88)	233(13.50)
	전혀 느끼지 않는다	50(2.46)	40(2.32)
총합		2,030(54.05)	1,726(45.95)
피곤한 이유	업무량 많아서	620(36.95)	598(41.16)
	일자체가 힘들어서	722(43.03)	485(33.38)
	근무여건이 나빠서	186(11.08)	152(10.46)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48(2.86)	88(6.06)
	기타	102(6.08)	130(8.95)
총합		1,678(53.59)	1,453(46.41)

나.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생활세계: 일, 가족, 여가

1)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생활시간 분포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남성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다를까, 아니면 얼마나 같을까?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이미지는 사뭇 다르다. 특히 결혼을 하면서 여성과 남성에게 부가되는 역할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생애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상의 영역이 언제쯤, 어떻게 젠더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절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¹⁰⁾ 남녀가 하루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2>는 행동 대분류별로 미혼남녀의 하루 시간 사용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혼 남성은 미혼여성보다 유급노동 시간이 26분 길고 무급노동 시간은 38분 짧다. 미혼 여성의 개인유지 시간은 미혼남성보다 31분 길며, 자유 시간은 41분 짧다. 대체로 기혼 집단에서 보이는 패턴, 즉 남성보다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길고 남성은 여성보다 유급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이 긴 패턴이 동일하게 미혼 집단에서도 확인된다.

<표 IV-2>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생활시간

(단위: 시간:분)

성별	관측지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	2585	개인유지	2585	10:11	1:44	2:10	23:20
		유급노동	2585	5:27	4:20	0:00	16:50
		무급노동	2585	0:21	0:46	0:00	9:40
		자유시간	2585	5:46	3:49	0:00	18:10
		이동	2585	1:52	1:25	0:00	11:40
여	2142	개인유지	2142	10:42	1:57	3:50	23:50
		유급노동	2142	5:01	4:01	0:00	19:20
		무급노동	2142	0:59	0:82	0:00	8:30
		자유시간	2142	5:05	3:11	0:00	16:20
		이동	2142	1:50	1:17	0:00	11:10

10) 이 표현이 자칫 '결혼'을 생애과정의 의례적인 단계로 틀지우는 것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각 행동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IV-3>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유급노동 시간은 상기한 대로 미혼 남성이 26분 더 길다. 그러나 정규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을 유급노동으로 분류할 때¹¹⁾, 두 집단의 학습 시간은 18분으로 동일하다. 미혼 여성의 수입활동 비율이 미혼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들의 근무 형태가 매우 유연함을, 다시 말해서 여성노동의 높은 비정규직화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3>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일

(단위: 시간:분)

성별	관측지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	2585	유급노동	2585	5:27	4:20	0:00	16:50
		학습	2585	0:18	1:28	0:00	13:50
여	2142	유급노동	2142	5:01	4:01	0:00	19:20
		학습	2142	0:18	1:24	0:00	15:00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가족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표 IV-4>와 같다. 미혼 남성 역시 기혼 남성과 마찬가지로 무급노동 시간이 미혼 여성보다 적다. 그 차이는 주로 가정관리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가사노동에서의 차이 때문이다.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이나 가족 보살피기 활동은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대체로 미혼 여성도 하루 무급노동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그다지 길지 않은 편이다.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자유 시간 활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표 IV-5> 참조) 대부분의 활동에서 미혼 남성의 자유 시간이 조금씩 더 길다. 미혼 여성의 경우 미혼 남성에 비해 교제활동과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다.

11) 생활시간조사에서 학생의 학습은 유급노동으로, 성인의 정규교육 이외의 학습은 자유시간으로 분류하였다. 이 절의 분석대상인 미혼집단에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제외되었지만, 학교교육과 취업을 겸한 사람들은 포함시킨다는 원칙 때문에 학습 시간량이 나타난 것이다.

<표 IV-4>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가정 생활

(단위: 시간:분)

성별	관측지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	2585	무급노동	2585	0:21	0:46	0:00	9:40
		가정관리	2585	0:15	0:30	0:00	4:30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2585	0:04	0:22	0:00	8:00
		가족보살피기	2585	0:03	0:21	0:00	7:00
여	2142	무급노동	2,142	0:59	0:82	0:00	8:30
		가정관리	2142	0:46	1:09	0:00	7:50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2142	0:08	0:25	0:00	4:30
		가족보살피기	2142	0:04	0:25	0:00	6:00

<표 IV-5>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자유 시간

(단위: 시간:분)

성별	관측지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	2985	자유시간	2585	5:46	3:49	0:00	18:10
		참여 및 봉사 종교 활동	2585	0:14	1:11	0:00	12:20
		교제활동	2585	0:50	1:15	0:00	13:10
		관람 및 문화 행사참여	2585	0:03	0:20	0:00	2:50
		취미활동	2585	1:34	1:48	0:00	16:10
		일반인학습	2585	0:36	1:54	0:00	15:40
		대중매체이용	2585	2:28	2:18	0:00	13:20
		레저활동	2585	2:13	2:37	0:00	16:30
여	2142	자유시간	2142	5:05	3:11	0:00	16:20
		참여 및 봉사 종교 활동	2142	0:10	0:50	0:00	10:10
		교제활동	2142	0:56	1:05	0:00	8:10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2142	0:05	0:25	0:00	4:20
		취미활동	2142	1:10	1:26	0:00	9:40
		일반인학습	2142	0:28	0:27	0:00	11:50
		대중매체이용	2142	2:16	2:04	0:00	13:20
		레저활동	2142	1:42	2:05	0:00	13:00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전체 미혼남녀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것이고 <표 IV-6>은 행위자별 생활시간 사용량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행동대분류 시간사용의 성별 패턴은 전체 시간 유형과 행위자의 시간 유형이 유사하다. 다만 미혼남성 가운데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41.8%인 데 비해, 미혼 여성 가운데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66.3%로서 미혼자 집단에서도 여성의 무급노동 참여율이 훨씬 더 높았다.

<표 IV-6>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행위자별 생활시간

(단위: 시간:분)

성별	관측지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	2585	개인유지	2585	10:11	1:54	2:10	23:20
		유급노동	1807	7:47	2:55	0:10	16:50
		무급노동	1081	0:50	0:59	0:10	9:40
		자유시간	2562	5:49	3:47	0:10	18:10
		이동	2457	1:57	1:22	0:10	11:40
여	2142	개인유지	2142	10:42	1:57	3:50	23:50
		유급노동	1478	7:15	2:38	0:10	19:20
		무급노동	1420	1:28	1:26	0:10	8:30
		자유시간	2128	5:06	3:09	0:10	16:20
		이동	2010	1:57	1:13	0:10	11:1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상생활의 큰 틀에서 볼 때, 미혼 집단의 성별 생활세계도 기존의 성별분업 유형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미혼 집단의 하루하루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성’이라는 변수이기보다는 주거 형태이다. 즉 혼자 사는 미혼자이나, 부모나 그밖에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자이나에 따라서 일상생활은 매우 달라진다. <표 IV-7>은 미혼남녀의 독신/동거 여부에 따른 시간사용 비교표이다. 미혼 남녀를 불문하고 혼자 살 경우 개인 유지 시간은 감소하고 유급노동 시간과 무급노동 시간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특히 미혼 남성의 경우 독신이나 동거냐에 따라서 유급노동 시간 증가량이 미혼 여성보다 크다.

또한 혼자 사는 미혼 남성은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남성에 비해서 무급노동량이

대폭 증가한다. 무급노동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여성의 시간량이 58분인 데 비해, 혼자 사는 미혼 남성은 40분,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남성은 18분에 불과하다. 물론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무려 1시간 20분이나 되지만, 단독 가구 여부에 따라 남성들의 가사노동 시간도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인다.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성별분업 패턴을 고려할 때, 혼자 사는 미혼 남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하던 가사노동 등 무급노동이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혼자 사는 미혼자의 유급노동 및 무급노동 시간의 증가는 그대로 자유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혼자 사는 미혼 남성의 자유시간 감소량이 가장 크다. 자유시간 중에서도 취미활동, 레저활동, 대중매체 이용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즉 혼자 사는 미혼 남성은 수입 노동 시간이 길고 가정관리 등 가사노동 시간도 늘어남으로써 총노동시간이 네 집단 가운데 가장 길다. 이동시간은 공히 독거 미혼남녀가 동거 미혼남녀보다 짧아서 이들이 직장 근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적인 일상생활 구조에 의하면, 혼자 사는 미혼 남성의 일상생활은 무척 고단하다. 마치 기혼 취업여성의 이중부담과 유사한 이중 부담, 장시간 노동이 혼자 사는 미혼남성에게서 발견된다. 어쩌면 이들은 결혼을 통하여 이중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장기화된 청년 실업은 이들의 결혼 이행 및 가족 구성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IV-7> 단독가구 여부별 시간 사용

(단위: 시간:분)

성별	변 수	독 신		동 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	개인유지	9:49	1:50	10:14	1:54
	유급노동	6:31	4:13	5:16	4:20
	학습	0:16	1:29	0:18	1:28
	무급노동	0:40	0:53	0:18	0:44
	가정관리	0:33	0:40	0:12	0:27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5	0:17	0:04	0:23
	가족보살피기	0:03	0:20	0:03	0:21
	자유시간	4:49	3:16	5:55	3:53
	참여 및 봉사 종교 활동	0:06	0:36	0:15	0:15
	교제활동	0:46	1:05	0:51	0:16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02	0:15	0:03	0:20
	취미활동	1:20	1:28	1:36	1:50
	일반인학습	0:26	1:35	0:38	1:57
	대중매체이용	2:09	2:06	2:31	2:20
	레저활동	1:48	2:12	2:17	2:40
이동	1:47	1:21	1:53	1:25	
여	개인유지	10:32	1:56	10:43	1:57
	유급노동	5:36	4:00	4:56	4:00
	학습	0:15	1:14	0:19	1:25
	무급노동	1:20	1:11	0:58	1:23
	가정관리	0:58	1:02	0:45	1:20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10	0:22	0:08	0:25
	가족보살피기	0:02	0:11	0:05	0:26
	자유시간	4:32	2:47	5:09	3:13
	참여 및 봉사 종교 활동	0:06	0:35	0:11	0:52
	교제활동	1:04	1:15	0:55	1:04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05	0:25	0:05	0:26
	취미활동	1:00	1:18	1:11	1:27
	일반인학습	0:20	1:11	0:28	1:29
	대중매체이용	1:57	1:50	2:18	2:05
	레저활동	1:25	1:50	1:44	2:06
이동	1:48	1:10	1:51	1:18	

미혼여성의 동거 여부별 행위자 생활시간 구성은 <표 IV-8>과 같다. 전체 미혼 여성의 생활시간 구성과 행위자 미혼여성의 생활시간 구성도 패턴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다만 혼자 사는 미혼 여성 가운데 유급노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74.1%인 데 비해,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여성 가운데 유급노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은 68.4%이다. 그리고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무급노동 참여율(84.4%)이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여성의 무급노동 참여율(62.1%)보다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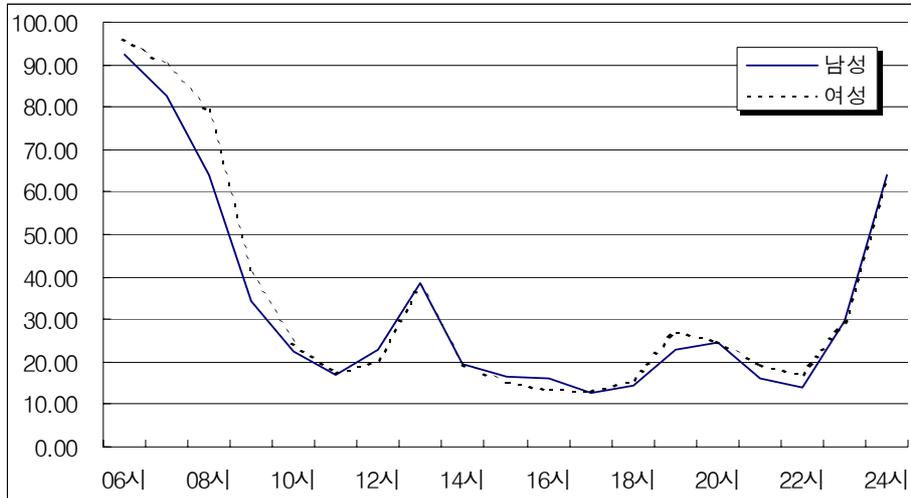
<표 IV-8> 미혼 여성의 단독가구 여부별·행위자별 생활시간

(단위: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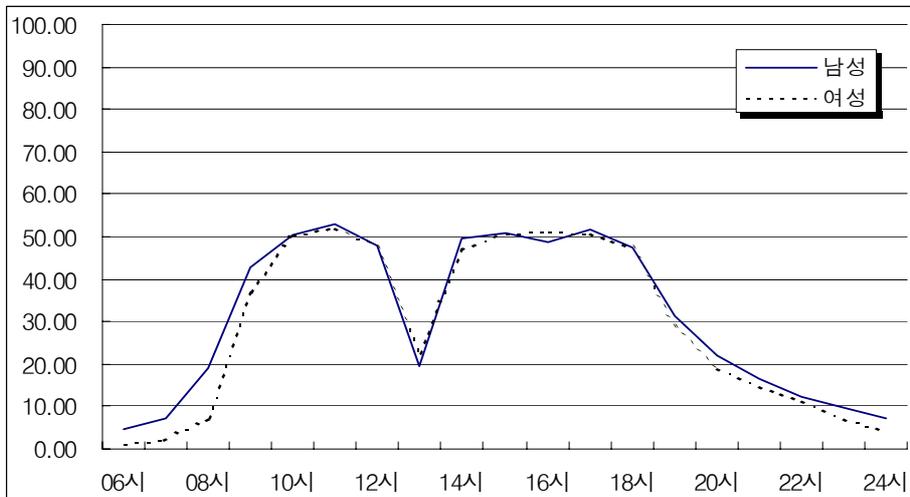
성별	관측지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신 미혼 여성	224	개인유지	224	10:31	1:56	4:00	23:20
		유급노동	166	7:53	2:35	0:20	16:50
		무급노동	189	1:22	1:09	0:10	9:40
		자유시간	222	4:34	2:45	0:30	18:10
		이동	217	1:51	1:08	0:20	11:40
동거 미혼 여성	1918	개인유지	1918	10:42	1:57	3:50	23:50
		유급노동	1312	7:13	2:38	0:10	19:20
		무급노동	1231	1:29	1:28	0:10	8:30
		자유시간	1906	5:10	3:12	0:10	16:20
		이동	1793	1:58	1:14	0:10	11:10

2)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생활시간대 분포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생활시간대 분포는 매우 유사하다(<그림 IV-1>, <그림 IV-2>, <그림 IV-3>, <그림 IV-4> 참조). 특히 개인유지와 유급노동을 하는 시점과 행위자 비율이 거의 같다. 미혼 집단의 경우 구체적인 하루의 일정 구성이 거의 동질적이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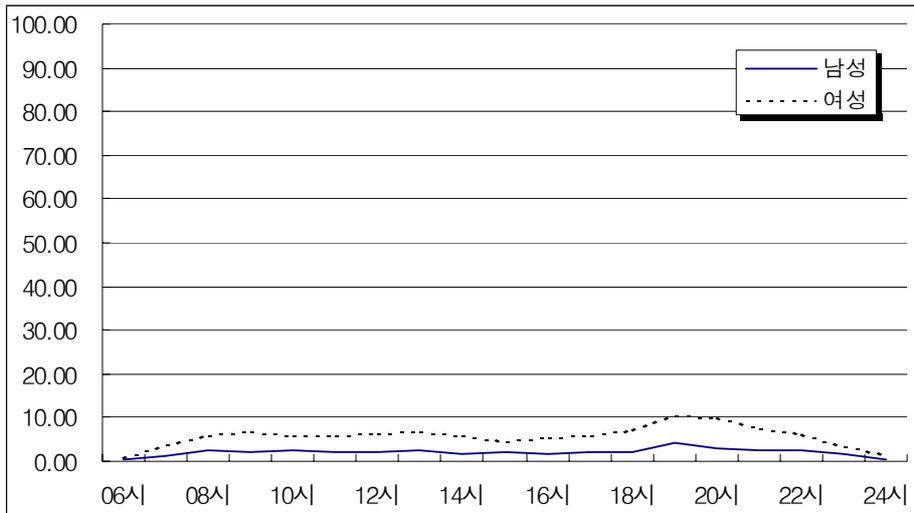
<그림 IV-1>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개인유지 시간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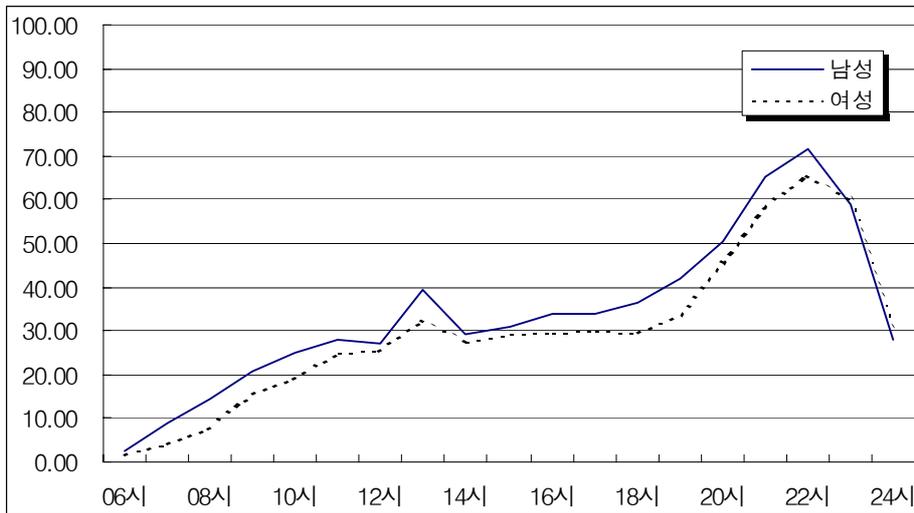
<그림 IV-2>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유급노동 시간대 분포

이에 비해, 무급노동 시간대와 자유시간 활용 시간대는 성별 차이가 별로 없지만 동일한 시간대의 행위자 비율은 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무급노동의 경우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고 자유시간의 경우 남성의 참여 비율이 조금 높다. 미약

하나마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분업 관행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미혼여성이나 미혼남성이나 무급노동과 자유시간에 할애하는 시간 자체가 적어서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고 하겠다.



<그림 IV-3>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대 분포



<그림 IV-4>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자유시간 시간대 분포

다. 미혼 여성 집단 내부의 생활세계: 일, 가족, 여가

1) 미혼 여성의 주거 형태별 특성

미혼자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가족과의 동거 여부였다.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입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에게 의지하며 여가 시간을 즐겼다. 그에 비해서 혼자 사는 미혼자들은 여성은 물론이러니와 남성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 시간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절에서는 미혼 여성 내부의 차이를 살펴볼 텐데, 미혼 여성 역시 혼자 사느냐, 가족과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 세계가 구별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주거 형태별로 미혼 여성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표 IV-9> 참조).

독거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대도시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이었다. 이에 비해 동거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영남 지역이 단연 우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호남/제주 지역이었다.

미혼 여성의 주거 형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단독 가구를 형성한 비율이 높았다.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여성 가운데 69%가 20대 초반이며, 독거 미혼 여성 가운데 20대 초반 연령대는 49%였다.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여성 가운데 30대 초반 연령대가 4.7%인 데 비해 같은 연령대가 독거 미혼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나 된다.

이와 같은 연령 구성은 교육수준 항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연령이 낮은 편인 동거 미혼 여성의 교육수준이 독거 미혼 여성의 교육수준보다 조금 높다. 동거 미혼 여성의 대졸 여성 비율이 58%인 데 비해, 독거 미혼 여성의 대졸 여성 비율은 44.6%이다.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취업률이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여성보다 5.2% 높다. 이들이 주로 취업을 위해서 독거하거나 혹은 취업을 했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들의 직종 분포는 뚜렷한 특징이 있기 보다는 직종마다 다양한 분포를 보인

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독거 미혼 여성의 경우 전문가나 기술공/준전문가 집단의 비중이 동거 미혼 여성보다 높다. 이에 비해서 동거 미혼 여성은 사무직과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면, 미혼 집단답게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무려 90%가 넘는다.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특히 경력 단절을 겪고 재취업할 때부터 비중이 높아지는 고용주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이들 미혼 집단에선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은 독거 미혼 여성에서 좀 더 컸고, 농림업 종사 비율이 높은 동거 미혼 여성에게선 무급가족종사 비율이 조금 높았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된 직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동거 미혼 여성이 조금 더 높다. 고용된 직장보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 파견 근무 비율은 독거 미혼 여성이 조금 높고 재택 근무 비율은 동거 미혼 여성이 조금 높았다.

혼자 사는 미혼 여성과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 사이에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직종, 고용 형태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시간 압박, 여유, 피곤감 또한 다를 것이다. 먼저, 이들이 시간 압박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살펴본 결과,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이나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 부족을 항상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은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경우 좀 더 컸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일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독거 미혼 여성의 경우 '교제 등 사회활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집안일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서 동거 미혼 여성이 더 높은 항목은 '이동 시간이 길어서'였다. 즉 혼자 사는 미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 및 교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혼자서 삶을 꾸려 가는 만큼 가사노동을 혼자 담당해야 하고 조금은 불규칙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주거지 이동성이 떨어지는 동거 미혼 여성의 경우 이동으로 소비되는 시간량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두 미혼 여성 집단의 시간 압박감은 여유 시간의 활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 압박감을 많이 받았던 독거 미혼 여성의 경우 18.8%의 여성들이 여유 시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서 동거 미혼 여성들 가운데 여유 시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9%였다. 이와 같이 여유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여성들의 생활세계를 잘 드러내 준다.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경우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피곤하거나 아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동거 미혼 여성에 비해 높다.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 등의 비율이 혼자 사는 미혼 여성에 비해 높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흥미, 취미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편이지만,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은 까닭에 늘 시간에 쫓기고 여유 시간이 부족한 형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들은 취업률이 조금 낮은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두 미혼 여성 집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집단 모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느끼는 피곤감은 약간의 차이이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이 좀더 높게 인식하였다. 미혼 여성들이 피곤감을 느끼는 이유는 업무량이 많아서이지만, 이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동거 미혼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데 비해서 독거 미혼 여성의 경우는 일 자체가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좀더 높았다. 또한 독거 미혼 여성의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았다.

〈표 IV-9〉 미혼여성 주거형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독신	동거
지역	서울	54 (24.11)	332 (17.31)
	경기/인천	52 (23.21)	306 (15.95)
	영남	53 (23.66)	593 (30.92)
	충청/강원	37 (16.52)	327 (17.05)
	호남/제주	28 (12.50)	360 (18.77)
총합		224 (10.46)	1,918 (89.54)
연령	20~25세	110 (49.11)	1,323 (68.98)
	26~30세	66 (29.46)	485 (25.29)
	31~35세	40 (17.86)	90 (4.69)
	36~40세	8 (3.57)	20 (1.04)
총합		224 (10.46)	1,918 (89.54)
교육수준	중졸이하	8 (3.57)	37 (1.93)
	고졸이하	116 (51.79)	767 (39.99)
	대졸이하	100 (44.64)	1,114 (58.08)
총합		224 (10.46)	1,918 (89.54)
시간부족 인식	항상 느낀다	62 (27.68)	430 (22.42)
	거의 느낀다	110 (49.11)	1,046 (54.54)
	거의 느끼지 않는다	39 (17.41)	345 (17.99)
	전혀 느끼지 않는다	13 (5.80)	97 (5.06)
총합		224 (10.46)	1,918 (89.54)
시간부족 이유	일(학습) 때문에	102 (59.30)	933 (63.21)
	집안일 때문에	2 (1.16)	7 (0.47)
	시간관리를 잘 못해서	27 (15.70)	217 (14.70)
	교제/사회활동 때문에	31 (18.02)	230 (15.58)
	이동시간이 길어서	6 (3.49)	71 (4.81)
	기타	4 (2.33)	18 (1.22)
총합		172 (10.44)	1,476 (89.56)
여유시간 활용	항상 활용한다	11 (4.91)	98 (5.11)
	가끔 활용한다	95 (42.41)	808 (42.13)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	76 (33.93)	745 (38.84)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	42 (18.75)	267 (13.92)
총합		224 (10.46)	1918 (89.54)

(계속)

		독신	동거
여유시간 미활용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3 (31.13)	330 (36.42)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	7 (6.60)	117 (12.91)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1 (19.81)	173 (19.09)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17 (16.04)	89 (9.82)
	피곤하거나 아파서	26 (24.53)	177 (19.54)
	기타	2 (1.89)	20 (2.21)
총합		106 (10.47)	906 (89.53)
수입활동 여부	했음	191 (85.27)	1,535 (80.03)
	하지 않았음	33 (14.73)	383 (19.97)
총합		224 (10.46)	1,918 (89.54)
직종	전문가	1 (0.52)	1 (0.07)
	기술공/준전문가	19 (9.95)	103 (6.71)
	사무종사자	38 (19.90)	323 (21.04)
	서비스종사자	67 (35.08)	631 (41.11)
	판매종사자	53 (27.75)	338 (22.02)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5 (2.62)	33 (2.1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 (2.62)	48 (3.13)
	단순노무종사자	2 (1.05)	37 (2.41)
총합		191 (11.07)	1,535 (88.9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75 (91.62)	1,407 (91.66)
	고용주	6 (3.14)	7 (0.46)
	자영업자	9 (4.71)	50 (3.26)
	무급가족종사자	1 (0.52)	71 (4.62)
총합		191 (11.07)	1,535 (88.93)
근무지	고용된 직장에서	163 (93.14)	1,334 (94.81)
	고용된 직장과 다른곳에서	12 (6.86)	64 (4.55)
	가내하청 일	0 (0.00)	6 (0.43)
	기타	0 (0.00)	3 (0.21)
총합		175 (11.06)	1,407 (88.94)
파견·재 택 여부	파견근무	11 (91.67)	57 (89.06)
	재택근무	1 (8.33)	7 (10.94)
총합		12 (15.79)	64 (84.21)

(계속)

		독신	동거
피곤함 인식	항상 느낀다	63 (32.98)	456 (29.71)
	가끔 느낀다	96 (50.26)	838 (54.59)
	거의 느끼지 않는다	25 (13.09)	208 (13.55)
	전혀 느끼지 않는다	7 (3.66)	33 (2.15)
총합		191 (11.07)	1,535 (88.93)
피곤한 이유	업무량 많아서	59 (37.11)	539 (41.65)
	일자체가 힘들어서	54 (33.96)	431 (33.31)
	근무여건이 나빠서	16 (10.06)	136 (10.51)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12 (7.55)	76 (5.87)
	기타	18 (11.32)	112 (8.66)
총합		159 (10.94)	1,294 (89.06)

2) 미혼 여성의 특성별 일, 가족, 여가

미혼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여가 활동은 그들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표 IV-10>는 미혼 여성들이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가사노동이나 가족보살피기와 같은 무급노동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는지, 자유 시간은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전체적인 비교표이다. 당연히 유급노동 시간과 무급노동 시간 및 자유 시간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급노동 시간의 증가는 다른 두 영역의 활동량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미혼 여성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유급노동 시간이 줄고 무급노동 시간과 자유 시간이 증대하였다. 학력에 따른 일상생활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학력자들의 유급 노동 시간이 대졸이상 학력자의 유급노동 시간보다 커서 이 집단의 직종 특성이 매우 장시간 노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유급노동시간이 없는 대신 무급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유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고용형태에 따른 일상생활의 차이도 눈에 띈다. 임금근로자의 유급노동 시간이 가장 길며 무급가족종사자의 유급노동 시간이 가장 짧다. 고용주는 유급노동 시간과 무급노동 시간이 모두 길어서 총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으로서 자유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영남지역과 충청/강원 지역 미혼 여

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매우 길었다. 직종에 따른 일상생활 구조의 차이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어진다. 관리/전문/기술/사무직의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짧고 기능/생산/노무직의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미혼 여성의 일상생활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분 기준은 단독 가구 여부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혼자 사는 미혼 여성들은 장시간의 수입 노동과 무급노동을 함으로써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여성보다 총노동시간량이 한 시간 이상 길었다. 혼자 사는 미혼여성의 노동시간의 증대는 여가 시간의 감소와 수면시간, 식사시간과 같은 개인유지 시간의 감소로 이어졌다.

미혼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여가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V-10> 미혼여성의 생활시간

(단위: 시간:분)

구 분		개인유지	유급노동	무급노동	자유시간	이동
연령	20~25세	10:40	5:05	0:50	5:03	1:55
	26~30세	10:44	4:57	1:12	5:04	1:44
	31~35세	10:47	4:40	1:33	5:10	1:39
	36~40세	10:37	4:20	1:51	5:57	1:06
교육 수준	고졸이하	10:46	5:18	1:10	4:56	1:41
	대졸이하	10:37	4:50	0:49	5:09	2:00
수입활동 여부	했음	10:33	6:10	0:44	4:14	1:55
	하지 않았음	11:18	0:13	1:58	8:35	1:3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0:33	6:19	0:41	4:10	1:57
	고용주	10:42	5:58	1:27	3:30	1:11
	자영업자	10:16	4:29	0:41	4:46	2:15
	무급가족종사자	10:36	4:06	1:45	5:20	1:10
지역	서울	10:44	4:35	0:51	5:10	2:04
	경기/인천	10:50	4:54	1:06	4:52	2:03
	영남	10:47	5:04	0:55	5:08	1:46
	충청/강원	10:33	5:32	1:02	4:53	1:35
	호남/제주	10:30	4:56	1:02	5:17	1:48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10:30	5:32	0:44	4:37	2:09
	서비스/판매	10:35	6:24	0:40	4:06	1:53
	기능/생산/노무/기타	10:31	7:00	1:00	3:33	1:38
주거 형태	독신	10:32	5:36	1:20	4:32	1:48
	동거	10:43	4:56	0:58	5:09	1:51

가) 미혼 여성의 일

<표 IV-11>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 여성의 수입 관련 활동은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많아진다. 그러나 연령별 수입 노동의 차이는 대부분 '학습' 시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젊은 미혼 여성일수록 학습 시간이 길어서 전체 유급노동 시간이 길어진다. 대졸학력 여성보다 고졸학력 여성의 수입 노동시간이 더 길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유급노동 시간은 고졸 학력자의 유급노동 시간보다 짧을 뿐만 아니라 학습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입 활동 시간은 좀 더 짧다. 각 행동시간은 행위자의 시간 평균이 아니라 전체 대상자의 시간 평균이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량을 투여해도 행위자 비율이 높으면 평균 시간량이 높아진다.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미혼 여성의 취업률이 고졸 학력 미혼 여성의 취업률보다 8.7%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급노동 시간은 더 짧다는 사실에서 고졸 학력 여성이 매우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유급노동 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가장 길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가 가장 짧다.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들은 학습 시간이 다른 고용 형태 여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길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 여건과 관련하여 정규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충청/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 미혼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이 가장 길며 서울 지역 미혼 여성의 학습 시간이 가장 길다.

직종별 유급노동 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생산/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유급노동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며 관리/전문/기술/사무직 종사자의 유급노동 시간이 가장 짧았다.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이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보다 수입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것은 계속 강조된 바이다.

<표 IV-11> 미혼여성의 생활시간: 유급노동

(단위: 시간:분)

구 분		유급노동	학습
연령	20~25세	5:05	0:22
	26~30세	4:57	0:13
	31~35세	4:40	0:05
	36~40세	4:20	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5:18	0:03
	대졸이상	4:50	0:30
수입활동 여부	했음	6:10	0:18
	하지 않았음	0:13	0:1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6:19	0:14
	고용주	5:58	1:03
	자영업자	4:29	1:24
	무급가족종사자	4:06	0:52
지역	서울	4:35	0:33
	경기/인천	4:54	0:10
	영남	5:04	0:14
	충청/강원	5:32	0:17
	호남/제주	4:56	0:19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5:32	0:23
	서비스/판매	6:24	0:17
	기능/생산/노무/기타	7:00	0:12
주거형태	독신	5:36	0:15
	동거	4:56	0:19

나) 미혼 여성의 가족생활

<표 IV-12>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 여성의 가족생활 관련 활동은 전통적 가사 노동을 일컫는 ‘가정 관리’ 활동과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활동, 그리고 ‘가족 보살피기’ 활동으로 구분된다.

연령에 따른 미혼 여성의 무급노동 실태를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률적으로

가정관리 관련 가사노동 및 쇼핑 시간이 길어진다. 미혼 여성의 특성답게 가족 보살피기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졸 학력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대졸 학력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보다 길어서 전체적으로 고졸 학력 여성의 장시간 노동이 눈에 띈다. 수입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며, 임금근로자의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짧고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다. 직종별로는 기능/생산/노무직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길며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짧다.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 여성보다 길다.

<표 IV-12> 미혼여성의 생활시간: 무급노동

(단위: 시간:분)

구 분		무급노동	가정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족 보살피기
연령	20~25세	0:50	0:38	0:08	0:04
	26~30세	1:12	0:58	0:09	0:05
	31~35세	1:33	1:18	0:09	0:08
	36~40세	1:51	1:24	0:19	0:09
교육수준	고졸이하	1:10	0:55	0:09	0:06
	대졸이상	0:49	0:38	0:08	0:03
수입활동 여부	했음	0:44	0:35	0:07	0:02
	하지 않았음	1:58	1:33	0:13	0:1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0:41	0:32	0:07	0:02
	고용주	1:27	1:02	0:25	0:00
	자영업자	0:41	0:32	0:08	0:02
	무급가족종사자	1:45	1:32	0:03	0:10
지역	서울	0:51	0:39	0:09	0:03
	경기/인천	1:06	0:49	0:10	0:07
	영남	0:55	0:43	0:07	0:04
	충청/강원	1:02	0:51	0:09	0:02
	호남/제주	1:02	0:50	0:07	0:05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0:44	0:34	0:08	0:02
	서비스/판매	0:40	0:31	0:07	0:02
	기능/생산/노무/기타	1:00	0:49	0:05	0:06
주거형태	독신	1:20	0:58	0:10	0:02
	동거	0:58	0:45	0:08	0:05

다) 미혼 여성의 여가

<표 IV-13>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 여성의 여가 활동은 7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 여성들일수록 교제 활동과 레저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참여 및 봉사 활동’과 ‘대중매체 이용’ 시간이 길어진다. 연령에 따라 자유 시간을 활용하는 데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 학력여성의 여가 시간이 대졸 학력여성보다 짧다. 이것은 그들의 노동시간이 더 긴 탓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대졸 학력여성의 경우 취미 활동과 레저 활동, 그리고 일반인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가 활동이 다양하다. 이에 비해 고졸 학력여성은 여가시간을 주로 대중매체 이용이나 교제활동에 할애하고 있는 등 미약하나마 학력별 여가활동의 계층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고용 형태별로 여가 시간의 활용을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여가 시간이 가장 길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 특성상 이들은 대중매체 활용으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경우 자유 시간 자체가 가장 짧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시간을 대중매체 활용으로 보내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여가의 질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 보면 관리/전문/기술/사무직 종사자의 자유 시간이 가장 길며 기능/생산/노무직 종사자의 자유 시간이 가장 짧다. 직업위세가 낮은 이 직종의 여가 시간 활용을 통해서, 이들은 장시간 수입 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면서 잠시 남는 시간에 친구를 만나거나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일상을 구성해 감을 알 수 있다. 미혼 여성의 여가 생활은 그 내용이나 시간에 있어서, 직종이나 고용 형태, 학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 형태별로 미혼 여성의 여가 활용을 볼 때, 당연히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이 둘 다 긴 독거 미혼 여성의 여가 시간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독거 미혼 여성의 여가 활용이 조금 더 다변화되어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의 경우 대중매체 이용 등 조금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표 IV-13> 미혼여성의 생활시간: 여가

(단위: 시간:분)

구 분		자유 시간	참여및 봉사 활동	교제 활동	관람및 문화행 사참여	취미 활동	일반인 학습	대중매 체이용	레저 활동
연령	20~25세	5:03	0:08	0:58	0:06	1:08	0:31	2:12	1:46
	26~30세	5:04	0:14	0:54	0:05	1:14	0:19	2:18	1:38
	31~35세	5:10	0:19	0:43	0:02	1:18	0:20	2:38	1:30
	36~40세	5:57	0:45	0:42	0:00	0:58	0:31	3:01	1:29
교육수준	고졸이하	4:56	0:06	1:00	0:05	1:08	0:13	2:23	1:26
	대졸이상	5:09	0:13	0:55	0:05	1:11	0:39	2:07	1:55
수입활동 여부	했음	4:14	0:09	0:53	0:05	0:59	0:15	1:54	1:19
	하지 않았음	8:35	0:18	1:10	0:08	1:54	0:19	3:46	3:2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4:10	0:08	0:53	0:05	0:58	0:15	1:51	1:18
	고용주	3:30	0:09	0:39	0:00	1:00	0:05	1:37	1:05
	자영업자	4:46	0:27	0:56	0:06	1:05	0:10	2:04	1:20
	무급가족종사자	5:20	0:11	0:50	0:01	1:04	0:17	2:56	1:23
지역	서울	5:10	0:14	1:07	0:06	1:01	0:28	2:14	1:35
	경기/인천	4:52	0:11	0:54	0:06	0:59	0:25	2:17	1:30
	영남	5:08	0:05	0:55	0:05	1:17	0:30	2:16	1:51
	충청/강원	4:53	0:12	0:48	0:03	1:09	0:23	2:18	1:35
	호남/제주	5:17	0:13	0:56	0:07	1:17	0:30	2:13	1:54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4:37	0:16	0:53	0:05	1:09	0:19	1:56	1:32
	서비스/판매	4:06	0:06	0:54	0:05	0:58	0:15	1:48	1:18
	기능/생산/노무/기타	3:33	0:02	0:48	0:03	0:29	0:04	2:07	0:36
주거형태	독신	4:32	0:06	1:04	0:05	1:00	0:20	1:57	1:25
	동거	5:09	0:11	0:55	0:05	1:11	0:28	2:18	1:44

라.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미혼 여성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25세의 비중이 크고, 고졸이상이 95%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의 소유자이다. 이들의 80%가량이 수입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금근로자이다. 미혼 남성보다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

미혼 여성의 높은 학력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에 비해 노동시장내 위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서비스직/판매직/사무직에 집중되는 등 성별직종분리 현상이 뚜렷하며 비정규직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남성에 비해 유급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은 짧고, 무급노동시간은 긴 편으로 미약하나마 성별분업현상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혼 여성은 내부적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존재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혼자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주요변수는 '가족과의 동거여부'였다. 동거 미혼자에 비해 독신 미혼자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둘 다 깊으로써 상대적으로 짧은 여가시간을 지니고 있었다. 미혼여성의 여가 내용 및 시간은 직종, 고용형태, 학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동거 미혼자에 비해 독신 미혼자의 여가시간이 짧으나 활동면에서는 보다 다변화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혼집단에서도 전통적인 성별분업유형은 발견되지만 성차보다는 "주거 형태"에 따른 차이가 더 컸다. 특히 독거 미혼남성의 경우 기혼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중부담이 큰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미혼 여성 집단 내 이질성을 살펴보면, 미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지만, 고졸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대졸여성에 비해 매우 길다. 대졸 여성의 취업률이 고졸여성의 취업률보다 높기 때문에 고졸 여성의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다.

남성보다 높은 수입노동 참여율과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남성에 비해 낮은 노동시장내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혼자 집단의 여가 활동 내용도 그다지 다변화되어 있지는 못한 편이다.

2. 기혼 여성: 전업주부와 기혼취업여성

선행된 시퀀스(sequence) 분석을 통하여, 한국 여성의 일상 생활세계를 유형화 하는 기준으로서 혼인상태, 연령, 취업여부가 핵심적인 변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애주기, 즉 연령의 증가에 따라 삶의 환경과 실제 생활세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남성도 동일하겠지만, 한국 여성은 이러한 연령 변수와 더불어 결혼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으로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맡고 있고, 아동양육과 가족에 대한 보살핌이 기혼여성에게 부과되는 일차적인 사회적 역할이기 때문에, 결혼 이후 여성의 삶은 주부로서의 역할로 주로 규정되게 된다. 나아가 기혼 여성 역시 취업여부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의 성별분업에 충실한 전업주부 집단과,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취업여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두 집단의 생활세계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분류된 5개의 하위 여성 집단 중 20~40대의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 집단의 생활시간 양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동질적인 유형으로 분류된 취업여성 및 전업주부집단 안에서도 다양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여성의 일상생활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과연 어떠한 변수에 의해 구체적인 생활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본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혼 취업여성의 일과 가사에 대한 이중노동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어떠한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지, 또 이것이 야기하는 기혼 취업여성의 일상생활의 양상이 다른 집단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본격적인 집단별 분석에 앞서 다음의 <표 IV-14>는 두 여성 집단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동일 연령대의 기혼남성 집단과 비교하여 제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본 장의 분석에서 사용된 20~40대 기혼여성의 표본은 취업 여성이 4,822명, 전업주부가 4,277명이었으며, 동일 연령대의 기혼 남성은 7,550명이었다. 세 집단 공히 평일에 조사된 사례가 약 60%를 조급

상회하였고, 토요일에 약 18.2%~19.6%, 일요일에 조사된 사례는 약 20% 정도였다¹²⁾.

먼저, 표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표본에 적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의 거주자는 인구비례에 비해 더 많은 수가 표본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본의 지역분포에 있어 취업주부, 전업주부, 기혼남성 집단간에 큰 편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취업주부의 경우 전체 표본의 12.1%인 583명이 서울에, 17.4%인 841명이 경인지역에, 31.2%인 1,504명이 영남지역에, 21.4%인 1,030명은 충청 및 강원지역에 분포하였고, 호남 및 제주 지역에는 17.9%인 86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업주부 집단 역시, 영남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32.0%), 경인(19.1%), 충청 및 강원(17.8%), 호남 및 제주 (17.2%), 서울(13.9%)의 순서였다. 기혼 남성 집단의 경우 역시 영남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32.1%), 충청 및 강원지역(20.2%)의 비중이 경인지역(18.4%)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 표본 간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 분포의 미세한 차이는 20세에서 49세까지의 기혼자에 여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기혼 남성의 연령이 그 배우자 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40대 중후반 기혼 여성의 배우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분석 표본에는 제외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본 장의 분석에서 사용될 20~49세 사이의 기혼남녀 표본이 정확히 같은 부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0대 기혼남성은 전체 20~49세 기혼남성 표본의 8.8%인 668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6,900명 정도가 30대와 40대에 대략 절반씩 분포하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 20대에 568명(11.8%), 30대는 2,160명(44.8%), 40대에 2,094명(43.4%)이 분포되어 있어, 30대와 40대 취업여성의 비중은 기혼 남성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 20대 비율이 24.7%인 1,058명에 달하는 반면, 40대의 비중은 전체의 29.2%(1,247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포를 세밀히 관찰해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12) 이러한 분포는 평일에 조사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사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시간량의 요일평균을 산출함에 있어 평일은 5/7, 토요일과 일요일은 1/7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여성들 사이에서 전업주부의 비중이 크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취업여성의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육아부담이 가장 큰 20대와 3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20~40대 전업주부 중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48.8%에 달하는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의 27.3%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 20~49세 기혼 남성 가운데 전 연령대에 고르게 미취학 아동이 있는 비율이 42.2%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초혼 연령과 첫 아이를 갖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의 분포에 있어서는 세 집단간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49세 기혼남성의 경우 중졸이하 학력자가 1,305명으로 전체의 17.3%에 불과한 반면, 고졸 학력자는 3,787명(50.2%)이었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는 전체의 32.6%에 달하는 2,458명이 분포해 있었다. 반대로, 취업주부 집단에서는 39.1%에 달하는 1,886명이 중졸이하의 저학력 집단에 속해 있었고, 고졸 학력자는 45.8%인 2,208명이었으며, 고학력자 비중은 15.1%인 728명에 불과하였다. 전업주부의 경우,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졸 학력자는 60.1%인 2,569명이었으며, 고학력자의 비율은 19.6%(840명)이었다. 이러한 학력 분포를 종합해보면, 기혼 남성의 고학력자 비율이 두 여성 집단 모두에 비해 높아 양성 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혼여성 내부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의 교육 수준 차이도 관찰되고 있는데, 고학력자의 비율이 전업주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저학력자가 취업여성 집단 안에 더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결국, 취업주부 집단에서 저학력자가 더 많이 관찰되고 있음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실은 취업 남성과의 직종별 분포를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20~40대 기혼 남성의 경우, 취업자 중 33.9%(2,392명)가 전문·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취업주부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19.3% (931명)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취업여성 중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비율이 38.1%에 달하고 있어, 저숙련 생산직을 포함할 때 취업 여성의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당 취업시간과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있어서도 남성 취업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 주 40시간미만의 파트타임 취업자의 비중이 26.6%(1,283명)에 달하고 있지만, 기혼 남성 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은 8.4% (590명)에 불과하였다. 또, 기혼 남성 취업자 집단에서는 60시간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45.6%에 달하고 있어, 한국 남성의 과도한 근로시간이 재확인 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 취업자 중에서도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주부의 비중이 전체 취업주부의 34.3% (1,655명)에 달하고 있어, 상당수의 취업주부가 과중한 근로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도 취업여성은 기혼남성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기혼남성의 59.9%는 임금근로자, 32.3%는 자영자/고용주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3%에 불과하였다. 반면, 취업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28.0%에 달하였다. 그밖에, 자가 거주 여부나 주거전용면적¹³⁾의 경우 분석대상 집단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13) 한편,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소득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형태가 포함되었다.

<표 IV-14>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기혼남성 (N=7,550)	취업주부 (N=4,822)	전업주부 (N=4,277)
지역	서울	914 (12.1)	583 (12.1)	593 (13.9)
	경기/인천	1,387 (18.4)	841 (17.4)	819 (19.1)
	영남	2,423 (32.1)	1,504 (31.2)	1,368 (32.0)
	충청/강원	1,523 (20.2)	1,030 (21.4)	762 (17.8)
	호남/제주	1,303 (17.3)	864 (17.9)	735 (17.2)
연령	20~29세	668 (8.8)	568 (11.8)	1,058 (24.7)
	30~39세	3,543 (46.9)	2,160 (44.8)	1,972 (46.1)
	40~49세	3,339 (44.2)	2,094 (43.4)	1,247 (29.2)
조사요일	평일	4,619 (61.2)	2,963 (61.4)	2,582 (60.4)
	토요일	1,420 (18.8)	878 (18.2)	837 (19.6)
	일요일	1,511 (20.0)	981 (20.3)	858 (20.1)
교육	중졸이하	1,305 (17.3)	1,886 (39.1)	868 (20.3)
	고졸	3,787 (50.2)	2,208 (45.8)	2,569 (60.1)
	초대졸이상	2,458 (32.6)	728 (15.1)	840 (19.6)
미취학아동	있음	3,183 (42.2)	1,317 (27.3)	2,086 (48.8)
	없음	4,367 (57.8)	3,505 (72.7)	2,191 (51.2)
주거형태	자가	4,167 (55.2)	2,933 (60.8)	2,381 (55.7)
	전월세 및 기타	3,383 (44.8)	1,899 (39.2)	1,896 (44.3)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2,360 (31.3)	1,426 (29.6)	1,284 (30.0)
	16~25평	3,599 (47.7)	2,315 (48.0)	2,061 (48.2)
	26평 이상	1,591 (21.1)	1,081 (22.4)	932 (21.8)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590 (8.4)	1,283 (26.6)	- -
	40~59시간	3,251 (46.1)	1,884 (39.1)	- -
	60시간 이상	3,215 (45.6)	1,655 (34.3)	- -
	(없음)	494 -	- -	4,277 -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2,392 (33.9)	931 (19.3)	- -
	서비스/판매	1,112 (15.8)	1,837 (38.1)	- -
	농림어업	427 (6.1)	527 (10.9)	- -
	기능/생산/노무/기타	3,125 (44.3)	1,527 (31.7)	- -
	(없음)	494 -	- -	4,277 -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4,523 (59.9)	2,529 (52.4)	
	고용주/자영자	2,437 (32.3)	945 (19.6)	
	무급가족종사	96 (1.3)	1,348 (28.0)	
	무직	494 (6.5)	- -	4,277

이제, 기혼남성,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의 양상을 이 세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먼저, 생활시간조사에서 상세히 분류하고 있는 행동분류표를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생활세계를 일, 가족, 여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표 IV-15>는 구체적으로 생활시간조사의 어떠한 행동분류들이 각각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개인유지 항목은 수면, 식사, 개인관리(개인위생, 이미용), 건강관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중 대분류 항목 '1. 개인유지'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주요 생활세계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일'은 원칙적으로 유급노동을 의미하지만, 무급가족종사나 구직활동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취업관련활동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대분류 '2. 일(유급노동)' 항목과 같다. 한편, 한국 여성의 '가족'과 관련된 생활시간은 '무급노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관련 무급노동은 다시 의식주 및 가정관리와 관련된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보살핌노동으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생활시간조사 행동대분류 '4. 가정관리' 및 '5. 가족보살피기'에 해당된다.

개인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유급노동 및 무급노동시간이 필수적인 비자유시간이라면, 이러한 시간과 이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잔여범주에 속하는 자유시간 또는 여가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장에서 '여가'의 범주는 조직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 (성인)학습, 기타 문화 및 레저 등 다섯 가지의 하위 범주로 재구성된다. 첫째, 조직활동은 사회참여, 봉사, 종교활동을 포괄하며, 생활시간조사 상의 대분류 '6. 참여 및 봉사활동'과 중분류 '74. 종교활동'을 합친 시간으로 정의된다. 둘째, 교제활동은 중분류 '71. 교제활동'과 함께 소분류 '755. 유흥(술, 춤, 노래방 등)'이 포함되었다. 친구, 친지, 동료들과의 유흥 역시 문화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의 확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대중매체의 이용은 중분류 '72. 대중매체이용'을, 넷째, 학습은 중분류 '73. 일반인의 학습'이 원용된다. 마지막으로 레저활동은 유흥을 제외한 중분류 '75.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7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및 '780. 교제 및 여가활동관련 물품구입(아이쇼핑 포함)' 등의 항목을 합친 것

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IV-15> 생활시간의 분류

행동분류		주요 행동내용 (중분류 및 소분류항목)
개인유지		11. 수면 12. 식사 및 간식 13. 개인관리 14. 건강관리(의료적) 199. 기타 개인유지
일(유급노동)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2. 무급가족종사일 2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4.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25. 구직활동 26. 일관련물품구입 27. 기타일관련행동
가족 (무급노동)	가사노동	41. 음식준비 및 정리 42. 의류관리 43. 청소 및 정리 44. 집관리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6. 가정경영 499. 기타 가사일
	가족보살피기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생 보살피기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외 가족보살피기
여가	조직활동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62. 지역공동체활동 63. 사회참여활동 64. 자원봉사 74. 종교활동
	교제활동	71. 교제활동 755. 유흥(술, 춤, 노래방)
	대중매체	72. 대중매체이용
	학습	73. 일반인의 학습
	레저	75.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755. 유흥제외) 7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77.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780. 교제 및 여가 활동관련물품구입

이러한 본 연구의 생활시간 분류를 기준으로 20~49세 취업주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의 개관을 기혼남성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 IV-16>과 <그림 IV-5~8>이다. <표 IV-16>은 기혼남성, 취업주부, 전업주부 및 전체집단 평균의 개인유지, 일, 가족, 여가, 이동 등 생활시간 대분류별 시간사용량을, <그림 IV-5~8>은 요일 및 생활대분류별로 각 시간대의 행위자 빈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개인의 시간사용 패턴은 요일(평일, 토요일, 일요일)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요일별 가중치를 적용한 요일전체 평균과 함께 각 요일별 패턴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생활시간량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자(<표 IV-16> 참조). 한국의 20~49세 기혼 성인은 개인유지에 9시간 57분, 유급노동에 5시간 10분,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에 3시간 3분, 여가에 4시간 7분, 이동에 1시간 31분을 하루 평균 소비하고 있었다. 기혼남성의 경우 개인유지에 10시간 4분을, 유급노동에 7시간 22분을, 여가에 4시간 8분을 사용하였지만,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에는 하루 평균 28분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전업주부의 경우 개인유지에 기혼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는 10시간 5분을 사용하였고, 유급노동에는 8분을 쓴 반면,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에 7시간 57분을, 여가에 5시간 29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여성의 경우 개인유지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 9시간 40분으로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평균 24~25분 적었으며, 유급노동에 하루 평균 6시간 9분을,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에는 평균 3시간 41분을 소비하였다.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총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50분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기혼남성(7시간 50분)보다는 2시간이 많고, 전업주부(7시간 5분)보다는 2시간 25분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노동부담은 여가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 취업주부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시간 54분에 불과한데, 이것은 기혼남성에 비해서는 1시간 14분, 전업주부에 비해서는 2시간 35분이 적다.

이러한 기본적 패턴은 요일별 분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평일의 경우 기혼남성은 하루 7시간 39분을 일하고, 무급노동에는 26분을 소비하며, 3시간 58분의 여가시간을 갖는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에 7시간 2분을,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28분이다. 하지만, 취업주부는 6시간 21분의 유급노동과 3시

간 39분의 무급노동을 합쳐, 평일에는 하루 평균 10시간의 노동을 수행한다. 전업주부보다는 2시간 50분을, 기혼 남성에 비해서는 1시간 55분 더 일하는 셈이다.

<표 IV-16> 집단별 생활시간사용의 개관: 시간량

(시간: 분)

요일전체 ¹⁾				
	기혼남성	취업주부	전업주부	전체평균
개인유지	10:04	9:40	10:05	9:57
일(유급노동)	7:22	6:09	0:08	5:10
가족(무급노동)	0:28	3:41	6:57	3:03
여가	4:08	2:54	5:29	4:07
이동	1:51	1:21	1:09	1:31
평일				
	기혼남성	취업주부	전업주부	전체평균
개인유지	10:00	9:36	10:02	9:53
일(유급노동)	7:39	6:21	0:08	5:22
가족(무급노동)	0:26	3:39	7:02	2:11
여가	3:58	2:50	5:28	4:01
이동	1:50	1:20	1:09	1:31
토요일				
	기혼남성	취업주부	전업주부	전체평균
개인유지	10:01	9:44	10:13	10:00
일(유급노동)	6:41	6:02	0:07	4:45
가족(무급노동)	0:34	3:43	6:46	3:06
여가	4:37	2:58	5:32	4:24
이동	2:01	1:23	1:13	1:38
일요일				
	기혼남성	취업주부	전업주부	전체평균
개인유지	11:03	10:38	10:44	10:51
일(유급노동)	3:42	3:27	0:08	2:43
가족(무급노동)	0:52	4:16	6:05	3:12
여가	6:20	4:04	5:34	5:28
이동	1:57	1:22	1:19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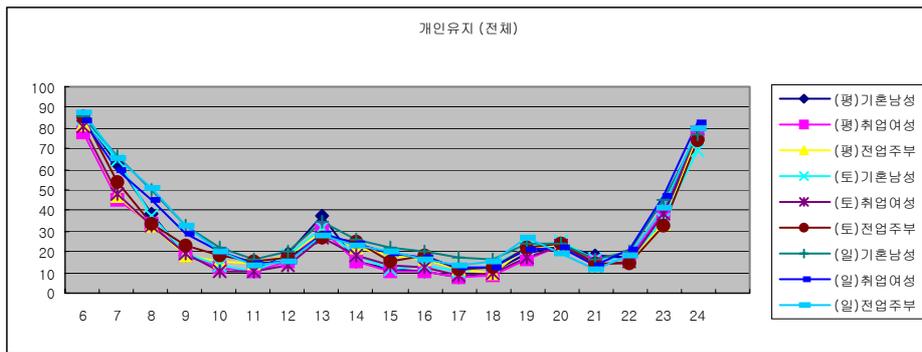
1. 요일가중치 적용 (평일 5/7,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7)

토요일에는 기혼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평일에 비해 1시간가량 줄어들고 있지만,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시간에는 불과 5분을 더 소비하고 있으며, 평일에 비해 40분가량의 여가시간을 더 갖고 있다. 하지만,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의 시간소비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취업주부의 경우 토요일에 6시간 2분의 유급노동과 3시간 43분의 무급노동을 합하여 9시간 45분을 일하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평일에 비해 16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시간조사가 주5일제가 시행되기 전인 1999년 9월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주부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의 유급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기혼남성의 경우 토요일에는 평일보다 1시간 정도 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주부는 불과 19분 정도만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 IV-14>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여성의 경우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서비스·판매와 같은 주말 근로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취업여성의 경우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고용형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박수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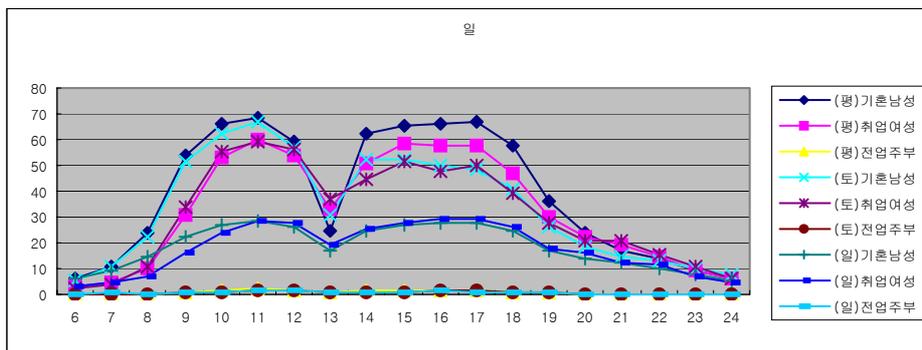
일요일의 경우, 평일 및 토요일의 시간사용 패턴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개인유지 시간이 세 집단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혼남성과 취업여성은 평일에 비해 1시간 이상 개인유지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밀린 잠을 보충하거나 개인위생(목욕 등)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날이 휴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개인유지 시간의 증가분은 다른 두 집단보다 20분 이상 적은, 약 40분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 무엇보다, 일, 가족, 여가와 관련된 세 집단간의 생활시간량의 차이가 눈길을 끈다. 기혼남성은 일요일 3시간 42분을 일하여 평일보다 유급노동 부담이 4시간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은 평일보다 26분 더 소비할 뿐이며, 대신 여가 시간을 평일보다 2시간 이상 더 소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경우 일요일에 3시간 27분을 일할 뿐 아니라, 무급노동시간은 평일이나 토요일보다 훨씬 더 증가한 4시간 16분을 쓰고 있다. 유급노동부담이 덜한 일요일에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더 투입하는 반면, 여가시간의 증가는 평균 1시간 10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유급노동

과 무급노동을 합한 총 노동시간은 7시간 43분으로서 평일이나 토요일보다 2시간 이상 감소하고 있지만, 기혼남성이나 전업주부 집단과 비교할 때 이중노동부담은 일요일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족과 여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시간사용 패턴의 골격 - 무급노동시간이 다소 줄었으나 - 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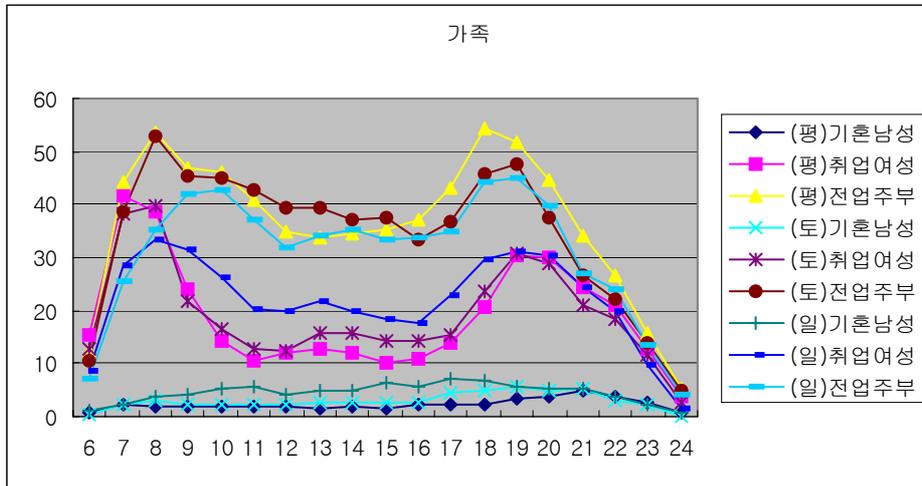
한편, 개인유지·일·가족·여가 등에 대한 행위의 빈도가 어느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지, 행위자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의 <그림 IV-5~8>는 각 요일 및 시간대별로 행위자 빈도비율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요약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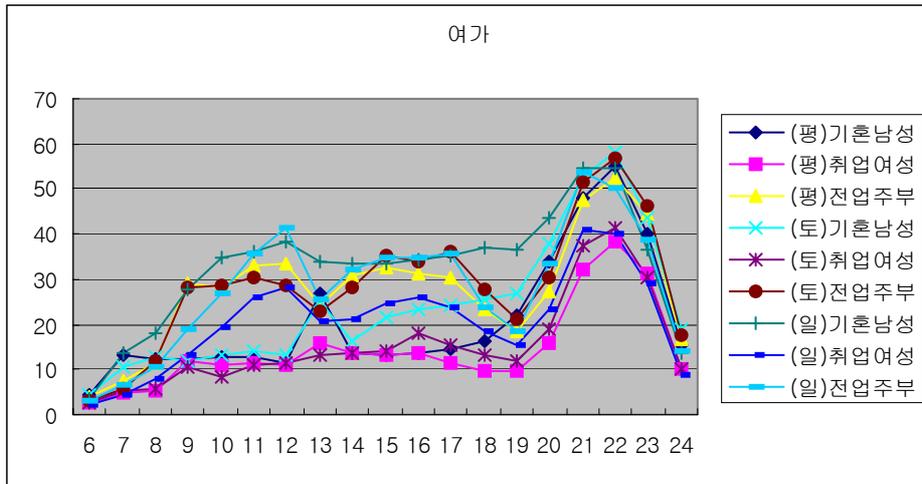
<그림 IV-5> 각 요일 및 시간대별 행위자 빈도: 개인유지



<그림 IV-6> 각 요일 및 시간대별 행위자 빈도: 일



<그림 IV-7> 각 요일 및 시간대별 행위자 빈도: 가족



<그림 IV-8> 각 요일 및 시간대별 행위자 빈도: 여가

첫째, <그림 IV-5>에서 볼 수 있듯이, 수면·식사·개인위생 등 개인유지에 대한 시간대별 행위자 빈도분포는 전업주부·취업주부·기혼남성 등의 집단 간 차이와 평일·토요일·일요일간의 요일별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면시간·아침 및 식사시간대에 개인유지 행위자의 빈도가 높아지는 W자 형의 곡선이 그려지는데, 이러한 양상은 모든 집단·요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둘째, 유급노동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간의 성별 격차 보다는 취업활동 유무에 의해 행위자 빈도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고, 부가적으로 평일·토요일 및 일요일간의 차이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그림 IV-6> 참조). 즉,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유급노동시간 빈도는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기혼남성 및 취업주부의 유급노동 행위자 빈도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혼남성과 취업주부 공히, 모든 요일에 걸쳐 M자형의 빈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오전과 오후의 유급노동 행위자 비율이 높고, 점심시간(13시 전후)에는 그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러한 M자형 패턴은 평일과 토요일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토요일의 경우 평일에 비하여 오후시간대의 행위자 비율이 더 낮았다.

셋째, 가족관련 행위빈도는 요일별 차이보다는 집단간의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그림 IV-7> 참조). 대체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아침(7~9시)과 저녁시간(18~21시)에 가족관련 행위자 비율이 높았다. 식사 및 자녀의 등교준비 등으로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저녁때에 식사준비를 비롯한 가사 및 양육활동이 집중되는 양상은 취업유무와는 별개로 한국의 기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생활세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가족관련 행위자 비율이 취업주부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반면 기혼남성들의 행위자 비율은 매우 낮다. 한편 이러한 각 집단간의 차이가 근본적이라면, 각 집단 내의 요일별 차이도 부수적이지만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전업주부의 경우 평일·토요일의 가족관련 행위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지만, 취업주부는 일요일의 행위자 비율이 더 높아, 취업주부들이 일요일에 가사노동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전반적으로, 생활시간량에서 나타나는 취업주부의 이중노동부담이 시간

대별 행위자빈도 분포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넷째, 여가시간에 있어서는, 대체로 저녁식사 후의 밤 시간대(21~22시)에 여가 시간을 보낸 행위자 비율이 높았지만, 전반적인 행위자 빈도의 양상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와 요일별 차이가 모두 잘 드러나고 있다(<그림 IV-8> 참조).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전업주부의 여가시간 빈도가 취업주부 및 기혼남성 집단보다 크게 높았지만, 일요일에는 기혼남성의 여가시간 행위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모든 요일에 걸쳐 취업주부 집단의 여가행위 빈도는 세 집단 중 가장 낮아서, 취업주부의 이중노동부담이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일, 가족, 여가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20~40대 취업주부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고 생활 시간량과 시간대별 행위자비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혼 취업여성의 시간사용 패턴은 다양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지역,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아동 유무, 주거형태, 주거전용면적, 주당근무시간, 직종 등을 기준으로 20~49세 취업주부를 세부집단으로 재구성하여 일, 가족, 여가와 관련된 생활시간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1) 20~40대 기혼 취업여성과 일

<표 IV-17>은 취업주부의 하위 집단별 유급노동시간을 요일별로 요약해주고 있다. 먼저 지역별로는, 평일 서울거주자가 7시간 7분, 경인지역 6시간 38분, 영남지역 6시간 16분, 충청·강원지역이 6시간 15분을 일하였고, 호남·제주지역 거주자의 유급노동시간은 5시간 46분으로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과 호남·제주지역 취업여성의 유급노동시간 차이는 평일을 기준으로 무려 1시간 11분이나 차이가 났다. 이러한 호남·제주 지역의 양상은 이 지역 산업의 상대적 낙후성이나 열악한 노동시장여건을 반영하는 듯하다. 토요일에는 이러한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만, 기본적인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경인지역 거주자의

유급노동시간이 5시간 42분으로 가장 적었고, 호남·제주 지역의 경우 평일보다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요일의 경우, 충청·강원지역 취업주부의 유급노동시간이 3시간 53분으로 가장 길었고, 영남지역은 3시간 13분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의 경우, 평일 20대는 6시간 10분을, 30대는 5시간 58분을, 40대는 6시간 46분을 일하여, 'V'자 형을 그리고 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고연령 집단일수록 유급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특이한 점은 연령 하위집단별 유급노동시간의 요일별 양상이 교육수준 집단별 그것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중졸이하 저학력자는 평일 6시간 53분을 일하고, 고졸자는 5시간 58분을, 고학력자는 평균 6시간 14분을 일하여, 연령과 마찬가지로 'V'자 형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의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과는 반대방향임을 알 수 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학력 집단일수록 더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교육수준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해준다.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변수는 미취학 아동 유무이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취업 여성은 평일에 5시간 40분을, 토요일에 5시간 9분을, 그리고 일요일에는 2시간 38분을 일하는 반면, 미취학 아동이 없는 경우 평일에는 6시간 36분, 토요일에는 6시간 24분, 일요일에는 3시간 43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1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IV-9 참조>).

주거형태의 경우 평일과 일요일의 유급노동시간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의미 있는 해석으로 진행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15평 이하 집단과 26~24평 집단간에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전용면적 26평 이상 거주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유급노동시간이 다소나마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주당근무시간과 직종, 종사상지위의 각 하위 집단별로 상당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관찰된다. 주당근무시간은 그 자체가 유급노동을 의미하므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직종의 경우 관리·사무직 종사자는 평일 6시간 8분을, 농림어업 종사자는 5시간 14분을 일하는 반면, 대다수의 취업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

스·판매직과 생산·노무직 종사자의 유급노동시간은 각각 6시간 43분, 6시간 24분으로서 평균보다 높았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경우 토요일의 유급노동시간(7시간 3분)이 평일보다 20분 정도 길었고, 일요일에도 5시간 이상 일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말과 휴일의 비중이 큰 서비스 및 도소매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종사상지위의 경우에도 평일에는 임금근로자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이 역시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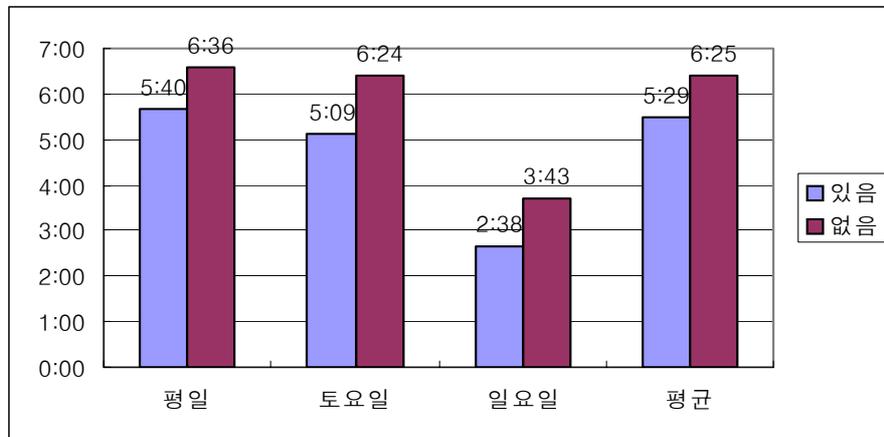
<표 IV-17>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일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6:21	6:02	3:27	6:09
지역	서울	7:07	6:18	3:17	6:51
	경기/인천	6:38	5:42	3:28	6:23
	영남	6:16	6:13	3:13	6:05
	충청/강원	6:15	6:03	3:53	6:06
	호남/제주	5:46	5:55	3:25	5:39
연령	20~29세	6:10	4:54	2:04	5:53
	30~39세	5:58	5:50	3:22	5:48
	40~49세	6:46	6:34	3:52	6:35
교육	중졸이하	6:53	6:50	4:17	6:43
	고졸	5:56	5:40	3:16	5:46
	초대졸이상	6:14	4:56	1:42	5:55
미취학아동	있음	5:40	5:09	2:38	5:29
	없음	6:36	6:24	3:43	6:25
주거형태	자가	6:16	6:04	3:32	6:06
	전월세 및 기타	6:27	6:00	3:18	6:15

(계속)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6:28	6:07	3:32	6:16
	16~25평	6:22	6:08	3:27	6:11
	26평 이상	6:07	5:43	3:18	5:56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3:45	3:48	1:38	3:38
	40~59시간	6:37	5:41	2:46	6:20
	60시간 이상	8:02	8:03	5:45	7:55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6:08	4:21	1:19	5:47
	서비스/판매	6:43	7:03	5:08	6:39
	농림어업	5:14	5:26	3:51	5:10
	기능/생산/노무/기타	6:24	5:58	2:34	6:08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6:45	5:45	2:51	6:28
	고용주/자영자	6:35	6:47	4:19	6:27
	무급가족종사	5:26	6:03	3:55	5:23



<그림 IV-9> 미취학 아동 유무별 취업주부의 유급노동시간(요일별)

2) 20~40대 기혼 취업여성과 가족

<표 IV-18>에 의하면, 20~40대 취업주부는 평일 3시간 39분, 토요일 3시간 43분, 일요일 4시간 16분의 무급노동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즉, 평일보다는 토요일,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의 무급노동시간이 더 많다. 지역별로는 평일을 기준으로 서울지역 거주자가 3시간 4분으로 가장 적었고, 호남·제주 거주자가 3시간 55분으로 가장 길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역시 이러한 지역별 양상은 유사했으며, 다만 지역간의 차이는 다소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경우 가장 적은 서울지역 취업주부가 3시간 59분의 무급노동시간을, 가장 많은 영남지역 취업주부가 4시간 31분을 무급노동에 투입하였다.

연령과 교육의 경우, 앞의 유급노동시간의 양상과는 반대로 평일을 기준으로 '역 V'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30대의 무급노동시간이 3시간 58분으로 가장 길었고, 고졸자의 그것 역시 3시간 56분으로 가장 길었다. 다만, 연령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0대와 30대의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이 두 집단과 40대 취업여성의 차이가 다소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경우 일요일에 고학력 집단일수록 무급노동시간이 더 크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취업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미취학 아동이 없는 여성에 비해 더 길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평일 4시간 33분, 토요일 4시간 44분, 일요일에는 5시간 20분을 무급노동으로 투입한 반면, 미취학 아동이 없는 취업여성은 모든 요일에 걸쳐 무급노동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형태나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당근무시간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긴 집단일수록 무급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짧았다. 직종의 경우, 노동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무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주말 상대적으로 긴 유급노동시간을 가진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토요일과 일요일 무급노동시간이 가장 짧았다.

끝으로 종사상지위 중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무급노동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평일 4시간 18분, 토요일 4시간 10분, 일요일 4시간 26분의 무급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임금근로자나 자영자 계층에 비하여 평균 약 40~60분 정도 더 긴 수치이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많은 일관련

노동을 하는 집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생활세계가 주말에 더욱 상대적으로 열악해 짐을 짐작하게 해준다.

<표 IV-18>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가족 (무급노동전체)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3:39	3:43	4:16	3:41
지역	서울	3:04	3:25	3:59	3:08
	경기/인천	3:36	3:45	4:02	3:38
	영남	3:42	3:42	4:31	3:44
	충청/강원	3:44	3:46	4:15	3:46
	호남/제주	3:55	3:49	4:19	3:56
연령	20~29세	3:40	3:55	4:39	3:44
	30~39세	3:58	3:58	4:32	4:00
	40~49세	3:19	3:24	3:54	3:21
교육	중졸이하	3:24	3:22	3:55	3:26
	고졸	3:56	3:59	4:27	3:58
	초대졸이상	3:25	3:52	4:40	3:30
미취학아동	있음	4:33	4:44	5:20	4:36
	없음	3:18	3:18	3:55	3:20
주거형태	자가	3:41	3:43	4:14	3:43
	전월세 및 기타	3:35	3:42	4:19	3:38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3:38	3:30	4:10	3:39
	16~25평	3:39	3:44	4:16	3:41
	26평 이상	3:39	4:00	4:25	3:43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5:02	4:51	4:59	5:01
	40~59시간	3:23	3:46	4:35	3:28
	60시간 이상	2:52	2:50	3:18	2:53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3:22	4:05	4:52	3:29
	서비스/판매	3:31	3:21	3:39	3:31
	농림어업	4:35	4:30	4:29	4:35
	기능/생산/노무/기타	3:39	3:40	4:34	3:42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3:16	3:34	4:22	3:21
	고용주/자영자	3:42	3:30	3:48	3:42
	무급가족종사	4:18	4:10	4:26	4:18

<표 IV-19>는 무급노동시간 중 의식주 및 가정관리와 관련된 전통적 가사노동 시간량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주부의 일반적인 특성상,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이 2시간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토요일은 3시간 1분, 일요일은 가장 긴 3시간 35분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

<표 IV-19>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가족 (가사노동)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2:54	3:01	3:35	2:57
지역	서울	2:21	2:39	3:08	2:25
	경기/인천	2:52	3:06	3:20	2:54
	영남	2:59	3:03	3:48	3:02
	충청/강원	2:59	3:00	3:37	3:01
	호남/제주	3:07	3:06	3:43	3:09
연령	20~29세	2:22	2:40	2:59	2:25
	30~39세	2:56	3:01	3:38	2:59
	40~49세	3:02	3:07	3:41	3:04
교육	중졸이하	3:03	3:04	3:36	3:05
	고졸	2:57	3:03	3:37	3:00
	초대졸이상	2:24	2:45	3:26	2:28
미취학아동	있음	2:47	3:01	3:29	2:50
	없음	2:57	3:01	3:37	3:00
주거형태	자가	3:03	3:09	3:43	3:06
	전월세 및 기타	2:40	2:50	3:22	2:44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2:47	2:46	3:19	2:49
	16~25평	2:55	3:06	3:37	2:58
	26평 이상	3:02	3:11	3:52	3:05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3:49	3:49	4:01	3:50
	40~59시간	2:48	3:06	3:51	2:53
	60시간 이상	2:19	2:19	2:54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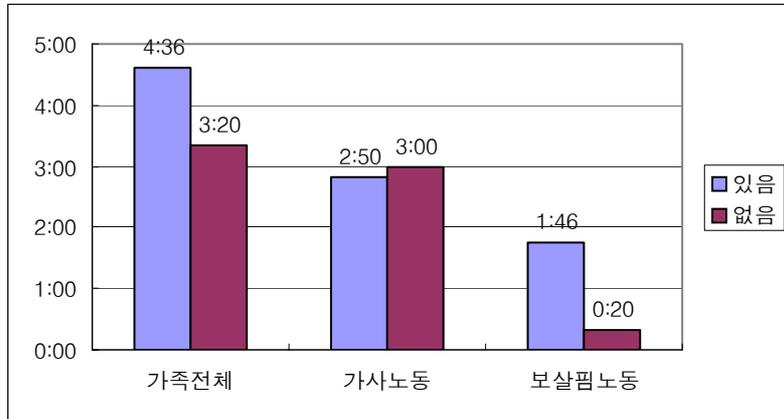
(계속)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2:27	3:03	3:48	2:33
	서비스/판매	2:48	2:39	3:07	2:49
	농림어업	4:00	4:03	4:04	4:00
	기능/생산/노무/기타	2:56	3:05	3:49	3:0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35	2:54	3:40	2:40
	고용주/자영자	2:57	2:51	3:11	2:57
	무급가족종사	3:29	3:23	3:42	3:29

지역별 분포는 앞의 무급노동시간 전체의 패턴과 상이하지 않다. 서울지역 취업 주부의 가사노동 투입시간이 가장 짧았고, 평일과 토요일은 호남·제주 지역이, 일요일은 영남지역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0대와 40대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20대 저연령 집단에서 가사노동시간이 짧았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미취학 아동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미취학 아동을 둔 기혼 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무급노동의 부담 중에서 전통적인 가사노동 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보살핌 노동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다. 교육의 경우, 고학력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짧았고 나머지 두 집단의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사노동의 경우 20대 연령층과 고학력 집단의 시간소비 양상이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미취학 아동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평일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47분으로 미취학 아동이 없는 여성보다 10분 정도만 짧았으며, 토요일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일요일의 경우 평일과 유사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것은 미취학 아동의 유무가 전통적 가사노동부담을 늘이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후술하겠지만, 미취학 아동의 유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가족관련 무급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보살핌 노동시간의 차이 때문이다(<그림 IV-10> 참조).



<그림 IV-10> 미취학 아동 유무별 취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요일평균)

전통적인 가사노동의 경우 주거형태나 전용면적에 따른 시간투입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가 거주자는 평일 3시간 3분, 토요일 3시간 9분, 일요일 3시간 19분을 가사노동에 투입한 반면, 전월세 거주자는 이들보다 평균 약 20분 정도 짧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안 청소나, 집의 유지 및 보수와 같은 행동에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주면적이 클수록 가사노동시간의 투입이 길었는데, 이것은 청소와 집의 유지 등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종과 종사상 지위의 경우, 전체적인 무급노동시간 사용의 패턴과 상이함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20>은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 중 보살핌 노동에 국한하여 하위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보살핌 노동시간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보살핌 노동시간의 요일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유급노동시간은 평일과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적고, 가사노동은 그 반대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보살핌 노동의 경우 평일 44분, 토요일 42분, 일요일 41분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지역의 경우에도 평일과 토요일에는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지역간의 편차도 크지 않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의 보살핌 노동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

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의 보살핌 노동시간이 40대에 비해 크게 길었는데, 이는 이 연령층에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등 돌봄이 요구되는 어린 자녀를 가진 계층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경우 중졸이하의 저학력 집단에서 보살핌 노동시간이 짧았는데, 이것이 순수한 교육수준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연령변수와의 상관성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지금까지의 분석 패턴 상 연령과 교육 변수 간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후자 쪽에 좀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여성의 보살핌 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취업주부는 평일 1시간 46분, 토요일 1시간 43분, 일요일 1시간 50분을 보살핌 노동에 투입하였고, 미취학 아동이 없는 경우는 각각 21분, 18분, 19분에 불과하였다.

주거형태의 경우 전월세 거주자의 보살핌 노동시간이 더 길었는데, 이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들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거주전용면적 역시 주거형태와 유사한 의미를 유추할 수는 있겠으나, 그 양상이 주거형태와 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다. 주당근무시간의 경우, 40시간미만 근무자의 보살핌 노동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길었는데, 이것은 미취학 아동을 가진 취업여성이 상대적으로 파트타임에 종사할 확률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직종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의 보살핌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고,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가장 짧았다. 이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과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층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평일을 기준으로 임금노동자보다는 자영자가, 또 자영자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보살핌 노동시간이 좀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표 IV-20>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가족(보살핌 노동)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0:44	0:42	0:41	0:44
지역	서울	0:43	0:47	0:52	0:43
	경기/인천	0:44	0:39	0:41	0:43
	영남	0:43	0:39	0:43	0:42
	충청/강원	0:45	0:46	0:38	0:45
	호남/제주	0:48	0:44	0:36	0:47
연령	20~29세	1:18	1:15	1:40	1:19
	30~39세	1:02	0:57	0:54	1:01
	40~49세	0:17	0:17	0:14	0:17
교육	중졸이하	0:21	0:18	0:19	0:21
	고졸	0:59	0:55	0:50	0:58
	초대졸이상	1:01	1:07	1:14	1:02
미취학아동	있음	1:46	1:43	1:50	1:46
	없음	0:21	0:18	0:19	0:20
주거형태	자가	0:38	0:35	0:32	0:37
	전월세 및 기타	0:55	0:52	0:57	0:55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0:50	0:44	0:51	0:50
	16~25평	0:44	0:37	0:40	0:43
	26평 이상	0:38	0:49	0:33	0:38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1:12	1:02	0:59	1:11
	40~59시간	0:35	0:39	0:44	0:36
	60시간 이상	0:33	0:31	0:24	0:32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0:55	1:01	1:04	0:56
	서비스/판매	0:43	0:42	0:32	0:42
	농림어업	0:35	0:28	0:25	0:34
	기능/생산/노무/기타	0:43	0:35	0:45	0:42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41	0:40	0:42	0:41
	고용주/자영자	0:45	0:40	0:37	0:44
	무급가족종사	0:49	0:47	0:44	0:49

3) 20~40대 기혼 취업여성과 여가

<표 IV-21>은 전체 여가에 대한 시간소비량을 각 변수의 하위 범주별로 구분하여 요약해주고 있다. 먼저, 취업주부의 전반적인 여가시간 사용 패턴을 살펴보면, 유급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평일과 토요일의 여가시간 역시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급노동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일요일에 여가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서울 지역 거주자의 여가시간 소비가 2시간 25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었고, 호남 및 제주 지역의 경우 3시간 6분으로 가장 길었다. 그런데, 토요일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취업여성들이 평균 3시간 11분의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긴 여가시간을 갖는 지역이었고, 일요일 역시 호남 및 제주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각 변수의 하위 집단별 여가시간 소비 양상이 요일별로 달라지는 현상은 비단 지역변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연령의 경우, 평일에는 20대 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이 가장 짧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역시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 취업주부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가진 집단이었으나, 평일에는 고졸자 집단이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취업주부의 경우 평일과 일요일에 미취학 아동이 없는 취업주부에 비해 평균 20분 정도 적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의 부담이 여가시간의 감소와 연관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주거 형태의 경우 자가 소유자가 전월세 세입자들에 비하여,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더 넓은 주택에 사는 집단일수록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단 이러한 경향은 평일과 일요일에만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다.

<표 IV-21>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전체 여가시간)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2:50	2:58	4:04	2:54
지역	서울	2:25	3:11	4:18	2:34
	경기/인천	2:45	3:02	3:57	2:50
	영남	2:52	2:57	4:02	2:56
	충청/강원	2:51	2:49	3:49	2:54
	호남/제주	3:06	3:01	4:26	3:10
연령	20~29세	2:41	3:15	4:24	2:48
	30~39세	2:50	3:01	3:53	2:54
	40~49세	2:52	2:51	4:12	2:56
교육	중졸이하	2:41	2:44	3:58	2:46
	고졸	2:57	3:04	3:50	3:01
	초대졸이상	2:47	3:23	5:09	2:57
미취학아동	있음	2:35	2:59	3:49	2:40
	없음	2:55	2:58	4:09	3:00
주거형태	자가	2:54	2:55	4:06	2:59
	전월세 및 기타	2:42	3:02	4:02	2:48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2:42	3:03	3:53	2:48
	16~25평	2:50	2:52	4:05	2:54
	26평 이상	2:58	3:04	4:18	3:03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3:49	3:53	4:56	3:54
	40~59시간	2:41	3:02	4:17	2:48
	60시간 이상	2:13	2:15	3:06	2:16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2:57	3:32	4:53	3:05
	서비스/판매	2:47	2:44	3:20	2:49
	농림어업	3:04	2:50	4:10	3:07
	기능/생산/노무/기타	2:43	2:59	4:26	2:5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39	3:05	4:14	2:46
	고용주/자영자	2:57	2:50	3:58	3:01
	무급가족종사	3:03	2:51	3:51	3:06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할 것은, 유급노동의 부담이 클수록 여가시간이 감소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40시간미만 근로하는 취업주부의 경우 평일 3시간 49분, 토요일 3시간 53분, 일요일 4시간 56분의 여가시간을 가진데 비하여, 60시간 이상의 유급노동 부담을 가진 집단의 경우 각각 2시간 13분, 2시간 15분, 3시간 6분의 여가시간만을 소비하여, 하루 평균 무려 1시간 30분 이상의 여가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직종의 경우 관리·사무직 취업여성들의 여가시간이 서비스·판매직 및 기능·생산직 종사 여성에 비하여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근무조건이 열악한 취업주부들이 여가시간마저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임금노동자의 여가시간이 평일 기준으로 2시간 39분에 불과하였으며,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각각 2시간 57분, 3시간 3분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약 20분 정도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취업주부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여가시간 소비 정도가 달라지는 양상은, 여가시간을 하위 항목별로 쪼개어 관찰할 경우, 더욱 의미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표 IV-22>~<표 IV-26>은 여가시간을 조직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학습, 레저활동 등 다섯 가지의 세부 행동으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시간소비량을 각 변수의 하위집단별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다. 각 집단별 시간소비 양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특성을 여가행동의 하위 범주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2〉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조직활동)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0:08	0:11	0:27	0:09
지역	서울	0:09	0:08	0:47	0:11
	경기/인천	0:10	0:24	0:23	0:12
	영남	0:05	0:06	0:17	0:06
	충청/강원	0:06	0:08	0:29	0:08
	호남/제주	0:11	0:14	0:31	0:12
연령	20~29세	0:04	0:04	0:25	0:05
	30~39세	0:08	0:09	0:21	0:09
	40~49세	0:09	0:16	0:33	0:11
교육	중졸이하	0:06	0:10	0:20	0:07
	고졸	0:09	0:10	0:26	0:10
	초대졸이상	0:08	0:18	0:49	0:11
미취학아동	있음	0:07	0:08	0:26	0:08
	없음	0:08	0:13	0:27	0:10
주거형태	자가	0:07	0:10	0:28	0:09
	전월세 및 기타	0:09	0:13	0:24	0:10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0:08	0:09	0:26	0:09
	16~25평	0:07	0:10	0:24	0:08
	26평 이상	0:08	0:19	0:33	0:10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0:12	0:26	0:44	0:15
	40~59시간	0:08	0:09	0:26	0:09
	60시간 이상	0:04	0:04	0:13	0:05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0:10	0:16	0:36	0:12
	서비스/판매	0:07	0:11	0:23	0:08
	농림어업	0:09	0:09	0:29	0:10
	기능/생산/노무/기타	0:08	0:10	0:25	0:09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07	0:12	0:25	0:08
	고용주/자영자	0:08	0:14	0:38	0:11
	무급가족종사	0:09	0:08	0:22	0:09

<표 IV-23>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교제활동)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0:42	0:45	0:57	0:43
지역	서울	0:33	0:48	0:55	0:35
	경기/인천	0:38	0:44	0:57	0:40
	영남	0:45	0:46	0:57	0:46
	충청/강원	0:42	0:44	0:48	0:42
	호남/제주	0:48	0:44	1:11	0:49
연령	20~29세	0:38	0:51	1:02	0:40
	30~39세	0:45	0:48	0:51	0:45
	40~49세	0:41	0:41	1:02	0:42
교육	중졸이하	0:38	0:41	1:01	0:40
	고졸	0:46	0:49	0:51	0:46
	초대졸이상	0:41	0:46	1:03	0:42
미취학아동	있음	0:39	0:49	0:50	0:40
	없음	0:43	0:43	1:00	0:44
주거형태	자가	0:44	0:42	0:58	0:45
	전월세 및 기타	0:39	0:49	0:56	0:41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0:40	0:50	0:54	0:41
	16~25평	0:43	0:45	0:58	0:44
	26평 이상	0:42	0:37	1:01	0:43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0:56	0:57	1:12	0:57
	40~59시간	0:41	0:47	0:55	0:42
	60시간 이상	0:33	0:35	0:48	0:34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0:43	0:51	0:59	0:44
	서비스/판매	0:45	0:43	0:51	0:46
	농림어업	0:34	0:39	0:58	0:35
	기능/생산/노무/기타	0:41	0:46	1:04	0:43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39	0:45	0:55	0:41
	고용주/자영자	0:52	0:50	0:61	0:52
	무급가족종사	0:41	0:41	0:59	0:42

<표 IV-24>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대중매체)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1:30	1:35	2:07	1:32
지역	서울	1:21	1:46	2:05	1:25
	경기/인천	1:26	1:31	2:09	1:29
	영남	1:31	1:36	2:13	1:33
	충청/강원	1:32	1:28	1:56	1:33
	호남/제주	1:36	1:40	2:09	1:38
연령	20~29세	1:34	1:47	2:24	1:38
	30~39세	1:28	1:38	2:08	1:31
	40~49세	1:31	1:29	2:01	1:32
교육	중졸이하	1:31	1:27	2:07	1:33
	고졸	1:32	1:40	2:03	1:35
	초대졸이상	1:20	1:44	2:21	1:24
미취학아동	있음	1:23	1:38	2:03	1:26
	없음	1:33	1:34	2:08	1:35
주거형태	자가	1:32	1:35	2:06	1:35
	전월세 및 기타	1:26	1:35	2:07	1:29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1:30	1:38	2:02	1:33
	16~25평	1:28	1:31	2:09	1:31
	26평 이상	1:33	1:41	2:09	1:36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1:58	1:57	2:23	2:00
	40~59시간	1:26	1:39	2:17	1:30
	60시간 이상	1:12	1:14	1:41	1:14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1:25	1:46	2:28	1:30
	서비스/판매	1:27	1:28	1:40	1:28
	농림어업	1:45	1:28	2:07	1:46
	기능/생산/노무/기타	1:31	1:40	2:25	1:35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1:25	1:42	2:16	1:29
	고용주/자영자	1:27	1:20	1:47	1:28
	무급가족종사	1:40	1:34	2:03	1:41

<표 IV-25>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학습)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0:03	0:01	0:02	0:03
지역	서울	0:01	0:01	0:05	0:01
	경기/인천	0:03	0:01	0:02	0:03
	영남	0:03	0:01	0:00	0:03
	충청/강원	0:03	0:01	0:03	0:03
	호남/제주	0:04	0:01	0:01	0:04
연령	20~29세	0:03	0:01	0:05	0:03
	30~39세	0:03	0:01	0:02	0:03
	40~49세	0:02	0:00	0:02	0:02
교육	중졸이하	0:01	0:00	0:02	0:01
	고졸	0:03	0:01	0:02	0:03
	초대졸이상	0:08	0:03	0:05	0:08
미취학아동	있음	0:04	0:02	0:02	0:04
	없음	0:03	0:01	0:02	0:02
주거형태	자가	0:02	0:01	0:01	0:02
	전월세 및 기타	0:04	0:01	0:03	0:04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0:02	0:01	0:03	0:02
	16~25평	0:03	0:01	0:02	0:03
	26평 이상	0:03	0:02	0:01	0:03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0:06	0:03	0:02	0:06
	40~59시간	0:02	0:00	0:03	0:02
	60시간 이상	0:01	0:00	0:01	0:01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0:06	0:02	0:05	0:06
	서비스/판매	0:02	0:01	0:02	0:02
	농림어업	0:02	0:01	0:01	0:01
	기능/생산/노무/기타	0:02	0:01	0:01	0:02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04	0:01	0:03	0:03
	고용주/자영자	0:02	0:00	0:01	0:02
	무급가족종사	0:02	0:02	0:00	0:02

<표 IV-26> 20~40대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여가(레저)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0:27	0:26	0:32	0:27
지역	서울	0:21	0:28	0:26	0:21
	경기/인천	0:27	0:22	0:25	0:27
	영남	0:27	0:27	0:36	0:28
	충청/강원	0:27	0:28	0:32	0:28
	호남/제주	0:28	0:22	0:34	0:28
연령	20~29세	0:21	0:32	0:29	0:22
	30~39세	0:26	0:25	0:31	0:27
	40~49세	0:29	0:24	0:33	0:29
교육	중졸이하	0:25	0:25	0:28	0:25
	고졸	0:27	0:24	0:29	0:27
	초대졸이상	0:30	0:33	0:52	0:32
미취학아동	있음	0:22	0:23	0:28	0:22
	없음	0:29	0:27	0:33	0:29
주거형태	자가	0:28	0:26	0:32	0:28
	전월세 및 기타	0:24	0:25	0:31	0:25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0:22	0:25	0:29	0:22
	16~25평	0:28	0:26	0:32	0:28
	26평 이상	0:30	0:25	0:34	0:30
주당근무시간	40시간 미만	0:36	0:30	0:34	0:36
	40~59시간	0:24	0:27	0:37	0:25
	60시간 이상	0:22	0:21	0:23	0:22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0:32	0:36	0:44	0:33
	서비스/판매	0:26	0:21	0:25	0:25
	농림어업	0:35	0:32	0:36	0:35
	기능/생산/노무/기타	0:21	0:22	0:31	0:22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24	0:25	0:35	0:24
	고용주/자영자	0:27	0:26	0:31	0:27
	무급가족종사	0:32	0:26	0:26	0:31

첫째, 조직활동. 종교, 봉사, 사회참여를 포괄하는 조직활동의 경우 한국의 20~49세 취업주부들은 평일에 8분, 토요일에 11분, 일요일에 평균 27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활동이 집중되는 일요일의 시간사용이 많다는 점이 조직활동을 설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조직활동의 각 집단별 시간량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평일의 경우 영남, 충청 및 강원지역 거주자, 20대 연령층,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여성들의 조직활동 시간이 적었다. 토요일에는 경인지역 거주자, 40대, 고학력집단, 26평 이상 거주자, 관리·사무직, 자영자, 40시간미만 근로하는 취업여성 등이 더 많은 시간을 조직활동에 소비하는 집단이었다. 일요일 역시 토요일의 패턴과 기본적으로 유사했으나, 서울지역 거주자의 조직활동 시간이 가장 많았다는 점은 상이하였다. 이러한 요일별 경향을 종합할 때, 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취업여성들과 미취학 아동을 가진 젊은 20대 여성들의 조직활동 참여가 적었다. 즉,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여유를 갖기 힘든 취업여성들은 사회참여, 종교활동, 사회봉사 등의 활동에도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제활동. 한국의 취업주부들은 평일에 42분, 토요일에 45분, 일요일에는 57분을 교제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의 연결망(network)에 의존하는 교제활동의 경우, 조직활동에서 나타나는 각 변수별 특성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었다. 지역의 경우, 호남 및 제주 지역 거주자의 교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서울 지역 거주자의 활동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교제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집단이 요일별로 달라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연령의 경우 20대가 토요일에 가장 많은 교제활동을 하는 집단이었으나, 평일에는 그 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경우 평일 고졸 집단의 교제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일요일에는 가장 적은 집단이었다. 주거전용면적 역시 15평 이하 거주자들이 평일과 일요일 교제활동이 가장 적은 집단이었으나, 토요일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집단이었다. 또, 직종의 경우 관리·사무직 취업여성의 토요일 교제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일요일에는 생산·기능직 여성의 교제활동 시간이 가장 길었다.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자영업 종사자의 교제활동시간이 임금근로자나 무급가족종사자보다 더 길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미취학 아동이 있

는 여성이 토요일에 미취학아동이 없는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제활동에 쓰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할 때 미취학 아동이 있는 20대, 자영업종사자 및 관리·사무직 취업주부들이 토요일에 교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평일과 토요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생산·기능직 취업여성들이 일요일에 주로 교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주요 특징적인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셋째, 대중매체 이용. 한국의 취업주부들은 여가활동의 대부분을 TV시청과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는데 보내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평일 1시간 30분, 토요일 1시간 35분, 일요일 2시간 7분을 평균 대중매체를 이용하는데 보내고 있었다. 대중매체와 관련된 여가활동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다른 하위 행동에 비하여 집단간 행동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 변수의 경우 특정한 흐름을 추출하기 힘들고, 연령의 경우 20대 젊은 계층이 주말과 휴일에 대중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유무에 따른 대중매체 이용 시간의 차이가 다른 하위 여가행동 범주들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V 시청과 같은 여가시간은 아동의 보살핌과 병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조직활동이나 교제활동과는 달리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여가시간은 집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점이 작용되었을 것이다. 다만, 유급노동의 부담이 큰 취업여성과 주말에도 많이 일해야 하는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경우, 집안에 있는 시간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짧은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성인의 학습. 20~49세 취업주부의 학습시간은 평일 3분, 토요일 1분, 일요일 2분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성인의 학습시간이 적은 것은 비단 취업여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학습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각 변수의 하위 집단별로 의미 있는 해석을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이다. 다만, 고학력집단, 유급노동 부담이 적은 계층, 관리·사무직 취업여성의 학습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듯하다.

다섯째, 문화 및 레저활동. 영화, 공연관람 등의 문화활동과 스포츠·취미 등의 레저활동은 성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여가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노동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의 20~49세 취업주부들은 이러한 문화 및 레저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평일

에 27분, 토요일에 26분, 일요일에 32분을 문화 및 레저활동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동일 연령층 전업주부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각 변수별 하위집단간의 차이 역시 크지 않다. 전반적으로 서울지역 거주자의 레저활동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활발하지 않아 보이며, 연령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면 고연령 집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레저활동에 투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교제활동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는 20대의 레저활동 시간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변수들에 있어서는 여가시간 전체의 시간량 패턴과 다르지 않았으며, 다만 일요일 고학력 집단 경우 다른 변수를 포함, 그 어떤 하위 집단보다도 많은 시간(52분)을 레저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동양육의 부담이 덜한 취업여성이 레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20~40대 전업주부의 일, 가족, 여가

1) 20~40대 전업주부와 일

전업주부는 근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기혼여성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앞의 <표 IV-15>에서 정의하였듯이, 본 장에서 유급노동의 범주로 포함시킨 일의 종류에는 자가소비를 위한 일, 구직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일에 해당되는 행동시간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취업주부로 분류되지만, 전업주부가 자영업을 하는 남편·가족 등을 비일상적으로 잠시 도와주는 경우 취업주부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일’관련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 IV-27>은 비록 적기는 하지만, 전업주부들의 일 관련 행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7〉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일

(시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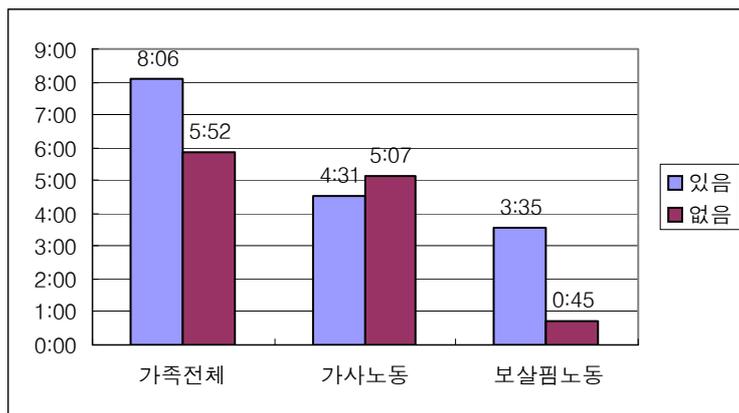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0:08	0:07	0:08	0:08
지역	서울	0:07	0:01	0:04	0:07
	경기/인천	0:07	0:08	0:14	0:08
	영남	0:08	0:05	0:08	0:07
	충청/강원	0:12	0:12	0:11	0:12
	호남/제주	0:09	0:10	0:02	0:08
연령	20~29세	0:03	0:04	0:03	0:03
	30~39세	0:09	0:04	0:08	0:09
	40~49세	0:12	0:12	0:13	0:12
교육	중졸이하	0:14	0:13	0:19	0:14
	고졸	0:08	0:07	0:05	0:07
	초대졸이상	0:05	0:01	0:07	0:05
미취학아동	있음	0:06	0:07	0:07	0:06
	없음	0:11	0:07	0:09	0:11
주거형태	자가	0:09	0:08	0:06	0:09
	전월세 및 기타	0:08	0:06	0:10	0:08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0:08	0:06	0:07	0:08
	16~25평	0:09	0:08	0:07	0:09
	26평 이상	0:08	0:04	0:11	0:08

한국의 20~49세 전업주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8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시간이 크지 않아 각 변수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주로 고연령 집단, 저학력 집단 및 미취학 아동이 없는 집단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나 전용면적의 경우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고, 하위집단별 편차 역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의 경우 충청 및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들이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40대 전업주부와 가족

한국 전업주부의 주된 노동의 형태는 역시 무급노동이다. 20~49세 전업주부는 평일 7시간 2분, 토요일 6시간 46분, 일요일에는 6시간 5분의 무급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의 경우 영남지역 전업주부의 무급노동 시간이 가장 적었지만, 타 지역 거주자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지역적 편차보다는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 아동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표 IV-16> 참조).

연령의 경우, 40대보다는 30대, 30대 보다는 20대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이 더 길었음을 알 수 있다. 평일을 기준으로 20대 전업주부는 하루 평균 7시간 42분의 무급노동을 수행한 반면, 40대의 경우 6시간 3분만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연령 집단간 차이는 미취학 아동 유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아동이 있는 전업주부는 평일에 8시간 11분, 토요일에 7시간 50분, 일요일에 7시간 7분의 무급노동을 하는 반면, 미취학 아동이 없는 전업주부는 각각 5시간 55분, 5시간 48분, 5시간 4분을 사용했을 뿐이다. 모든 요일에 걸쳐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는 2시간 이상 더 무급노동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는, 후술하겠지만 앞의 취업주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보살핌 노동시간의 차이 때문이다(<그림 IV-11> 참조).



<그림 IV-11> 미취학 아동 유무별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요일평균)

교육 수준의 경우, 고졸 집단과 고학력 집단간의 무급노동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이 두 집단과 저학력 집단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의 경우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하여 대략 1시간 가량 적은 무급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교육 변수와 미취학 아동 여부, 연령변수 간에 다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하는 요소이다. 끝으로, 주거형태 및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지역변수와 마찬가지로 하위 집단간의 편차가 크지 않아 의미 있는 해석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급노동 중, 전통적 가사노동으로 분류되는 의식주 및 가정경영과 같은 활동의 경우, 각 변수별 하위집단 간의 편차는 크게 줄어든다. <표 IV-28>에서 볼 수 있듯이, 20~49세 한국의 전업주부들은 평일 4시간 51분, 토요일 4시간 49분, 일요일 4시간 25분의 전통적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요일별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교육수준, 주거전용면적 등에 따른 시간량의 편차는 매우 적다. 즉, 일상적인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상당히 일정하며, 전업주부라는 공통된 특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동질성이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차이보다 더 유의미함을 시사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아동의 유무, 연령, 주거형태 등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20대 보다는 30대, 30대 보다는 40대의 가사노동 투입시간이 길었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사노동 시간이 짧았다. 즉, 미취학 아동이 많이 분포된 젊은 계층의 경우, 아동을 보살피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더 짧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자가 거주자의 경우 전월세 거주자에 비하여 대략 30분 정도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자가 소유 비율이 낮다는 점과,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 더 애착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집안의 청소와 집의 유지에 더 투입할 것이라는 점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IV-28>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가족(가사노동)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4:51	4:49	4:25	4:49
지역	서울	4:41	4:41	4:33	4:41
	경기/인천	4:46	4:37	4:20	4:44
	영남	4:57	4:56	4:21	4:55
	충청/강원	4:54	4:55	4:32	4:53
	호남/제주	4:51	4:46	4:25	4:49
연령	20~29세	4:20	4:12	4:03	4:18
	30~39세	4:48	4:45	4:28	4:46
	40~49세	5:22	5:25	4:41	5:20
교육	중졸이하	4:52	5:16	4:28	5:06
	고졸	5:09	4:49	4:26	4:49
	초대졸이상	4:52	4:21	3:56	4:31
미취학아동	있음	4:32	4:27	4:17	4:31
	없음	5:10	5:08	4:32	5:07
주거형태	자가	5:03	5:05	4:38	5:02
	전월세 및 기타	4:34	4:28	4:11	4:33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4:40	4:34	4:10	4:38
	16~25평	4:52	4:43	4:25	4:49
	26평 이상	5:03	5:23	4:48	5:03

<표 IV-29>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가족(보살핌 노동)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2:11	1:57	1:40	2:08
지역	서울	2:20	2:05	1:37	2:16
	경기/인천	2:21	2:02	1:25	2:17
	영남	2:00	1:52	1:38	1:58
	충청/강원	2:09	1:46	1:44	2:06
	호남/제주	2:13	2:07	1:57	2:12
연령	20~29세	3:22	3:09	2:36	3:18
	30~39세	2:29	2:10	1:55	2:26
	40~49세	0:41	0:38	0:27	0:40
교육	중졸이하	1:04	0:51	0:52	1:02
	고졸	2:19	2:15	1:48	2:17
	초대졸이상	2:53	2:20	2:03	2:48
미취학아동	있음	3:39	2:24	2:49	3:35
	없음	0:46	0:40	0:32	0:45
주거형태	자가	1:55	1:37	1:20	1:42
	전월세 및 기타	2:32	2:22	2:02	2:29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2:25	2:16	1:54	2:23
	16~25평	2:14	1:55	1:40	2:11
	26평 이상	1:43	1:36	1:20	1:42

한편, <표 IV-29>는 무급노동시간 중 보살핌 노동 시간만을 정리·요약한 것이다. 보살핌 노동시간은 미취학 아동, 학령기 자녀, 배우자, 노부모, 기타 가족을 보살피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은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발달 단계상 부모의 손길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전업주부들의 보살핌 노동시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선, 한국의 20~49세 전업주부들은 평일 2시간 11분, 토요일 1시간 57분, 일요일에 1시간 40분을 보살핌 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앞선 전통적 가사노동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살핌 노동시간의 지역적 편차는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유의미한 해석으로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지역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각 하위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먼저 연령 변수의 경우,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40대 보다는 30대, 30대 보다는 20대 전업주부들의 보살핌 노동시간이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변수와 미취학 아동 유무간의 강한 상관관계에 기인한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평일 3시간 39분, 토요일 2시간 24분, 일요일 2시간 49분을 보살핌 노동에 투입한 반면, 미취학 아동이 없는 집단의 경우 보살핌 노동 시간은 각각 46분, 40분, 32분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들이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들보다 약 두 시간 가까이 보살핌 노동에 시간을 더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의 <그림 IV-11> 참조). 또, 앞의 전통적 가사노동시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과 연령 및 미취학 아동 유무 간의 상관관계가 감지되고 있다. 즉,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고졸 및 저학력 집단에 비해 현저히 적다.

마찬가지로, 주거 형태의 경우, 젊은 연령층의 자가소유 비율이 낮다는 점을 수용한다면, 자가 거주 전업주부의 보살핌 노동시간이 짧은 점 역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넓은 집단일수록 보살핌 노동시간이 적다는 분석결과 역시,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짐작케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과 관련된 변수들의 하위 집단간 편차는 교육수준, 연령, 미취학 아동유무와 같은 전형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의한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었다는 것 역시 언급되어야 할 점이다.

3) 20~40대 전업주부와 여가

그렇다면, 한국 전업주부의 여가시간은 어떠할까? <표 IV-30>에 의하면, 20~49세 전업주부의 여가시간은 평일 5시간 28분, 토요일 5시간 32분, 일요일 5시간 34분으로서, 요일별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유급노동의 부담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여가시간의 활용에 있어 평일과 주말의 구분 없이 상당히 평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변수의 하위 집단 간 편차는 어떠할까? 먼저 지

역, 주거형태, 주거전용면적 등의 경우에는, 각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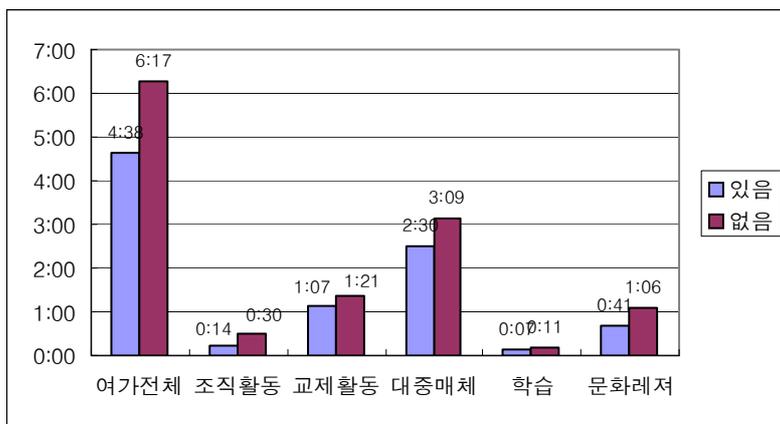
<표 IV-30>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전체 여가시간)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5:28	5:32	5:34	5:29
지역	서울	5:26	5:34	5:35	5:27
	경기/인천	5:31	5:28	5:34	5:31
	영남	5:35	5:36	5:37	5:35
	충청/강원	5:23	5:28	5:27	5:23
	호남/제주	5:19	5:32	5:34	5:21
연령	20~29세	4:59	4:58	4:55	4:59
	30~39세	5:16	5:29	5:24	5:17
	40~49세	6:12	6:06	6:24	6:13
교육	중졸이하	5:53	6:03	6:05	5:54
	고졸	5:22	5:55	5:24	5:22
	초대졸이상	5:21	5:20	5:34	5:23
미취학아동	있음	4:37	4:44	4:46	4:38
	없음	6:17	6:15	6:21	6:17
주거형태	자가	5:32	5:36	5:39	5:32
	전월세 및 기타	5:23	5:27	5:28	5:24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5:20	5:16	5:33	5:20
	16~25평	5:27	5:44	5:31	5:28
	26평 이상	5:42	5:28	5:41	5:41

그러나,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 아동 여부에 따른 편차는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평일 4시간 37분, 토요일 4시간 44분, 일요일 4시간 46분의 여가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취학 아동이 없는 전업주부가 각각 6시간 17분, 6시간 15분, 6시간 21분의 여가시간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평균 1시간 40분 정도 적은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는, 조직활동·교제활동·대중매체·문화 및 레저 등 여가시간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V-12> 참조). 앞에서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의 보살핌 노동 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육아에 대한 시간적 부담의 대부분이 여가시간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2> 미취학 아동 유무별 전업주부의 여가시간(요일평균)

미취학 아동 여부와 연령간의 상관관계는 연령변수 내의 집단간 편차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각 연령집단 내에서 요일간의 편차는 적었지만, 각 연령집단 간의 여가시간 차이는 뚜렷하다. 20대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5시간이 채 안되는 여가시간을 보냈으나, 30대는 20대보다 20~30분 정도 더 많은 여가시간을 소비했고, 다시 40대 전업주부는 30대보다 한 시간이 조금 못 미치는 여가시간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수준의 경우 중졸이하의 저학력 주부들의 여가 시간이 고졸 및 고학력 집단의 그것보다 평균 30분 정도 많았다. 이는 연령과 교육수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학력 주부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육아열기가 더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명확한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가시간의 분포가, 여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행동 항목별로

상이할 수 있지 않을까? 앞 절에서 진행된 취업주부의 여가시간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표 IV-31>~<표 IV-35>는 여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성인의 학습, 문화 및 레저활동 각 행동 항목별 시간사용 분포를 요약해주고 있다. 각각의 하위 행동 항목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20~49세 전업주부의 여가시간 사용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1>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조직활동)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0:21	0:18	0:40	0:22
지역	서울	0:23	0:18	0:43	0:24
	경기/인천	0:26	0:14	0:49	0:27
	영남	0:17	0:16	0:32	0:18
	충청/강원	0:20	0:30	0:31	0:21
	호남/제주	0:24	0:12	0:49	0:25
연령	20~29세	0:05	0:08	0:19	0:06
	30~39세	0:21	0:11	0:44	0:21
	40~49세	0:36	0:35	0:51	0:37
교육	중졸이하	0:23	0:26	0:44	0:25
	고졸	0:20	0:15	0:34	0:21
	초대졸이상	0:23	0:16	0:57	0:24
미취학아동	있음	0:13	0:10	0:32	0:14
	없음	0:29	0:25	0:47	0:30
주거형태	자가	0:24	0:20	0:40	0:25
	전월세 및 기타	0:18	0:15	0:39	0:19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0:16	0:17	0:36	0:18
	16~25평	0:21	0:20	0:39	0:22
	26평 이상	0:29	0:14	0:46	0:29

<표 IV-32>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교제활동)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1:15	1:10	1:06	1:14
지역	서울	1:11	1:12	0:58	1:10
	경기/인천	1:14	1:16	1:09	1:14
	영남	1:22	1:10	1:10	1:20
	충청/강원	1:06	1:05	0:57	1:06
	호남/제주	1:14	1:10	1:10	1:14
연령	20~29세	1:03	0:58	1:07	1:03
	30~39세	1:18	1:12	1:00	1:16
	40~49세	1:20	1:18	1:14	1:19
교육	중졸이하	1:25	1:20	1:11	1:24
	고졸	1:13	1:04	1:06	1:12
	초대졸이상	1:10	1:20	0:57	1:10
미취학아동	있음	1:07	1:03	1:00	1:07
	없음	1:22	1:17	1:11	1:21
주거형태	자가	1:16	1:13	1:07	1:15
	전월세 및 기타	1:13	1:07	1:05	1:12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1:12	1:08	1:01	1:11
	16~25평	1:17	1:13	1:10	1:16
	26평 이상	1:15	1:07	1:04	1:14

<표 IV-33>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대중매체)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2:48	3:04	3:03	2:50
지역	서울	2:43	2:53	3:11	2:45
	경기/인천	2:45	3:00	2:51	2:46
	영남	2:52	3:14	3:12	2:55
	충청/강원	2:50	2:59	3:07	2:51
	호남/제주	2:44	3:04	2:52	2:46
연령	20~29세	2:56	3:01	2:58	2:56
	30~39세	2:37	3:03	2:53	2:39
	40~49세	2:59	3:07	3:24	3:01
교육	중졸이하	3:06	3:20	3:28	3:08
	고졸	2:48	3:06	3:04	2:50
	초대졸이상	2:28	2:39	2:32	2:29
미취학아동	있음	2:28	2:41	2:40	2:30
	없음	3:06	3:24	3:26	3:09
주거형태	자가	2:45	3:02	3:00	2:46
	전월세 및 기타	2:52	3:07	3:07	2:54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2:59	3:03	3:19	3:00
	16~25평	2:43	3:02	2:59	2:45
	26평 이상	2:43	3:09	2:52	2:45

<표 IV-34>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학습)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0:10	0:05	0:02	0:09
지역	서울	0:13	0:05	0:00	0:12
	경기/인천	0:11	0:06	0:04	0:11
	영남	0:08	0:03	0:01	0:07
	충청/강원	0:08	0:06	0:00	0:07
	호남/제주	0:10	0:04	0:03	0:10
연령	20~29세	0:09	0:05	0:01	0:09
	30~39세	0:10	0:05	0:02	0:09
	40~49세	0:10	0:04	0:01	0:09
교육	중졸이하	0:03	0:01	0:00	0:03
	고졸	0:09	0:04	0:01	0:08
	초대졸이상	0:18	0:09	0:04	0:17
미취학아동	있음	0:07	0:03	0:01	0:07
	없음	0:11	0:06	0:02	0:11
주거형태	자가	0:10	0:05	0:01	0:09
	전월세 및 기타	0:09	0:04	0:02	0:08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0:07	0:02	0:01	0:06
	16~25평	0:11	0:06	0:02	0:11
	26평 이상	0:09	0:04	0:02	0:09

<표 IV-35> 20~40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여가(레저)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평균
전체평균		0:54	0:55	0:43	0:54
지역	서울	0:56	1:06	0:42	0:56
	경기/인천	0:54	0:52	0:38	0:53
	영남	0:55	0:53	0:42	0:54
	충청/강원	0:59	0:48	0:51	0:57
	호남/제주	0:46	1:00	0:39	0:47
연령	20~29세	0:45	0:46	0:29	0:44
	30~39세	0:50	0:56	0:44	0:50
	40~49세	1:08	1:01	0:54	1:07
교육	중졸이하	0:55	0:47	0:40	0:54
	고졸	0:51	0:51	0:38	0:50
	초대졸이상	1:02	1:17	1:04	1:03
미취학아동	있음	0:41	0:46	0:32	0:41
	없음	1:07	1:04	0:53	1:06
주거형태	자가	0:57	0:56	0:51	0:57
	전월세 및 기타	0:50	0:55	0:34	0:50
주거전용면적	15평 이하	0:46	0:46	0:36	0:45
	16~25평	0:54	1:02	0:42	0:54
	26평 이상	1:06	0:53	0:56	1:04

첫째, 조직활동. 한국의 전업주부들은 평일 21분, 토요일 18분, 일요일에 40분 정도를 사회참여, 봉사, 종교활동 등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취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조직활동은 주로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교활동, 특히 개신교 및 천주교의 종교 행사가 주로 일요일에 많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연령의 경우, 요일과는 상관없이 고연령 집단에서 더 많은 조직활동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일요일 30대와 40대의 시간량이 20대에 비해 훨씬 많았다. 또,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의 조직활동 참여

시간이 미취학 아동이 없는 주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육아부담과 조직활동의 위축 간에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교육 변수의 경우, 평일의 편차는 거의 없었지만, 일요일 고학력자의 조직활동이 좀더 두드러져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 및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하위 집단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조직활동의 참여에 약간 더 적극적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제활동. 한국의 20~49세 전업주부들은 평균적으로 평일에 1시간 15분, 토요일에 1시간 10분, 일요일에 1시간 6분 정도의 교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활동 항목의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 변수의 하위집단간 편차가 다른 여가항목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이다. 연령의 경우 20대 전업주부 보다는 30대와 40대가,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교제시간이 더 많았지만, 두 변수 모두에 있어 집단간의 교제시간 차이는 10~20분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행동 항목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미취학 아동 변수 역시, 교제활동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가 평일 1시간 7분, 토요일 1시간 3분, 일요일 1시간의 교제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미취학 아동이 없는 전업주부에 비해 불과 10~16분 정도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 아마도, 다른 행동 항목과는 달리 교제활동 경우, 굳이 미취학 자녀를 떼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교제활동 자체가 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직접 육아를 담당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와 함께 친구, 친지, 이웃 등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취학 아동이 없는 주부와의 교제시간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거형태나 전용면적은 각 집단간의 차이가 더 적어 의미 있는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없었다. 지역의 경우, 영남지역 전업주부들의 조직활동이 평균보다 적었던 반면, 교제활동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간 격차 역시 최대 15분 정도로서 뚜렷한 경향성을 추출해 낼 수는 없었다.

셋째, 대중매체의 이용. 한국의 20~49세 전업주부들은 평일 2시간 48분, 토요일 3시간 4분, 일요일 3시간 3분을 대중매체의 이용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여가시간의 절반 이상을 TV시청 등 대중매체의 이용으

로 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중매체의 이용 역시 지역, 연령, 주거형태 등의 변수에 있어서는 하위 집단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일요일 40대 전업주부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25분 정도 많았다. 교육 수준의 경우, 평일과 일요일 저학력 집단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고학력 집단에 비해 상당히 길었고,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15평 이하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들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전업주부들의 여가시간 활용이, 비용이 다소 수반될 수 있는 문화 및 레저활동 보다는, 별다른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대중매체의 이용에 좀더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평일에는 30분, 토요일에는 40분, 일요일에는 50분 정도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육아부담이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감소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성인의 학습. 20~49세 전업주부의 학습시간은, 취업주부들보다는 다소 많았지만, 평일 10분, 토요일 5분, 일요일 2분 등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성인의 학습시간이 적은 것은 한국 성인의 시간소비 패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학습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각 변수의 하위 집단별로 의미 있는 해석을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이다. 다만, 고학력집단, 육아 부담이 적은 주부의 학습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정도가 지적될 수 있다.

다섯째, 문화 및 레저활동. 한국의 20~49세 전업주부들은 평일 54분, 토요일 55분, 일요일 43분의 시간을 평균적으로 문화 및 레저 활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동일 연령대의 취업주부에 비하면 2배가량 많은 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들이 문화 및 레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은, 취업여성의 경우 평일의 유급노동 부담으로 인하여 일요일의 문화 및 레저 활동 시간이 더 길었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오히려 일요일의 그것이 더 짧다는 점이다. 결국, 전업주부들은 문화, 취미, 레저 활동을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하기 보다는, 가족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평일과 토요일에 이러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변수의 하위 집단간 편차를 살펴보면, 지역의 경우 호남 및 제주 지역 전업주부들의 문화·레저 활동시간이 더 적었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고연령

집단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문화 및 레저 활동에 소비하고 있었고, 미취학 아동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에 비하여 평균 20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교육수준의 경우, 고학력 집단이 저학력 집단보다 더 많은 문화 및 레저 활동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말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 약 24분(일요일)~30분(토요일)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 주거 전용면적 26평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15평 이하 집단보다 평균 20분 정도,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자가 거주자가 전월세 거주자에 비해, 문화·레저에 대한 시간 소비가 많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육아부담이 적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업주부들이 전체적인 여가시간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문화 및 레저 활동에 할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소결: 20~40대 기혼여성의 일, 가족, 여가

한국의 20~40대 기혼여성들의 생활세계는 전업주부인지 아니면 취업주부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상이하였고, 동시에 전업주부 또는 취업주부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전업주부들은 기혼남성과 비슷한 시간을 개인유지에 할애한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 개인유지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 9시간 40분으로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평균 24~25분 적었다. 취업주부들은 유급노동에 하루 평균 6시간 9분을,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에는 평균 3시간 41분을 소비하였는데, 이는 기혼남성의 평균 유급노동시간 (7시간 22분)과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6시간 57분)보다 적은 것이었다. 하지만,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포함한 총노동시간은 평균 9시간 50분에 달하였으며, 이것은 기혼남성(7시간 50분)보다는 2시간이 많고, 전업주부(7시간 5분)보다는 2시간 45분이 많은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취업주부들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노동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취업주부들의 이중노동부담은 전체적인 시간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불가피하게 여가시간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취업주부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시간 54분에 불과한데, 이것은 기혼남성에 비해서는 1시간 14분, 전업주부에 비해서는 2시간 35분이 적은 수치였다. 결국, 취업주부 집단은 20~40대 기혼자 집단 중 가장 열악한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취업주부 집단은 이중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공통적 특성이 있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의해 다양한 하위 집단이 존재하며, 그 하위집단간의 생활세계가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고 있었다. 즉, 취업주부의 생활세계는 미취학 아동 유무, 연령, 주거관련 변수, 직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당히 달라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취업주부로서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이 집단 내부의 다양성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와 생산·기능직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은 주말과 휴일에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더 긴 반면, 여가시간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생활세계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급노동의 부담이 클수록 여가시간이 감소되고 있었다. 한편, 미취학 아동 유무는, 연령변수와의 강한 상관관계와 더불어, 생활세계가 상이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미취학아동이 있는 취업주부들은 유급노동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 적었고, 보살핌 노동에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더 투입한 반면, 20분 정도 적은 여가시간을 가졌다. 결국, 육아의 부담은 유급노동 및 여가시간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생활세계의 차이보다는, 전업주부라는 공통된 특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동질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전통적인 가사노동으로 분류되는 의식주 및 가정경영과 같은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상당히 일정한 편이었으며, 각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하위집단간의 편차는 적은 편이었다. 오히려 이보다는 인구학적 특성, 즉 미취학 아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 연령과의 강한 상관성과 더불어, 전업주부의 생활세계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통적인 가사노동 시간은 짧았지만 (약 40분 정도), 보살핌 노동에는 약 두 시간 가까이 시간을 더 투입하고 있었고, 평균 1시간 40분 정도 적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의 보살핌 노동 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육아에 대한 시간적 부담의 대부분이 여가시간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20~40대 기혼여성들의 생활세계는 취업여부와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크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취업주부들의 이중노동부담과 미취학 아동이 있는 기혼여성들의 육아부담은 여가시간의 감소,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세계를 열악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고령 여성의 생활세계

가.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고령 여성과 고령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분포는 다음 <표 IV-36>과 같다. 고령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성별로 비교함으로써 고령의 남녀가 각각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짐작해 보고,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일상생활의 형태는 어떤 다양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 장에서 고령자 집단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되는 여성이 2,693명, 남성이 1,603명으로 총 4,296명이며 기존의 통계보고와 같이 고령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요일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일이 약 60%,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약 20% 정도 조사되었으며 성별로 조사요일 표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조사요일별 분포는 ‘생활시간조사’ 전체 응답자의 분포와도 같고, 여성의 하위집단에 따른 조사요일별 응답자분포와도 일치한다.

먼저 지역별 분포의 경우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약 17%가 서울/경기지역에, 약 23%가 6대 광역시에, 약 59%가 기타 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표본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 31.3%, 6대 광역시 20.8%, 기타 도지역 48.0%로 나타난다(통계청, 통계DB). 결국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된 고령층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과소표집되고 기타 도지역 거주자가 과대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비농가의 가구구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성은 농가 39.6%, 비농가 60.4%로 나타나고, 여성은 농가 28.4%, 비농가 71.6%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모두 농가보다는 비농가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의 농가비율이 여성

보다 10%정도 많이 나타난다.¹⁴⁾ 통계청의 농가/비농가 구분은 ‘가구주의 생업(주된 일)이 농업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른 구분이다. 고령층여성의 경우 다음의 연령별 분포와 수입노동별 분포에서 보듯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고 이에 가구주로 기록되었던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였다 하더라도 사별 후 수입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지면서 고령 남성보다 비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74세에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즉 남성의 경우 65~74세 연령층이 전체 고령층의 72.1%를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 65~74세 연령층이 전체 고령층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즉 65~69세의 성비는 77.5, 70~74세의 성비는 54.1, 75~79세의 성비는 52.6, 80세 이상은 38.1이다. 이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고령층이 거주하는 주택종류를 살펴보면 성별로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약 77%의 고령자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약 14%의 고령자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약 8~9%의 고령자들이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령층의 높은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편리한 아파트생활을 누릴 수 없는 고령층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거나 또는 고령층이 아파트의 고립된 주거형태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주관적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농가의 비율이 높고 농가의 주택종류는 대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⁵⁾

주거의 점유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남성은 자가 87.5%, 전월세 및 기타 12.5%이고 고령 여성은 자가 80.7%, 전월세 및 기타 19.3%로 남성들의 자가 비율

14) 농가와 비농가의 구분은 『경제활동조사』 자료와의 합성(merging) 결과로 남성은 154명, 여성은 384명이 missing되었다.

15)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2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에서 남성과 여성의 농가비율은 모두 12.1%이다. 또한 고령층에서 농가의 주택형태는 99%가 단독주택이고, 비농가의 주택형태는 68.5%가 단독주택, 19.8%가 아파트, 11.7%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여성보다 약간 높다. 고령층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경제적 자립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¹⁶⁾

<표 IV-36> 고령 여성과 고령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남(N=1,603)	여(N=2,693)
조사요일	평 일	989 (61.7)	1,650 (61.3)
	토요일	314 (19.6)	530 (19.7)
	일요일	300 (18.7)	513 (19.1)
지역	서울/경기	282 (17.6)	458 (17.0)
	6대광역시	370 (23.1)	648 (24.1)
	기타 도	951 (59.3)	1,587 (58.9)
농가구분	농가	604 (39.6)	710 (28.4)
	비농가	922 (60.4)	1,791 (71.6)
연령	65~69세	745 (46.5)	961 (35.7)
	70~74세	410 (25.6)	759 (28.2)
	75~79세	280 (17.5)	532 (19.8)
	80세 이상	168 (10.5)	441 (16.4)
주택종류	단독	1,243 (77.5)	2,077 (77.1)
	아파트	225 (14.0)	382 (14.2)
	연립/다세대/기타	135 (8.4)	234 (8.7)
주거점유형태	자가	1,403 (87.5)	2,173 (80.7)
	전월세 및 기타	200 (12.5)	520 (19.3)
교육	무학	457 (28.5)	1,803 (67.0)
	초등이하	605 (37.7)	719 (26.7)
	중등이하	206 (12.9)	85 (3.2)
	고등이하	182 (11.4)	68 (2.5)
	대학이상	153 (9.5)	18 (0.7)
혼인상태	유배우자	1,398 (87.2)	815 (30.3)
	무배우자	205 (12.8)	1,878 (69.8)

(계속)

16)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표본자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성별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남성은 본인배우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율이 48.0%, 일부 지원받아 생활하는 비율이 37.1%, 전부 지원받아 생활하는 비율이 14.8%인 반면, 여성은 본인배우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율이 23.0%, 일부 지원받아 생활하는 비율이 50.6%, 전부 지원받아 생활하는 비율이 26.4%이다.

		남(N=1,603)	여(N=2,693)
가구형태	1인 가구	84 (5.2)	613 (22.8)
	부부가구	763 (47.6)	478 (17.8)
	기타(2세대/3세대/기타)	756 (47.2)	1602 (59.5)
수입노동	있다	792 (49.4)	918 (34.1)
	없다	811 (50.6)	1775 (65.9)
주당근무시간	35시간 이하	271 (34.2)	410 (44.5)
	36시간 이상	521 (65.8)	508 (55.3)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58 (7.3)	10 (1.1)
	서비스/판매	59 (7.5)	120 (13.1)
	농림어업	556 (70.2)	608 (66.2)
	기능/생산/단순노무	119 (15.0)	180 (19.6)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112 (14.1)	191 (20.8)
	고용주/자영자	582 (73.5)	281 (30.6)
	무급가족종사자	96 (12.4)	446 (48.6)

교육수준에서는 고령층의 대부분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의 학교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령 남성의 66.2%, 고령 여성의 93.7%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수준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여성들의 학력이 고령남성들의 학력보다 현저히 낮아 고령여성은 무학이 67%에 이르고, 중등이상의 학력자는 6.4%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령남성은 무학은 28.5%이고, 중등이상의 학력자는 33.8%에 이른다.

혼인상태 분포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유배우자의 비율이 남성은 87.2%에 이르지만 여성은 30.3%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은 평균수명이 길어서 사별을 경험하고 무배우자의 상태가 될 확률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무배우자 고령층은 대부분 사별을 한 경우이며 미혼이나 이혼의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즉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이나 이혼으로 무배우자인 경우는 0.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혼인상태의 성별차이는 가구형태 분포에서도 반영된다. 고령여성들의 경우 고령남성보다 1인 단독가구나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나 3세대 기타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고령남성은 고령여성보다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

다. 즉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 고령여성은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가구의 형태를 취하고, 사별한 후에는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거나 원할 때까지 또는 상황에 의해 1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와 함께 사는 형태를 취할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인 활동상태를 수입노동여부와 수입노동을 한 경우 노동시간, 현 직종 과 종사상지위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수입노동여부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간 수입이 되는 일을 했는지를 측정하였다. 고령남성들의 경우에는 49.4%가 수입노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고령여성들의 경우에는 34.1%만이 수입노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여 고령남성들이 고령여성보다 수입노동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령층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성역할 분담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연령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즉, 연령별 수입노동여부를 살펴보면 64~69세의 47.2%, 70~74세의 31.8%, 75~79세의 28.2%, 80세 이상의 16.5%가 수입노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입노동참여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수입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수입노동시간은 없는 것으로 산정하고 수입노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노동한 시간을 35시간 이하와 36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당 36시간 이상(전일제) 일했다고 응답한 고령남성은 65.8%이지만 고령여성은 55.3%만이 주당 36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고령층의 경우에도 남성의 전일제 노동비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입노동에 참여한 응답자에 한해 현재 직종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농업을 비롯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성은 농림어업 70.2%, 기능/생산/단순노무 15.0%, 서비스/판매 7.5%, 관리/전문/기술/사무 7.3%의 순으로 나타나고, 여성은 농림어업 66.2%, 기능/생산/단순노무 19.6%, 서비스/판매 13.1%, 관리/전문/기술/사무 1.1%의 순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고령층이 대부분 식민지시기에 출생하여 교육수준이 매우 낮고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김정석, 2005) 현재의 직업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층의 성별 직종의 차이를 보면 관리/전문/기술/사무직과 농림어업직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서비스/판

매직과 기능/생산/단순노무직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종과 더불어 종사상지위에서도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고령 남성이 14.1%, 고령 여성이 20.8%정도이고 대부분이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 나타난다. 특히 남성은 고용주/자영자의 비율이 73.5%로 여성의 30.6%보다 월등히 높고,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48.6%로 남성의 12.4%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수입노동에 참여한 고령층의 대다수가 단순노무직이나 농림어업직 등에 종사하며 자영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인 점이 고령층 노동의 특징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에서도 여전히 남성의 사회적 일과 여성의 가족 일 분담이 계속되어 여성보다 남성의 수입노동 참여비율과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여성은 수입노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남성의 자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가족 내 무급의 노동력 제공자로 보여진다.

나. 고령 여성과 고령 남성의 생활시간

1) 고령 여성과 고령 남성의 생활시간 분포

이 절에서는 고령층의 각종 생활영역과 활동에 쓰는 시간량의 차이를 남성과 여성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루 생활시간의 평균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성 2,693명과 남성 1,603명의 이틀 분 시간일기 총 8,592개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IV-37>은 대분류의 생활영역에 따라 남녀 고령층의 평균 생활시간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유지에 11시간 19분, 유급노동에 2시간 21분, 무급노동에 2시간 13분, 여가활동에 6시간 54분, 이동활동에 1시간 14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24시간(1440분)의 하루 시간 중에서 개인유지에 46.9%, 유급노동에 9.8%, 무급노동에 9.2%, 여가활동에 28.8%, 이동에 5.2%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층의 하루시간 분배는 미혼층이나 기혼층과 비교하여 개인유지시간이나 여가시간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고령층 전체의 이러한 생활시간사용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유급노동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대신 여가활동시간이 약간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유지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은 요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요일별 생활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고령층 생활시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층에서는 수입노동 참여자의 비율보다 비참여자의 비율이 높아 수입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하루 일상이 전개되고, 수입노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요일에 따른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적은 자영자나 무급가족 종사자, 농임어업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령층의 성별 생활시간사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요일전체에서 무급노동시간만 고령여성이 고령남성보다 많고 유급노동시간, 여가활동시간, 이동시간은 고령남성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요일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즉 모든 요일에서 무급노동시간만 고령여성이 고령남성보다 많고 유급노동시간, 여가활동시간, 이동시간은 고령남성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개인유지시간만큼은 성이나 요일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V-37> 생활영역별 고령남성과 고령여성의 생활시간

(시간: 분(행위자비율))

구분	시간	남성	여성	전체평균
요일전체	개인유지	11:21(100.0)	11:17(100.0)	11:19(100.0)
	유급노동	2:47 (52.2)	2:05 (42.3)	2:21 (46.0)
	무급노동	0:53 (57.6)	3:00 (90.9)	2:13 (78.4)
	여가	7:34 (98.9)	6:30 (99.0)	6:54 (99.0)
	이동	1:25 (87.4)	1:08 (84.0)	1:14 (85.3)
평일	개인유지	11:17(100.0)	11:20(100.0)	11:19(100.0)
	유급노동	2:56 (53.6)	2:11 (42.9)	2:28 (46.9)
	무급노동	0:55 (58.9)	3:03 (90.6)	2:15 (78.7)
	여가	7:27 (99.1)	6:20 (98.9)	6:45 (99.0)
	이동	1:25 (88.1)	1:08 (83.5)	1:14 (85.2)
토요일	개인유지	11:28(100.0)	11:11(100.0)	11:17(100.0)
	유급노동	2:47 (51.3)	2:03 (41.6)	2:19 (45.2)
	무급노동	0:53 (54.3)	2:59 (91.9)	2:12 (77.9)
	여가	7:28 (98.9)	6:39 (99.0)	6:57 (98.9)
	이동	1:25 (86.2)	1:08 (84.9)	1:14 (85.4)
일요일	개인유지	11:25(100.0)	11:16(100.0)	11:19(100.0)
	유급노동	2:16 (48.5)	1:48 (40.8)	1:58 (43.6)
	무급노동	0:49 (56.7)	2:51 (90.9)	2:06 (78.2)
	여가	8:02 (98.3)	6:55 (99.2)	7:20 (98.9)
	이동	1:28 (86.3)	1:11 (84.8)	1:17 (85.4)

마지막으로 대분류의 생활영역에서 시간량이 아닌 하루에 한번이라도 그 행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알 수 있는 행위자비율을 살펴보면, 하루생활에서 꼭 필요한 수면, 식사 및 간식, 씻기 활동으로 구성되는 개인유지활동에 모든 고령여성과 고령남성이 모든 요일에 항상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요일에서 고령여성보다 고령남성은 유급노동에의 행위자비율이 높고, 고령여성은 고령남성보다 무급노동에의 행위자 비율이 높다. 하지만 여가활동과 이동활동에 있어서는 성별, 요일별로 행위자비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대분류의 생활영역에 따른 남녀 고령층의 평균 생활시간량을 하위 활동영역별로 나누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량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 IV-38>이다.

<표 IV-38> 하위 활동영역별 고령남성과 고령여성의 생활시간

(시간: 분(행위자비율))

구분	시간	남성	여성	전체평균
개인유지	수면	8:30(100.0)	8:35(100.0)	8:33(100.0)
	식사 및 간식	1:35(100.0)	1:30(100.0)	1:32(100.0)
	개인관리	0:44 (96.0)	0:38 (93.5)	0:40 (94.5)
	건강관리	0:32 (17.6)	0:34 (21.6)	0:33 (20.1)
유급노동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19 (39.6)	1:01 (16.1)	1:30 (24.9)
	무급가족종사일	0:16 (6.2)	0:46 (15.0)	0:35 (11.7)
	기타	0:11 (11.1)	0:18 (14.7)	0:16 (13.3)
무급노동	가사노동	0:42 (53.8)	2:43 (90.1)	1:58 (76.6)
	- 음식준비 및 정리	0:10 (17.2)	1:29 (78.5)	1:00 (55.6)
	- 의류관리	0:01 (4.1)	0:24 (49.4)	0:16 (32.5)
	- 청소 및 정리	0:15 (36.4)	0:36 (71.9)	0:28 (58.6)
	- 기타	0:15 (11.6)	0:14 (17.0)	0:14 (15.0)
가족보살피기	0:11 (10.3)	0:17 (16.5)	0:15 (14.2)	
여가	조직활동	0:10 (8.3)	0:28 (19.8)	0:22 (15.5)
	- 종교활동	0:07 (5.6)	0:23 (16.7)	0:17 (12.5)
	교제활동	1:17 (62.6)	1:17 (66.8)	1:17 (65.2)
	- 가족·친척과의 교제	0:12 (20.9)	0:14 (21.3)	0:14 (21.2)
	- 유흥	0:07 (8.3)	0:08 (1.2)	0:03 (3.8)
	대중매체활동	3:58 (95.4)	3:05 (91.5)	3:25 (93.0)
	- TV	3:35 (94.5)	3:01 (91.3)	3:10 (92.5)
	레저활동	2:09 (85.4)	1:40 (75.8)	1:51 (79.4)
- 아무것도 안하고 쉬	0:47 (57.6)	0:59 (62.1)	0:55 (60.4)	
이동	이동	1:25 (87.4)	1:08 (84.0)	1:14 (85.3)

주: 여가시간의 중분류활동 즉 조직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활동, 레저활동의 합은 전체 여가시간이지만, 여가시간의 중분류활동의 하위범주는 고령층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의 시간만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유지 시간에서 전체적으로 고령층은 하루 평균 수면에 8시간 33분, 식사 및 간식에 1시간 32분, 개인관리에 40분, 건강관리에 33분을 사용하고 있다. 고령층인 만큼 수면시간과 건강관리시간 (의료적 치료시간)이 개인유지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혼층에서 수면시간이 7시간 57분, 건강관리시간이 2.2분이고,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유배우자층에서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 건강관리시간이 5.7분인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개인유지시간의 성별차이를 보면 수면시간과 건강관리시간은 고령여성이 길지만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시간은 고령남성의 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다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⁷⁾

유급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1시간 30분, 무급가족종사일에 35분, 기타 16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용된 일 및 자영업시간이 여성보다 많고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일이 남성보다 많다. 이것은 <표 IV-36>의 종사상지위에서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고 남성은 고용주/자영자가 많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

무급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58분, 가족보살피기시간이 15분으로 가사노동시간이 무급노동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시간은 성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고령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42분에 불과한 반면, 고령여성은 2시간 43분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보살피기시간은 고령여성이 손주보살피기 등의 참여로 성별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고령남성이 11분, 고령여성이 17분으로 가사노동시간만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사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음식준비 및 정리에 1시간, 청소 및 정리에 28분, 의류관리에 16분, 기타 14분을 사용하고 있어 음식준비 및 정리와 청소 및 정리시간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시간의 구성은 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청소 및 정리와 기타(물품구입, 집관리, 가정경영) 활동의 구성비율이 높고, 여성은 음식준비 및 정리와 청소 및 정리 활동의 구성비율이 높다. 이는 고령층 여성은 식사준비, 세탁 등의 주된 가사노동을 남성보다 많

17) 고령층의 연령별 수면시간과 건강관리시간을 살펴보면 65~69세는 수면 641.5분, 건강관리 20.9분, 70세~75세는 수면 669.0분, 건강관리 30.1분, 76~79세는 수면 701.0분, 건강관리 38.7분, 80세 이상은 수면 770.1분, 건강관리 64.4분으로 나타난다.

이 담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가활동시간은 전체적으로 대중매체활동에 3시간 25분, 레저활동에 1시간 51분, 교제활동에 1시간 17분, 조직활동에 22분을 사용하고 있다. 각 중분류 여가활동 영역별 중요한 하위 행동영역의 시간량을 살펴보면 대중매체활동시간이 고령층 여가활동시간의 49.5%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대중매체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은 TV시청시간이다. 그리고 레저활동의 50%를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활동시간이 차지한다는 점과 조직활동의 대부분은 종교활동시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시간의 구성은 성별로 약간 다른데 남성들의 경우 대중매체활동과 레저활동시간이 여성보다 많고, 여성은 종교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제활동시간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지만 그 하위 행동영역별로는 약간 다른데 여성은 가족·친척과의 교제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남성은 레저활동시간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의 하위 생활영역별 행위자비율을 살펴보면 하루생활의 기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수면, 식사 및 간식활동에는 모든 고령남성과 여성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차이가 나는 행위자비율은 고령여성은 건강관리에의 참여자비율이 남성보다 4% 더 많고, 유급노동에 있어서는 시간량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의 행위자비율이,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일의 행위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무급노동도 시간량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동에서 고령남성보다 고령여성의 행위자비율이 높는데 특히 고령여성은 음식준비 및 정리에 78.5%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당히 높고, 고령남성들은 청소 및 정리의 행위자 비율이 36.4%로 약간 높다. 여가활동에서는 고령여성들이 고령남성보다 종교활동과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활동에의 행위자비율이 높고, 고령남성은 고령여성보다 시간량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던 유흥에의 행위자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고령층 여성과 남성이 하루 동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에서 개인유지·무급노동의 중분류, 유급노동과 이동, 그리고 여가행동의 소분류 행동 중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행동순서를 살펴보았다. <표 IV-39>가 그 결과이다.

〈표 IV-39〉 고령여성과 남성이 선택한 행동의 종류와 시간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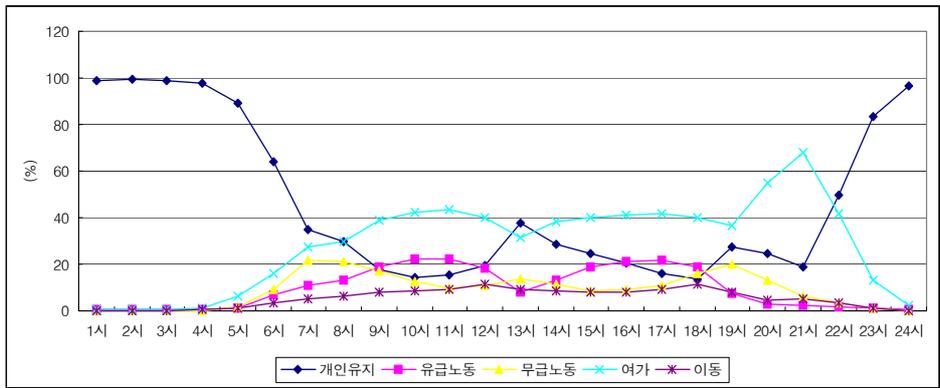
순위	남성	여성
1	수면(509.8)	수면(514.5)
2	TV시청(215.3)	TV시청(181.3)
3	유급노동(166.7)	유급노동(125.3)
4	식사(95.1)	식사(90.4)
5	이동(73.2)	음식준비 및 정리(89.2)
6	아무것도 안하고 쉽(46.7)	아무것도 안하고 쉽(59.4)
7	그 외 사람들과의 교체(46.3)	그 외 사람들과의 교체(55.9)
8	개인관리(44.0)	이동(54.9)
9	건강관리(31.4)	개인관리(38.3)
10	걷기·산책(28.0)	청소 및 정리(35.7)
11	놀이(바둑·장기)(20.9)	건강관리(33.6)
12	청소 및 정리(15.2)	의류관리(24.3)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고령층은 수면과 TV시청이 하루 일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행동이다. 다음은 유급노동에 2~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식사에 매 끼니마다 30분 정도씩을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아무것도 안하고 쉬거나 이웃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고령남성과 고령여성은 하루일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들이 이러한 활동들 이외에는 이동과 걷기·산책, 놀이 활동을 하는 반면 고령여성들은 이러한 활동들 이외에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고령층의 경우에도 수면, 식사, 유급노동, TV시청 등의 활동 이외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은 성역할 분담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시간대에 나타난 성별 행위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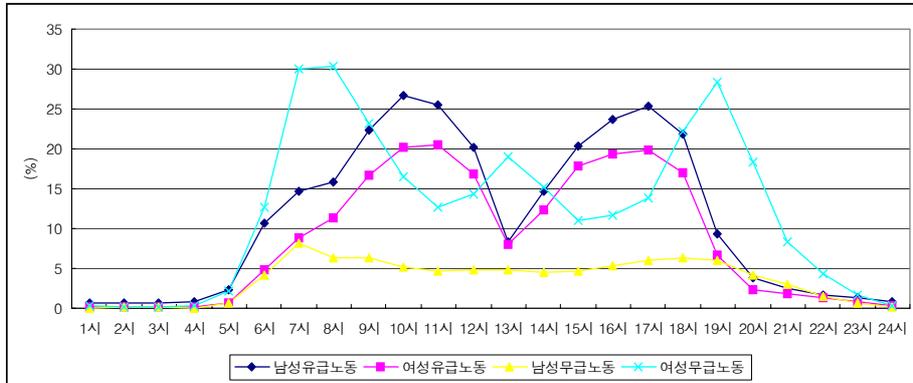
생활시간대별로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비율을 통해 고령층의 일상생활패턴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그림 IV-13>은 고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유지,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 이동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시간대별로 제시하

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층은 개인유지에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9시 이후를 중심으로 많이 참여하고,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은 오전 7시 이후부터 오후 7시까지 주로 낮에 발생하며, 여가활동은 고령자층인 만큼 낮에도 유급노동이나 무급노동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주로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의 저녁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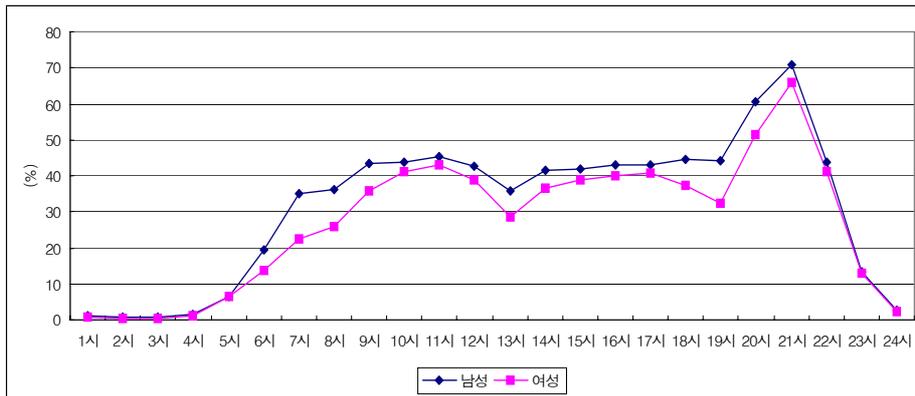


<그림 IV-13> 고령자 전체의 각종 활동 행위자 비율

다음으로 시간대별로 성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의 차이를 <그림 IV-14>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보면 유급노동의 경우 남성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길기 때문에 모든 시간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급노동 행위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급노동의 시간대별 행위자비율의 형태는 M자형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무급노동의 경우에는 고령 남성의 경우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모든 시간대에서 약 5%의 고른 참여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모든 시간대에서 남성보다 그 참여비율이 높으면서도 아침, 점심, 저녁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가사일의 대부분을 고령여성이 맡으며 특히 식사준비는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림 IV-14> 성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행위자 비율



<그림 IV-15> 성별 여가행동의 행위자비율

마지막으로 <그림 IV-15>를 통해 시간대별 여가활동의 행위자비율을 보면 여성의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에 남성보다 모든 시간대에서 여가활동 행위자비율이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고 고령남성과 고령여성이 같은 유형을 보인다. 단, 아침 7시, 점심 1시, 저녁 7시 경에만 남성보다 여성의 여가활동참여율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여성들의 무급노동행동 참여비율이 많아졌던 시간대로 무급노동활동과 여가활동 참여비율이 교환관계를 이루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주관적 시간의식

이 절에서는 고령층의 남성과 여성이 갖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초점을 두어 성별 차이를 살펴보겠다. 시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지 여부와 만약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여유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여유시간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여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IV-40>은 이러한 시간부족인식과 여유시간인식에 대한 고령층 남성과 여성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고령 남성은 28.9%, 고령 여성은 25%가 평소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노령층의 1/4이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미혼층과 기혼층의 시간부족인식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치이다. 즉 미혼층의 경우 남성의 73.7%, 여성의 77.0%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유배우자 남성의 72.9%, 여성의 70.7%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고령층 남성과 여성은 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일까?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여성은 일 때문에(66.3%),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22.1%),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3.7%), 시간관리를 잘못해서(2.8%),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2.8%), 기타(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일 때문에(75.0%),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10.3%),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7.3%), 기타(2.8%), 시간관리를 잘못해서(2.6%),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1.9%)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성과 여성 모두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남성의 85.3%, 여성의 68.5%가 수입노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여 시간부족인식과 수입노동 사이에 많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부족이유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남성은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표 IV-40> 주관적 시간의식

(단위: 명(%))

		남성	여성
시간부족 인식	예, 항상	178 (11.1)	243 (9.0)
	예, 가끔	286 (17.8)	432 (16.0)
	아니오, 거의	567 (35.4)	971 (36.1)
	아니오, 전혀	572 (35.7)	1,047 (38.9)
합계		1,603 (100.0)	2,693 (100.0)
시간부족 이유	일(학습)때문에	348 (75.0)	447 (66.3)
	자녀양육 및 집안일때문에	48 (10.3)	149 (22.1)
	시간관리를 잘못해서	12 (2.6)	19 (2.8)
	교제 및 사회활동때문에	34 (7.3)	25 (3.7)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9 (1.9)	19 (2.8)
	기타	13 (2.8)	16 (2.4)
합계		464 (100.0)	675 (100.0)
여유시간 활용	예, 항상	136 (8.5)	221 (8.2)
	예, 가끔	420 (26.2)	644 (23.9)
	아니오, 거의	611 (38.1)	980 (36.4)
	아니오, 전혀	436 (27.2)	848 (31.5)
합계		1,603 (100.0)	2,693 (100.0)
여유시간 미활용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30 (23.4)	134 (15.5)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	60 (10.8)	96 (11.1)
	마땅히 갈곳이 없어서	181 (32.6)	218 (25.3)
	여유시간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40 (7.2)	108 (12.5)
	피곤하거나 아파서	135 (24.3)	90 (33.5)
	기타	10 (1.8)	19 (2.2)
합계		556 (100.0)	865 (100.0)

다음으로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남성은 34.7%, 여성은 31.1%의 고령층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령층의 3명 중 1명은 은퇴 후 많이 가지게 되는 여유시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32.6%), 피곤하거나 아파서(24.3%),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3.4%),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10.8%),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피곤하거나 아파서(33.5%),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25.3%),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5.5%),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12.5%),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1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 전체적으로는 신체적 노화현상에 따른 건강문제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우리사회의 노령층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의 부족이 고령층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생각된다. 여가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남성들은 경제적 문제로, 고령여성들은 건강문제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 여유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나타난다. 이는 고령여성의 나이가 많고 무배우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이 이러한 응답비율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다. 고령 여성의 일, 가족, 여가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고령여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고 생활시간량과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주관적 시간의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고령여성의 시간사용은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지역, 연령, 교육수준, 주거형태, 주당근무시간, 직종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 가족, 여가와 관련된 고령여성 집단 내의 생활시간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시간량으로 나타나는 고령여성 집단 내의 차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앞으로 이러한 집단의 구체적인 차이를 찾아가는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1) 고령여성의 일과 가족

<표 IV-41>은 고령여성의 하위 집단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을 구성하는 가사노동시간과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역별로 유급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기타 도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여성들은 유급노동시간이 2시간 49분으로 서울/경기 거주여성의 1시간 7분, 6대 광역시 거주 여성의 1시간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기타 도지역의 경우 농가가 많아 수입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서울/경기/6대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비농가의 비율이 높고 수입노동에 참여하는 고령여성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¹⁸⁾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서울/경기 지역 3시간 21분, 6대 광역시 지역 2시간 55분, 기타 도지역 2시간 56분으로 나타나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여성들은 무급노동시간이 타 지역 고령여성보다 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는 약 25분 정도로 크지 않다.

<표 IV-41> 고령여성의 생활시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시간 : 분)

구 분		유급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가족 보살피기
전체평균		2:05	3:00	2:43	0:17
지역	서울/경기	1:07	3:21	2:59	0:22
	6대광역시	1:00	2:55	2:36	0:19
	기타 도	2:49	2:56	2:41	0:14
농가구분	농가	4:26	2:42	2:32	0:10
	비농가	1:13	3:06	2:47	0:19
연령	65~69세	2:50	3:35	3:13	0:21
	70~74세	2:06	3:15	2:52	0:23
	74~79세	1:40	2:37	2:30	0:07
	80세 이상	0:57	1:45	1:37	0:08
주택종류	단독	2:30	2:58	2:44	0:15
	아파트	0:24	3:09	2:43	0:26
	연립/다세대/기타	1:15	2:56	2:34	0:22
주거 점유형태	자가	2:19	2:57	2:41	0:16
	전월세 및 기타	1:08	3:10	2:50	0:21

(계속)

18)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비농가의 비율이 88.4%, 6대광역시 지역에서는 비농가의 비율이 93.2%로 나타나는 반면 기타 도 지역에서는 농가 41.9%, 비농가 58.1%의 비율로 나타난다.

구 분		유급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가족 보살피기
교육	무학	2:14	2:45	2:30	0:15
	초등이하	1:57	3:25	3:06	0:19
	중등이하	1:12	3:38	3:12	0:25
	고등이하	1:06	3:43	3:31	0:13
	초대졸이상	0:29	4:18	3:19	0:58
혼인상태	유배우자	2:45	3:48	3:26	0:22
	무배우자	1:48	2:38	2:24	0:14
가구형태	1인가구	2:20	2:58	2:51	0:07
	부부가구	2:53	3:57	3:43	0:14
	기타	1:46	2:43	2:22	0:21
수입노동	있다	5:17	2:44	2:34	0:10
	없다	0:26	3:08	2:47	0:20
주당근무 시간	35시간 이하	4:05	2:46	2:35	0:11
	36시간 이상	6:15	2:42	2:33	0:09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4:17	2:52	2:49	0:03
	서비스/판매	5:30	2:38	2:24	0:14
	농림어업	5:10	2:47	2:38	0:09
	기능/생산/단순노무	5:34	2:37	2:27	0:1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47	2:42	2:29	0:13
	고용주/자영자	5:35	2:41	2:34	0:07
	무급가족종사자	4:53	2:47	2:36	0:11

농가여부별로 먼저 유급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농가의 유급노동시간이 4시간 26분으로 비농가의 1시간 13분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표 IV-36>에서 수입노동에 참여한 고령층의 대부분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경우 농가의 경우 80.4%가 수입노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비농가는 16.7%만이 수입노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점과 관련된다.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농가 고령층 여성은 2시간 42분, 비농가 고령층 여성은 3시간 6분으로 비농가여성이 약 24분정도 길다. 하지만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 결국 경제활동에 참여한 고령여성, 특히 농가의 고령여성들은 고령층이 되어서도 유급노동에 계속 참여하게 되고 이에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총부담이 고령임에도 7시간 8분에 이르러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급노동시간은 64~69세 2시간 50분, 70~74세 2시간 6분,

75~79세 1시간 40분, 80세 이상 57분으로 나타나 연령증가와 함께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한다. 연령별 무급노동시간은 64~69세 3시간 35분, 70~74세 3시간 15분, 75~79세 2시간 37분, 80세 이상 1시간 45분으로 나타나 유급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한다. 결국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모두 연령증가와 함께 모두 감소하는데 이는 연령과 함께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활동의 제약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하지만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총시간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64~69세 6시간 25분, 70~74세 5시간 21분, 75~79세 4시간 17분, 80세 이상 2시간 42분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은퇴하여 노동하지 않는 집단이고, 사회적 부양대상으로 인식되지만 여성은 고령층이 되어서도 '노동으로부터의 은퇴'나 '사회적 부양대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종류별로 유급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단독주택거주자 2시간 30분,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 1시간 15분, 아파트 거주자는 24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농가의 단독주택비율이 98.9%에 이르고, 비농가는 단독주택이 68.5%, 아파트 19.8%,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11.7%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무급노동시간은 아파트거주자가 3시간 9분으로 가장 길고 단독주택거주자는 2시간 58분,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는 2시간 56분으로 나타나 유급노동시간만큼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주거점유형태별로는 자가소유자의 유급노동시간이 2시간 19분으로 전월세자의 1시간 8분보다 월등히 많다. 이러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농가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농가의 경우 자가가 96.3%이지만 비농가의 경우에는 자가의 비율이 75.1%이다. 무급노동시간은 전월세자가 3시간 10분으로 자가소유자의 2시간 57분보다 약간 많다.

교육수준별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루평균 무학 2시간 14분, 초등 이하 1시간 57분, 중등이하 1시간 12분, 고등이하 1시간 6분, 대학이상은 29분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진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청장년기에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이에 고령층이 되어서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면서 유급노동에 참여할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노령층의 교육수준별 수입노동의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무학 36.2%, 초졸이하 31.6%, 중졸이하 27.1%, 고졸이하 20.6%, 대학이상 5.6%로 반비례하고 있었다. 이는 인적자본이 생

애과정에 따라 누적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 생활시간에 나타난 것이다. 반면 교육수준에 따른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는 무학 2시간 45분, 초등이하 3시간 25분, 중등이하 3시간 38분, 고등이하 3시간 43분, 대학이상 4시간 18분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무급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무급노동시간을 이루는 가사노동시간도 학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보살피기시간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령여성의 경우 58분에 이르고 있다.¹⁹⁾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각각 2시간 45분과 3시간 48분으로 무배우자의 1시간 48분과 2시간 38분보다 모두 길게 나타난다. 이는 유배우자의 연령이 무배우자의 연령보다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자료에서 유배우자의 상태에 있는 56.9%가 65~69세이고, 27.4%가 70~74세, 12.0%가 75~79세이며, 80세 이상은 3.7%만이 유배우자의 상태에 있었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1인가구나 기타 2, 3세대를 이루는 가구보다 더 많다. 부부가구의 유급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은 이들의 연령이 다른 가구형태의 고령층 여성보다 더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본 자료에서 부부가구를 이루는 여성의 56.7%가 65~69세에 해당된다. 또한 고령층여성이 부부가구를 이룰 경우 배우자를 돌보아야할 뿐 아니라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급노동시간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부터는 수입노동의 여부와 경제활동 형태에 따라 여성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수입노동이 있는 경우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5시간 17분이다. 하지만 무급노동시간은 수입노동이 있는 경우 2시간 44분으로 수입노동이 없는 여성보다 약 25분 정도만 적다.²⁰⁾ 수입노동이

19)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령여성 18명의 가족보살피기시간은 대부분 배우자보살피기 10.0분, 부모 및 조부모보살피기 22.3분, 그 외 가족보살피기 23.9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아래의 표에서 수입노동여부와 가구형태(1인단독가구와 동거가구원이 있는 경우로 구분)에 따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듯이 수입노동이 있는 고령여성의 경우에는 1인가구보다 다른 동거가구원이 있을 때 수입노동이 13분정도 감소하고 무급노동에서 가족보살피기시간이 11분정도 더 증가한다, 하지만 수입노동이 없는 고령여성의 경우에는 동거가구원이 있을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3.6분 줄고, 특히 가사노동시간은 17.6분이나 감소하고 있다. 단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13.9분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고령여성은 동거가구원과 함께 사는 경우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있다고 응답한 고령여성의 주당근무시간에 따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당 36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평균 6시간 15분의 유급노동을 하고,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평균 4시간 5분 유급노동을 한다. 하지만 무급노동시간에 있어서는 주당 36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평균 2시간 42분을 수행하고,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평균 2시간 46분을 수행하여 이들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고령여성들은 수입노동의 참여여부 및 유급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무급노동시간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총노동시간의 길이를 살펴보면 수입노동에 참여한 고령여성은 하루평균 8시간 1분, 그 중에서도 주당 36시간 이상 수입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여성은 하루평균 8시간 57분을 노동하고 있어 그 노동시간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직종과 종사상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기능/생산/단순노무직의 유급노동시간이 5시간 34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은 서비스/판매직으로 5시간 30분으로 나타난다. 농림어업종사자는 5시간 10분정도이며 관리/전문/기술/사무직은 4시간 17분으로 다른 직종보다 유급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난다. 무급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이 적었던 관리/전문/기술/사무직과 농림어업종사자들이 다른 직종보다 10~20여분 많아질 뿐이다.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순으로 유급노동시간이 길고 무급노동시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결국 고령층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에만 영향을 미칠 뿐 무급노동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고령층이 되어서도 여성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무급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고령여성의 하위집단별 일과 가족 생활시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고령층 여성의 생활시간은 수입노동여부 및 수입노동시간의 길이와 많은 관계를 가지는데 고령층의 수입노동여부는 농가와 비농가 그리고 이들의 신체적,

수입노동	가구형태	유급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있다	1인가구	327.0	153.0	151.6	1.5
	동거가구	313.8	167.1	154.6	12.4
없다	1인가구	41.3	190.5	181.0	9.6
	동거가구	21.9	186.9	163.4	23.5

정신적 제약성과 관계가 있는 연령에 따른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 IV-42>이다.

<표 IV-42>에서 보듯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모두 감소한다. 하지만 수입노동이 있는 여성들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그 외의 직업에 종사는 여성들의 유급노동시간이 더 긴데 이들은 연령이 증가하여도 유급노동시간이 많이 줄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무급노동시간은 수입노동이 없는 여성들이 79세까지는 길지만 80세 이상이 되면 수입노동활동을 하는 여성과 같아진다.

<표 IV-42> 고령여성의 하위집단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시간 : 분)

수입노동 직종	있다						없다		
	농업			기타					
연령	65-69	70-79	80+	65-69	79-79	80+	65-69	70-79	80+
유급노동	5:29	5:07	3:51	5:35	5:29	4:53	0:26	0:29	0:20
무급노동	3:14	2:30	1:46	2:46	2:32	2:00	4:02	3:11	1:44
유급+무급	8:43	7:37	5:37	8:21	8:01	6:53	4:28	3:40	2:04

결국 수입노동에 참여한 고령여성들은 70대까지 하루 8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여 이들에게 은퇴한 고령자들의 여유로운 삶과 가족과 사회의 부양에 기대어 살아가는 계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고령여성들은 무급노동을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은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여성의 나이듦에 대해서는 남성과 다른 시각에서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고령여성의 여가

<표 IV-43>은 고령여성의 하위 집단별 여가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43〉 고령여성의 생활시간: 여가시간

(시간: 분)

구 분		여가시간 전체	조직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	레저활동
전체평균		6:30	0:28	1:17	3:05	1:40
지역	서울/경기	7:12	0:34	1:18	3:33	1:48
	6대광역시	7:23	0:34	1:26	3:25	1:58
	기타	5:57	0:24	1:13	2:49	1:30
농가구분	농가	4:45	0:13	1:01	2:13	1:18
	비농가	7:09	0:34	1:23	3:24	1:48
연령	65~69세	5:37	0:29	1:09	2:41	1:18
	70~74세	6:21	0:34	1:17	2:59	1:32
	74~79세	7:10	0:25	1:27	3:23	1:55
	80세 이상	7:55	0:22	1:20	3:49	2:24
주택종류	단독	6:12	0:24	1:16	2:55	1:37
	아파트	7:43	0:46	1:24	3:37	1:55
	연립/다세대/기타	7:16	0:38	1:10	3:46	1:43
주거 점유형태	자가	6:20	0:26	1:15	3:01	1:38
	전월세 및 기타	7:15	0:38	1:23	3:25	1:50
교육	무학	6:27	0:23	1:19	3:01	1:45
	초등이하	6:30	0:37	1:13	3:09	1:31
	중등이하	7:02	0:52	1:10	3:38	1:22
	고등이하	7:05	0:50	1:03	3:25	1:47
	초대졸이상	7:10	0:51	1:07	3:50	1:24
혼인상태	유배우자	5:21	0:23	1:03	2:39	1:16
	무배우자	7:01	0:31	1:23	3:17	1:51
가구형태	1인가구	6:22	0:33	1:32	2:38	1:39
	부부가구	5:07	0:23	1:00	2:30	1:15
	기타(2세대, 3세대 등)	6:48	0:28	1:16	3:26	1:48
수입노동	있다	4:16	0:17	0:55	2:04	1:01
	없다	7:30	0:34	1:28	3:37	2:00
주당근무 시간	35시간 이하	5:14	0:18	1:08	2:27	1:21
	36시간 이상	3:29	0:15	0:44	1:45	0:45
직종	관리/전문/기술/사무	5:12	0:30	1:42	1:50	1:11
	서비스/판매	4:37	0:20	0:54	2:26	0:57
	농림어업	4:14	0:16	0:54	2:00	1:04
	기능/생산/단순노무	4:06	0:16	0:54	2:01	0:5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50	0:15	0:53	1:55	0:47
	고용주/자영자	4:05	0:22	1:00	1:52	0:52
	무급가족종사자	4:32	0:14	0:52	2:15	1:13

먼저, 지역별로 전체적인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경기는 7시간 12분, 6대광역시는 7시간 23분으로 기타 도지역 고령여성들의 5시간 57분보다 여가시간이 길다. 이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기타 도지역은 농가가 많아 고령여성이 수입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이에 여가시간이 적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가시간의 하위범주별 차이를 볼 때 특징적인 점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여성들의 여가시간이 6대광역시 거주여성들의 여가시간보다 10여분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시간은 약간 더 길다는 점이다.

농가여부별로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농가가 4시간 45분, 비농가가 7시간 9분으로 농가여성이 비농가여성보다 무려 2시간 23분 더 적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는 농가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여가시간의 하위범주별 여가시간의 구성에 있어서는 농가와 비농가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연령대별로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연령증가에 따라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였던 것과 교환관계를 이루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가시간의 하위범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적교제시간, 대중매체시간, 레저활동시간은 전체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연령증가에 따라 이 시간들이 증가하지만 조직활동시간은 70~74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활동제약으로 인해 75세 이상의 고령여성은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택종류에 따라서는 아파트거주자의 여가시간이 7시간 43분으로 다른 주택종류의 거주자보다 길게 나타난다. 이는 앞에서 아파트거주자의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적었던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아파트 거주자는 여가시간의 하위범주에서 대중매체활동시간이 다세대/연립주택거주자보다 더 적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거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전월세자의 여가시간이 7시간 15분으로 자가 소유자의 6시간 20분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다. 이는 농가의 자가 소유 비율이 높고 유급노동시간이 길었던 것과 관계된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는 앞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였던 것과 교환관계를 이루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가시간의 하위범주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시간을 살펴볼 때 흥미로운 점은 조직활동, 대중매체활동은 전체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길어지지만 사적교제활동시간은 학력이 낮을수록 길어진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가 친구 및 이웃, 가족 중심으로 한정되어 나타남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레저활동시간은 학력에 따른 일관된 변화를 읽을 수 없고 무학과 고졸집단이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별로 무배우자의 여가시간 7시간 1분으로 유배우자의 5시간 21분보다 길다. 이것은 무배우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수입노동참여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구형태별로 나타나는 여가시간의 차이는 단독가구 6시간 22분, 부부가구 5시간 7분, 기타가구 6시간 48분으로 부부가구의 여가시간이 가장 적다. 이는 부부가구의 연령이 낮고 수입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입노동여부에 따라서는 수입노동이 있는 여성은 수입노동이 없는 여성보다 약 3시간 14분 여가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당 수입노동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여성은 35시간 이하인 여성보다 1시간 45분 정도 여가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고령층여성도 수입노동의 참여여부 및 수입노동의 길이에 따라 여가시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기술직을 가진 여성의 여가시간이 다른 직종을 가진 여성보다 많다. 이에 이들의 조직활동, 교제활동, 레저활동이 다른 직종을 가진 여성들보다 많다. 특히 이들은 교제활동시간이 1시간 42분으로 다른 직종을 가진 여성들보다 많고, 대중매체활동시간은 다른 직종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여가시간이 4시간 32분으로 가장 길고 임금근로자의 여가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난다. 여가시간의 하위범주별로는 고용주/자영자들의 경우 사적교제활동이 다른 종사상지위자들보다 긴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자영자들의 경우 가게를 중심으로 이웃과 친교를 나누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령여성의 여가시간을 하루 동안 참여한 여가행동의 종류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음 <표 IV-44>는 '생활시간조사'에 제시된 49개의 소분류

여가행동 중에서 고령여성들이 하루 동안 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행동의 종류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여가행동의 종류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고령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를 보면 TV시청활동은 91.3%가 하루 동안 한번이라도 선택하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고령층의 여가활동에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활동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활동, 가족·친척과의 교제활동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 여성들이 활동제약으로 인하여 집에서 이웃 및 친구, 가족들과 만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걷기, 산책이나 종교활동, 바둑·장기 등의 놀이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44> 고령여성이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와 여가행동 시간

순위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	선택비율 (%)	선택한 여가행동의 시간	시간량 (분)
1	TV시청	91.3	TV시청	181.3
2	아무것도 안하고 쉬	62.1	아무것도 안하고 쉬	59.4
3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50.3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55.9
4	걷기, 산책	21.8	걷기, 산책	14.6
5	가족·친척과의 교제	21.3	가족·친척과의 교제	14.2
6	교제관련 전화통화	15.6	놀이(바둑, 장기 등)	12.5
7	개인적 종교활동	11.6	개인적 종교활동	11.8
8	종교집회, 모임 참가	9.0	종교집회, 모임 참가	10.6
9	놀이(바둑, 장기 등)	8.5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4.0
10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4.9	교제관련 전화통화	3.7
11	라디오청취	3.3	라디오청취	2.7
12	담배피우기	3.3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2.3

다음으로 고령여성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여가행동의 종류를 보면 TV시청활동이 181.3분으로 전체 여가활동시간의 46.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고

령층 여성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 여가활동은 아무것도 안하고 쉬,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걷기·산책, 가족·친척들과의 교제 순으로 나타나 하루 동안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와 일치한다.

라.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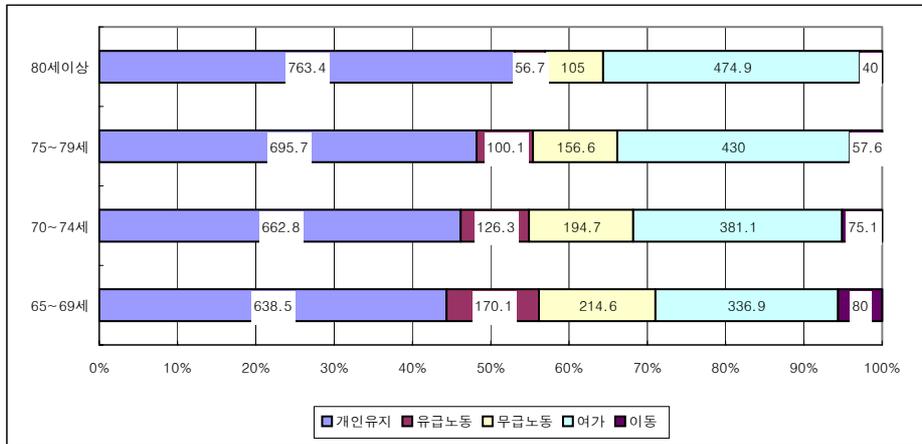
전반적인 고령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고령여성층은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가 낮아져 수적으로 우세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사회의 발전과 활력에 중요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성별 연령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상태와 가구형태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 혼인상태에서 남성의 경우 유배우자의 비율이 87.2%에 이르지만 여성은 30.3%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고령여성들의 경우 고령남성보다 1인 단독가구나 2세대나 3세대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고령남성은 고령여성보다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층의 대부분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의 학교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매우 낮았는데 특히 고령 여성은 93.7%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열악한 인적자본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노동에 참여한 고령층의 대다수가 자영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단순노무직이나 농업·어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경제활동 상황이 열악하였다. 또한 고령층에서도 여전히 남성의 사회적 일과 여성의 가족 일 분담이 계속되어 여성보다 남성의 수입노동 참여비율과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여성은 수입노동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남성의 자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가족 내 무급의 노동력 제공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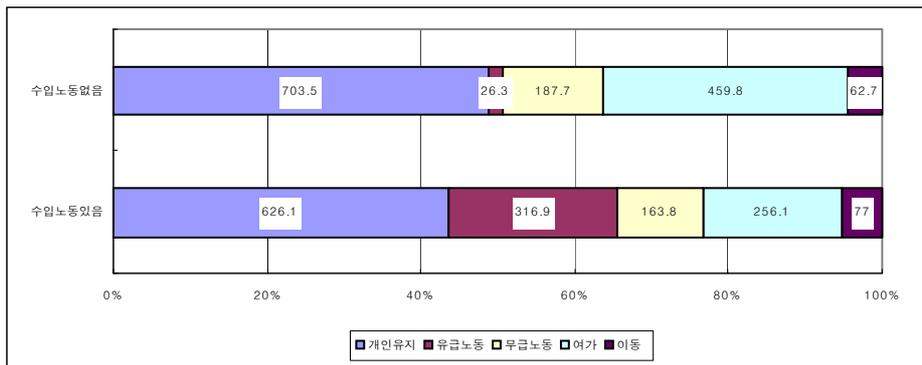
고령층의 전체적인 하루생활을 그려보면 고령층은 수면(8시간 33분)과 TV시청(3시간 10분)이 하루 일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행동이다. 다음은 유급노동에 2시간 21분을 할애하고 식사에 매 끼니마다 30분 정도씩을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하고 쉬거나 이웃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다. 물론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간들이 좀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층의 하루생활시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점은 첫째, 미혼층이나 기혼층과 비교하여 개인유지시간이나 여가시간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유지시간 중에서도 수면시간과 건강관리시간이 개인유지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체적인 노쇠에서 오는 생물학적 변화가 고령층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요일별 생활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 요일에 관계없이 하루의 일상생활이 전개되고 있어 산업사회의 주기적 시간리듬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셋째, 고령남성과 고령여성은 하루일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들이 수면, 식사, 유급노동, TV시청 등의 활동들 이외에는 이동과 걷기·산책, 놀이 활동을 하는 반면 고령여성들은 이러한 활동들 이외에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고령층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은 성역할 분담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넷째, 고령층의 3명 중 1명은 은퇴 후 많이 가지게 되는 여유시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여가시간의 대부분도 TV시청시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활동, 가족·친족과의 교체시간으로 여가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고령층은 주관적으로도 신체적 제약과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건강관리시설을 겸비한 노인들의 여가활동공간에 대한 고령층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령여성의 하위집단별 일과 가족, 여가 생활시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고령층 여성의 생활시간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제약성과 관계가 있는 연령에 따른 많은 차이를 가질 뿐 아니라 수입노동여부 및 수입노동시간의 길이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IV-16> 연령별 하루생활시간의 구조



<그림 IV-17> 수입노동여부에 따른 하루생활시간의 구조

<그림 IV-16>에서 보듯이 고령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유지와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하고, 유급노동, 무급노동, 이동활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그림 IV-17>에서 수입노동이 있는 고령여성과 수입노동이 없는 고령여성의 하루 생활 시간을 비교해 보면 수입노동이 있는 경우 개인유지, 여가활동시간이 많이 감소하고, 무급노동시간도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령여성의 하위집단별 하루생활시간으로부터 나타난 특징적인 점은 먼

저,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은퇴하여 노동하지 않는 집단이고, 사회적 부양대상으로 인식되지만 여성은 고령층이 되어서도 '노동으로부터의 은퇴'나 '사회적 부양대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총노동시간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64~69세 6시간 25분, 70~74세 5시간 21분, 75~79세 4시간 17분, 80세 이상 2시간 42분으로 나타나고, 수입노동에 참여한 고령여성은 하루평균 8시간 1분, 그 중에서도 주당 36시간 이상 수입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여성은 하루평균 8시간 57분을 노동하고 있어 그 노동시간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령층여성의 수입노동참여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에만 영향을 미칠 뿐 무급노동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령여성은 수입노동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무급노동을 하루평균 3시간정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층이 되어서도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할 경우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며, 성별 역할분담의 원리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과 여성의 나이듦에 대해서는 남성과 다른 시각에서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청장년기에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이에 고령층이 되어서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면서 유급노동에 참여할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인적자본이 생애과정에 따라 누적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 생활시간에 나타난 것을 의미하며 이후 생애과정에 따른 인적자본의 누적효과가 고령여성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이혼 여성의 생활세계

가.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생활시간조사 42,973명 중에서 미혼은 13,823명(32.2%), 유배우자는 25,203명(58.7%), 사별은 3,297명(7.7%), 이혼은 630명(1.5%)이 조사되었다. 이 장에서 이혼자 집단으로 분석되는 여성은 355명의 710개 시간일기, 남성은 275명의 550개 시간일기로 여성이 남성보다 80명 많으며 총 1,260개의 시간일기가 분석되었다. 이혼남성과 이혼여성 모두 평일 60%,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20%정도씩 조사되어 조사된 요일에 있어 성별 표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분포는 ‘생활시간조사’ 전체 응답자의 조사요일별 분포와도 일치한다.

이혼 여성과 이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분포는 다음 <표 IV-45>와 같다. 이혼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로 비교함으로써 이혼한 남녀가 각각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짐작해 보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일상생활의 형태는 어떤 다양성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표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기타 도지역 거주자가 43%로 가장 많고 다음이 6대 광역시 32.4%, 서울/경기 24.7%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타 도지역 33.5%, 서울/경기 20.3%로 나타났다. 기존 통계에서 지역별 이혼자의 비율을 보면 2000년 현재 남성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42.0%, 6대 광역시 28.6%, 기타 도지역 29.4%이고, 여성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46.1%, 6대 광역시 30.2%, 기타 도지역 23.7%이다(통계청 DB, 인구주택총조사). 결국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된 이혼자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과소표집되고 6대 광역시와 기타 도지역 거주자가 과대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분포는 남녀 모두 20대의 비율이 남성 2.2%, 여성 6.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40대의 비율은 남성 45.8%, 여성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30대는 남성이 24.7%, 여성이 25.9%이고 50대이상은 남성이 27.3%, 여성이 24.8%로 나타난다. 또한 남성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이혼자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적고 40대와 50대에서는 남성의 이혼자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다. 이는 혼인당시 남성의 연령이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주거형태별로는 남성의 자가비율이 45%로 여성의 자가비율 30%보다 높아 이혼 남성들의 주거안정도가 이혼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혼자의 성별 주거형태의 차이는 이혼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겪는 어려움과 함께 주거생활비가 큰 한국사회에서 이혼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남녀모두 고졸의 학력자가 남성 37.5%, 여성 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고졸이하의 학력자가 이혼자 전체의 비율에서 남성은 87%, 여성의 경우에는 92%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남성은 13%, 여성은 8%에 불과하다. 2000년 현재 15세 이상자 중에서 대학이상 졸업자가 남성은 23.8%, 여성은 16.6%로 나타난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국 이혼자들의 교육수준은 전체인구의 학력분포보다 대학이상졸업자가 더 적어서 저학력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혼인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경제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수입도 적을 뿐 아니라 이에 가족의 불안정한 경제상태가 이혼을 유발할 확률도 더 높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현재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혼한 여성과 남성은 83%이상이 독립가구를 형성하여 가구주로 기록되고 있다. 이혼을 한 후 친가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경우는 남성이 11%, 여성이 6%로 남성이 더 많다. 이는 남성의 경우 가족 일을 일차적 책임으로 맡아본 경험이 여성보다 적기 때문에 이혼 후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족을 꾸려가기가 여성보다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IV-45> 이혼 여성과 이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남성 (N=275)	여성 (N=355)
지역	서울/경기	68 (24.7)	72 (20.3)
	6대광역시	89 (32.4)	164 (46.2)
	기타	118 (42.9)	119 (33.5)
조사요일	평 일	171 (62.0)	213 (60.0)
	토요일	56 (20.6)	72 (20.3)
	일요일	48 (17.5)	70 (19.7)
연령	29세 이하	6 (2.2)	22 (6.2)
	30 ~ 39세	68 (24.7)	92 (25.9)
	40 ~ 49세	126 (45.8)	153 (43.1)
	50세 이상	75 (27.3)	88 (24.8)
주거 점유형태	자가	124 (45.1)	106 (29.9)
	전월세 및 기타	151 (54.9)	249 (70.1)
교육	무학	7 (2.6)	19 (5.4)
	초등이하	65 (23.6)	68 (19.2)
	중등이하	65 (23.6)	76 (21.4)
	고등이하	103 (37.5)	163 (45.9)
	대학이상	35 (12.8)	29 (8.2)
가구형태	단독가구	77 (28.0)	129 (36.3)
	본인+미혼자녀	79 (28.7)	135 (38.0)
	기타	119 (43.3)	91 (25.6)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27 (82.6)	304 (85.6)
	기혼자녀	30 (10.9)	22 (6.2)
	부모	3 (1.1)	9 (2.5)
	기타	15 (5.5)	20 (5.6)
미취학아동	있다	29 (10.6)	28 (7.9)
	없다	246 (89.5)	327 (92.1)
수입노동	있다	196 (71.3)	243 (68.5)
	없다	79 (28.7)	112 (31.6)
주당근무시간	35시간 이하	28 (14.3)	26 (10.7)
	36시간 이상	168 (85.7)	217 (89.3)
직종	관리/전문직	9 (4.6)	5 (2.1)
	기술/사무직	19 (9.7)	23 (9.5)
	서비스/판매직	22 (11.2)	157 (64.6)
	기능/생산/단순노무	146 (74.5)	58 (23.9)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134 (68.4)	161 (66.3)
	고용주/자영자	57 (29.1)	81 (33.3)
	무급가족종사자	5 (2.6)	1 (0.4)

가구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혼 후 혼자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남성은 28%, 여성은 36%로 여성이 더 많고,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남성이 29%, 여성이 38%로 여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남성은 제3자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43.3%로 여성의 25.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이혼여성의 경우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부담과 함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남성보다 더 많이 부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취학아동의 유무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가 남성은 11%, 여성은 8%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이혼집단의 경제적인 활동상태를 수입노동여부와 수입노동을 한 경우 주당 노동시간, 현 직종과 종사상지위를 통해 살펴보았다. 수입노동여부를 보면 남성은 71%, 여성은 69%가 수입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수입노동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없는 것은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혼여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고 결국 생계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주당근무시간의 성별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의 경우 86%, 여성의 경우 89%로 오히려 여성의 경우가 더 높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75%가 기능/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다음은 서비스/판매직 11.2%, 기술/사무직 9.7%, 관리/전문직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생산/단순노무직의 높은 비율은 이혼남성의 열악한 경제적 위치를 보여주며 앞에서 살펴본 이들의 낮은 학력수준과도 연결되면서 남성의 경제적 위치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성은 65%가 서비스/판매직에서 종사하고, 24%는 기능/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이혼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주로 단순노무직이나 판매 및 영업 관련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장혜경 외, 2002)는 연구결과와 같다. 결국 이혼여성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지만 저임금 비숙련직종에 종사하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사상지위에 나타나는 성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근

로자의 비율이 66%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용주/자영자의 비율이 남성은 29%, 여성은 33%로 여성이 약간 높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성의 경우 2.6%로 여성의 0.4%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남성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남성은 경제활동의 대표자로,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기록되지만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스스로 경제활동의 대표자로 기록되기 때문일 것이다.

나. 이혼 여성과 이혼 남성의 생활시간

1) 이혼여성과 이혼남성의 생활시간 분포

이 절에서는 이혼자의 각종 생활영역과 활동에 쓰는 시간량의 차이를 남성과 여성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루 생활시간의 평균은 이혼여성 355명과 남성 275명의 이틀 분 시간일기 총 1,260개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IV-46>은 대분류의 생활영역에 따라 남녀 이혼자의 평균 하루 생활시간량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혼자들은 개인유지에 10시간 25분, 유급노동에 5시간 7분, 무급노동에 1시간 48분, 여가활동에 5시간 1분, 이동에 1시간 39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24시간(1440분)의 하루 시간 중에서 개인유지에 43.4%, 유급노동에 21.3%, 무급노동에 7.5%, 여가활동에 20.9%, 이동에 6.9%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자 전체의 이러한 생활시간사용은 요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평일에는 유급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보다 약간 더 길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평일보다 개인유지시간,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이 약간 길어지고 있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들의 성별 생활시간사용 차이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개인유지, 유급노동, 여가활동, 이동시간이 길고, 여성은 남성보다 무급노동시간만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개인유지, 유급노동, 이동시간이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개인유지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6분, 유급노동시간은 16분, 이동시간은 6분 더 길 뿐이어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 차이가 큰 시간은 무급노동시간과 여

가시간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무급노동시간이 1시간 19분 더 길고, 여가시간은 52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혼한다할지라도 성역할 사회화에 의해 여성은 무급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남성은 제3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미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46> 생활영역별 이혼남성과 이혼여성의 생활시간

(시간: 분(행위자비율))

구분	시간	남성	여성	전체평균
요일전체	개인유지	10:28(100.0)	10:23(100.0)	10:25(100.0)
	유급노동	5:16 (71.1)	5:00(63.4)	5:07 (66.8)
	무급노동	1:04 (66.6)	2:23 (91.7)	1:48 (80.7)
	여가	5:30 (99.5)	4:38 (97.6)	5:01 (98.4)
	이동	1:42 (94.6)	1:36 (94.9)	1:39 (94.8)
평일	개인유지	10:31(100.0)	10:09(100.0)	10:19(100.0)
	유급노동	5:17 (71.0)	5:27 (68.8)	5:22 (69.8)
	무급노동	1:00 (65.4)	2:21 (90.6)	1:45 (79.4)
	여가	5:24 (99.7)	4:28 (97.7)	4:53 (98.6)
	이동	1:48 (94.1)	1:36 (95.1)	1:41 (94.7)
토요일	개인유지	10:14(100.0)	10:45(100.0)	10:31(100.0)
	유급노동	5:34 (74.3)	4:29 (58.3)	4:57 (65.4)
	무급노동	1:16 (73.5)	2:23 (92.4)	1:54 (84.1)
	여가	5:28 (98.2)	4:47 (97.2)	5:05 (97.7)
	이동	1:29 (97.4)	1:36 (92.4)	1:33 (94.6)
일요일	개인유지	10:34(100.0)	10:41(100.0)	10:38(100.0)
	유급노동	4:54 (67.7)	4:12 (52.1)	4:29 (58.5)
	무급노동	1:02 (62.5)	2:28 (94.3)	1:53 (81.4)
	여가	5:54 (100.0)	5:01 (97.9)	5:23 (98.7)
	이동	1:36 (92.7)	1:39 (97.1)	1:38 (95.3)

이러한 생활시간의 성별 차이는 요일에 따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개인유지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22분 더 많이 가지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31분과 7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

급노동시간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남성이 5시간 17분, 여성이 5시간 27분으로 여성이 약간 길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1시간 5분, 43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평일과 비교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의 유급노동시간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데 이는 이혼자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단순노동직이나 판매/서비스 직종이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생계를 위해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일에 몰두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무급노동시간의 경우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길고 여가시간의 경우에는 모든 요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난다.

이혼자들의 대분류 생활영역별 행위자비율을 살펴보면 하루생활의 기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수면, 식사와 같은 개인유지활동에 모든 요일에, 모든 이혼남성과 여성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급노동활동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이혼 여성보다 이혼남성의 행위자비율이 약간 높다. 하지만 무급노동활동에는 모든 요일에서 이혼여성의 행위자비율이 이혼남성보다 높다. 그리고 성별 무급노동 행위자비율의 차이가 유급노동 행위자비율의 차이보다 크다. 이는 이혼여성은 이혼남성과 마찬가지로 유급노동활동에 많이 참여하지만, 남성은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무급노동에 여성만큼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행동과 이동행동에 있어서는 요일과 성별로 행위자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혼 남성과 여성의 대분류 행동별 생활시간의 차이를 하위 활동영역별 생활시간의 차이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위 활동영역별 이혼자 남녀의 생활시간은 다음의 <표 IV-47>에 나타나 있다.

<표 IV-47> 하위 활동영역별 이혼남성과 이혼여성의 생활시간

(시간: 분(행위자비율))

구분	시간	남성	여성	전체평균
개인유지	수면	8:02(100.0)	7:38(100.0)	7:48(100.0)
	식사 및 간식	1:31(100.0)	1:27(100.0)	1:29(100.0)
	개인관리	0:46 (98.4)	1:08 (97.9)	0:58 (98.1)
	건강관리	0:10 (7.6)	0:10 (9.2)	0:10 (8.5)
유급노동	고용된 일 및 자영업	4:58 (63.3)	4:52 (59.6)	4:54 (61.2)
	무급가족종사일	0:09 (2.7)	0:02 (0.3)	0:05 (1.4)
	기타	0:10 (8.2)	0:07 (10.7)	0:08 (9.6)
무급노동	가사노동	0:58 (63.1)	2:09 (90.6)	1:38 (78.6)
	- 음식준비 및 정리	0:27 (44.7)	1:04 (81.0)	0:48 (65.2)
	- 의류관리	0:07 (17.6)	0:21 (47.8)	0:15 (34.6)
	- 청소 및 정리	0:13 (37.5)	0:27 (65.2)	0:21 (53.1)
	- 기타 (물품구입 등)	0:10 (14.0)	0:16 (32.0)	0:14 (24.1)
	가족보살피기	0:06 (14.4)	0:14 (22.5)	0:11 (19.0)
여가	조직활동	0:07 (3.8)	0:28 (15.1)	0:19 (10.2)
	- 종교활동	0:02 (1.6)	0:23 (11.6)	0:14 (7.2)
	교제활동	1:06 (62.4)	1:01 (70.6)	1:03 (67.0)
	대중매체활동	3:03 (91.5)	2:15 (87.2)	2:36 (89.1)
	- TV	2:45 (88.0)	2:03 (84.1)	2:21 (85.8)
	레저활동	1:15 (76.4)	0:54 (60.0)	1:03 (67.1)
이동	이동	1:42 (43.1)	1:36 (40.1)	1:39 (94.8)

주 : 여가시간의 중분류활동 즉 조직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활동, 레저활동의 합은 전체 여가시간이지만, 여가시간의 중분류활동의 하위범주는 이혼집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의 시간만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유지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시간의 대부분은 수면시간으로 이혼자 전체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8분이다. 개인유지시간에서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시간은 식사 및 간식시간으로 1시간 29분, 다음은 개인관리 시간으로 58분, 건강관리 시간 10분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면시간은 남성은 8시간 2분, 여성은 7시간 38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4분 길었다. 또한 개인관리 시간은 남성이 46분, 여성이 1시간 8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2분 길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식사 및 간식시간과 건강관리 시간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급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유급노동시간의 대부분은 고용된 일 및 자영업시간으로 전체평균 4시간 54분이며 남성은 4시간 58분 여성은 4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일은 남성이 9분, 여성이 2분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더 길며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던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급노동시간에서 이혼자 전체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시간 38분,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11분으로 구성되어 무급노동시간의 대부분은 가사노동시간이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58분, 여성은 2시간 9분이며 가족보살피기시간은 남성은 6분, 여성은 14분으로 나타나 모든 무급노동시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20~40대 기혼집단과 비교하여 보면 이혼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기혼남성보다 많지만 이혼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기혼여성 특히 취업기혼여성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²¹⁾ 또한 가사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음식준비 및 정리에 48분, 청소 및 정리에 21분, 의류관리에 15분, 기타 14분을 사용하고 있어 가사노동시간의 대부분은 음식준비와 정리, 청소 및 정리에 사용되고 있다.

여가시간의 경우에는 대중매체 활동이 2시간 36분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매체 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은 TV시청이 2시간 21분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은 레저활동 1시간 3분, 교제활동 1시간 3분이며, 조직활동이 19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성별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여가활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모두 길었지만 조직활동시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21분 더 길었다. 이는 조직활동시간에 종교활동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남성의 종교활동 시간은 하루평균 2분이고 여성은 23분으로 나타나 이혼여성의 종교활동시간이 월등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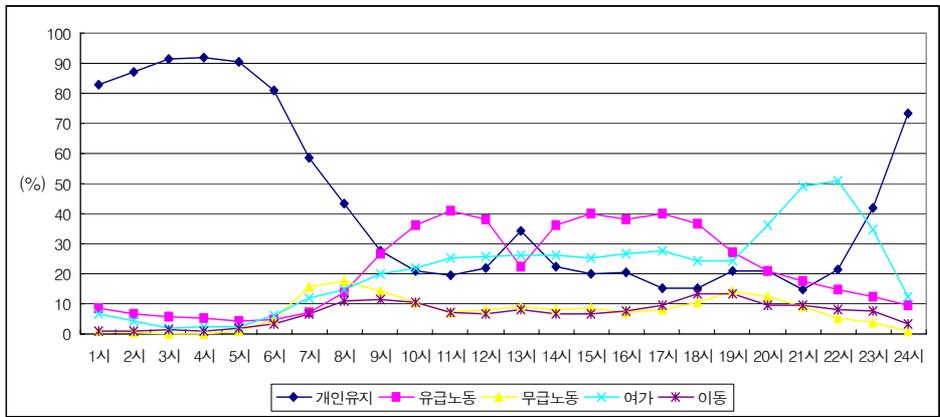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혼자들의 중·소분류 생활영역별 행위자비율을 살펴보면 수면과

21) 20~40대 기혼집단에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28분, 취업주부 3시간 41분, 전업주부 6시간 57분으로 나타난다.

식사활동에는 모든 이혼남성과 여성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유지활동 중에서 이혼여성의 건강관리에의 행위자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이혼여성과 남성 간에는 유급노동에서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서의 행위자비율도 시간량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급노동에 있어서는 모든 중·소분류행동에서 여성의 행위자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여가활동에서는 여성의 종교활동과 교제활동 행위자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시간대에 나타난 성별 행위자비율

생활시간대별로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이혼자들의 비율을 통해 이혼자들의 일상생활패턴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그림 IV-18>은 이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유지,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활동, 이동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비율을 시간대별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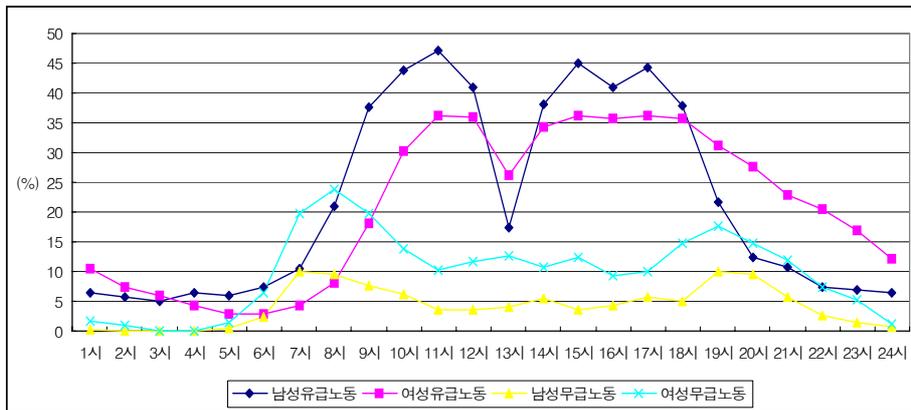
<그림 IV-18> 이혼자 전체의 각종 활동 행위자 비율

이 그림에서 보듯이 개인유지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9시 이후를 중심으로 많이 참여하고, 유급노동은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7시까지 주로 낮에 발생하며, 여가활동은 유급노동이 끝난 주로 오후 7시 이후의 저녁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 무급노동과 이동활동은 약 10%의 행위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꾸준히 참

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IV-19>에서 성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시간대별 행위자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보듯이 유급노동시간량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시간대 참여자 비율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오전 7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1시에서 6시까지의 행위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의 행위자 비율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난다. 즉 여성은 오후 7시 이후부터 오전 3시까지의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중 유급노동을 늦게 시작하지만 밤늦게 혹은 새벽까지 일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여성의 자영업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던 점과 여성이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늘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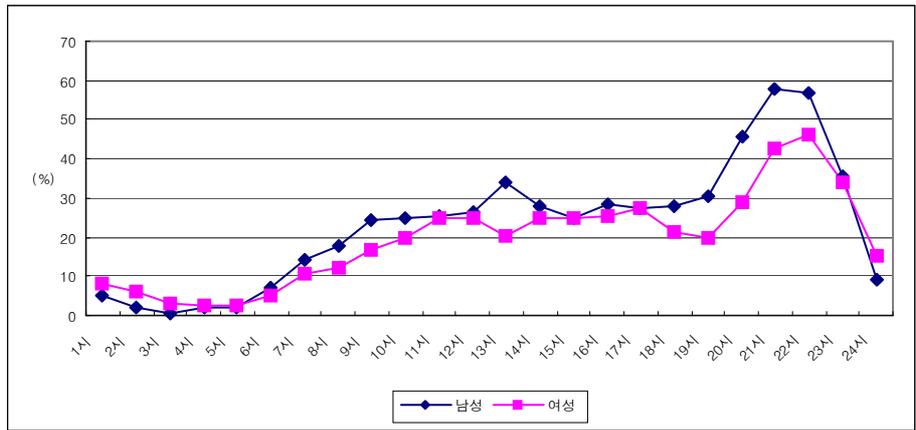
다음으로 무급노동행동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량이 남성보다 많았던 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남성보다 여성은 모든 시간대에서 무급노동 행위자비율이 높다. 시간대별 행위자비율의 패턴에서 보이는 특징은 오전 7시~9시 사이, 오후 6시~9시 사이에 무급노동 행위자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 행위자비율의 패턴은 같다.



<그림 IV-19> 성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행동의 행위자비율

다음으로 성별 여가행동의 시간대별 행위자비율을 <그림 IV-20>을 통해 살펴보면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남성의 여가행동 행위자비율이 여성보다 높다. 하지만 오후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의 여가행동 행위자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여가행동 시간대별 행위자비율의 패턴에서 보이는 특징은 여성은 오후 1시와 오후 6시~7시경에 여가행동 행위자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남성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 시간대는 점심과 저녁식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이혼여성의 시간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무급노동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다.



<그림 IV-20> 성별 여가행동의 행위자비율

3) 주관적 시간의식

이 절에서는 이혼 남성과 여성이 자신이 갖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초점을 두어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시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여유시간 활용준비에 대한 인식과 여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유이다.

먼저,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표 IV-48> 참조) 남성의 49.5%, 여성의 65.1%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성은 2명 중 1명이, 여

성은 3명중 2명이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여 이들의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항상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성도 27.3%에 이르러 남성의 15.3%보다 월등히 많았다.

시간부족이유로는 여성은 일 때문에(58%),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15.2%), 시간관리를 잘못해서(10.0%),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9.5%),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5.2%), 기타(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일 때문에(61.0%),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14.0%),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10.3%),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7.4%), 시간관리를 잘못해서(6.6%), 기타(0.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자녀양육 및 집안일이 시간부족인식의 중요한 요인으로 성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혼 후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남성과 같은 생활방식을 가지기 때문이며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생계부양자와 가사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시간부족 인식의 이유로 성별 차이가 나는 항목은 여성은 시간관리를 잘 못하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성들은 교제 및 사회활동과 이동시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여성과 이혼남성의 시간부족인식은 유배우자의 시간부족인식보다는 낮은 것이고, 그 이유도 이혼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이라는 인식이 유배우 남성보다 높고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일 때문'이라는 인식이 유배우 여성보다 높지만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이라는 인식은 더 낮다. 즉 20세 이상 64세 이하 유배우 남성은 72.9%, 유배우 여성은 70.7%가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유배우 남성은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6.4%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배우 여성은 시간부족이유로 일 때문에는 40.8%,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는 44.5%가 지적하고 있었다.

<표 IV-48> 주관적 시간의식

(단위: 명(%))

		남성	여성
시간부족 인식	예, 항상	42 (15.3)	97 (27.3)
	예, 가끔	94 (34.2)	134 (37.8)
	아니오, 거의	91 (33.1)	83 (23.4)
	아니오, 전혀	48 (17.5)	41 (11.6)
합계		275 (100.0)	355 (100.0)
시간부족 이유	일(학습)때문에	83 (61.0)	134 (58.0)
	자녀양육 및 집안일때문에	19 (14.0)	35 (15.2)
	시간관리를 잘못해서	9 (6.6)	23 (10.0)
	교제 및 사회활동때문에	14 (10.3)	22 (9.5)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10 (7.4)	12 (5.2)
	기타	1 (0.7)	5 (2.2)
합계		136 (100.0)	231 (100.0)
여유시간 활용	예, 항상	27 (9.8)	37 (10.4)
	예, 가끔	108 (39.3)	140 (39.4)
	아니오, 거의	92 (33.5)	118 (33.2)
	아니오, 전혀	48 (17.5)	60 (16.9)
합계		275 (100.0)	355 (100.0)
여유시간 미활용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61 (45.2)	87 (49.2)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	11 (8.2)	11 (6.2)
	마땅히 갈곳이 없어서	18 (13.3)	21 (11.9)
	여유시간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21 (15.6)	13 (7.3)
	피곤하거나 아파서	21 (15.6)	44 (24.9)
	기타	3 (2.2)	1 (0.6)
합계		135 (100.0)	177 (100.0)

다음으로 여유시간활용 준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의 49.1%, 여성의 49.8%가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이혼남성과 여성들이 여유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혼여성과 남성의 여유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은 20세 이상 64세 이하 유배우 남성과 여성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유배우 여성은 43.6%, 유배우 남성은

43.4%만이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로는 여성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9.2%), 피곤하거나 아파서(24.9%),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11.9%),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7.3%),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6.2%), 기타(0.6%)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5.2%), 피곤하거나 아파서(15.6%),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15.6%),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13.3%),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8.2%), 기타(2.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유시간활용에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여성은 피곤하거나 아파서 여유시간활용에 장애를 느낀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9.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혼한 여성의 신체적 건강이 남성보다 좋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여성보다 8.3% 많이 지적하여 여성보다 심리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이혼 여성의 일, 가족, 여가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이혼여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고 생활시간량,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주관적 시간인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혼여성의 시간사용은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지역, 연령, 교육수준, 주당근무시간, 직종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 가족, 여가와 관련된 생활시간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1) 이혼여성의 일과 가족

시간량으로 나타나는 이혼여성 집단 내의 차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앞으로 이러한 집단의 구체적인 차이를 찾아가는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표 IV-49>에는 이혼여성의 하위 집단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을 구성하는 가사노동시간과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나타나 있다.

먼저 조사요일별로 이혼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평일의 유급노동시간 5시간 27분보다 토요일에는 59분, 일요일에는 1시간 16분 감소하고 있다.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평일의 2시간 21분보다 토요일에는 2분, 일요

일에는 7분 아주 조금만 증가하고 있다. 무급노동시간의 증가는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가족보살피기시간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혼여성의 요일별 무급노동시간은 20~40대 기혼취업 여성의 평일 3시간 39분, 토요일 3시간 43분, 일요일 4시간 16분의 무급노동시간보다 더 적은 것이다. 이는 이혼여성이 돌보아야 할 가족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거나 이혼여성은 생활이 유지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무급노동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역별로 이혼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유급노동시간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5시간 29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6대 광역시 거주자로 5시간, 기타 도지역 거주자는 4시간 43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과 반대로 기타 도지역 거주자가 2시간 27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6대 광역시지역 거주자로 2시간 22분,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는 2시간 17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유급노동시간이 20대와 50대 이상 연령대의 유급노동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는 30대와 40대가 경제적 필요성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연령이 많을수록 점차 증가한다. 30대의 자녀양육과 무급노동의 부담을 동시에 가진 연령층보다 오히려 40대와 50대의 무급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이 흥미롭다.

주거형태별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가소유자의 유급노동시간은 4시간 31분으로 전월세자의 유급노동시간 5시간 13분보다 적었다. 전월세자의 유급노동시간이 더 긴 것은 이혼여성의 주거소유 여부가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필요성이 유급노동시간에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자가소유자가 전월세자보다 3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유급노동시간은 대졸이상자의 유급노동시간이 5시간 38분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2시간 20분으로 가장 적었다. 무학인 이혼여성의 73.7%가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유급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대졸이상자가 2시간 10분으로 가장 적었고, 무학이 2시간 57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표 IV-49> 이혼여성의 생활시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시간: 분)

구 분		유급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가족 보살피기
전체평균		5:00	2:23	2:09	0:14
지역	서울/경기	5:29	2:17	2:04	0:13
	6대광역시	5:00	2:22	2:10	0:12
	기타	4:43	2:27	2:09	0:18
조사요일	평 일	5:27	2:21	2:07	0:14
	토요일	4:29	2:23	2:08	0:15
	일요일	4:12	2:28	2:15	0:12
연령	29세 이하	4:13	2:16	1:33	0:43
	30~39세	5:44	2:15	1:55	0:20
	40~49세	5:17	2:22	2:12	0:10
	50세 이상	3:58	2:35	2:27	0:08
주거 점유형태	자가	4:31	2:25	2:07	0:18
	전월세 및 기타	5:13	2:22	2:09	0:13
교육	무학	2:20	2:57	2:30	0:27
	초등이하	5:03	2:13	2:07	0:06
	중등이하	4:55	2:31	2:18	0:13
	고등이하	5:14	2:21	2:05	0:16
	대학이상	5:38	2:10	1:54	0:16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17	1:48	1:38	0:10
	고용주/자영자	7:06	2:03	1:53	0:10
	무급가족종사자	9:45	0:50	0:50	0:00
가구형태	1인 가구	4:40	2:06	2:03	0:03
	본인+미혼자녀	5:54	2:44	2:24	0:20
	기타	4:10	2:15	1:54	0:22
미취학아동	있다	4:59	3:06	1:45	0:81
	없다	5:01	2:19	2:11	0:08
수입노동	있다	7:14	1:52	1:43	0:10
	없다	0:10	3:29	3:05	0:24
주당근무 시간	35시간 이하	4:35	2:56	2:32	0:24
	36시간 이상	7:33	1:45	1:37	0:08
직종	관리/전문직	3:58	3:17	3:11	0:06
	기술/사무직	4:57	2:01	1:35	0:26
	서비스/판매직	7:47	1:44	1:37	0:07
	농업/기능/생산/단순노무	6:57	2:05	1:54	0:12

가구형태별로는 유급노동시간은 미혼자녀를 데리고 사는 이혼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5시간 54분으로 가장 길고 무급노동시간도 2시간 44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 반면 1인가구를 형성한 이혼여성과 제3자와 함께 사는 이혼여성들은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이혼여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형제 등과 함께 동거 가족을 이루는 경우나 가족수가 적을수록 그만큼 가정관리나 가족 보살피기에 필요한 시간도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혼자녀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사는 이혼여성들의 경제적 부담과 무급노동에 대한 부담이 다른 이혼여성들보다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미취학아동 유무별로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없는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이 자신의 가족상황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할 만큼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미취학아동이 있는 이혼여성은 미취학아동이 없는 여성보다 무급노동시간이 47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미취학아동이 없는 여성이나 미혼자녀를 데리고 있는 여성보다 가족보살피기시간이 월등히 많다. 결국 미취학아동을 데리고 있는 이혼여성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노동여부별로 살펴보면 수입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 평균 7시간 14분의 유급노동을 하고 있어 상당히 긴 유급노동시간을 보여주었다. 무급노동시간은 유급노동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수입노동이 있다는 응답자는 1시간 52분의 무급노동시간을 가지는 반면 수입노동이 없는 여성은 3시간 29분의 무급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었다.²²⁾

22) 아래의 표에서 수입노동과 가구형태(1인단독가구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구분)에 따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듯이 수입노동이 있는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1인가구보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무급노동에서 가족보살피기시간이 13분정도 더 많다는 차이만을 보인다. 하지만 수입노동이 없는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72분이나 많아지고 있다.

수입노동	가구형태	유급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있다	1인가구	435.2	102.3	101.2	1.0
	부양가족	433.6	117.5	103.3	14.2
없다	1인가구	9.4	167.1	161.9	5.2
	부양가족	10.7	239.1	202.3	36.8

수입노동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주당근무시간에 따른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는 주당 36시간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평균 7시간 33분 일하고,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평균 4시간 35분 일하고 있었다. 무급노동시간은 주당 36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 평균 1시간 45분 가치고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평균 2시간 56분 가졌다. 결국 이혼여성들도 유배우자의 상태에 있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수입노동 참여여부 및 수입노동시간의 길이에 의해 무급노동시간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서로 교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종별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직이 7시간 47분, 농업/기능/생산/단순노무직이 6시간 57분, 기술/사무직이 4시간 57분, 관리/전문직이 3시간 58분으로 나타나 직업위세가 낮은 서비스/판매직과 농업/기능/생산/단순노무직 이혼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혼여성은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이러한 하위직의 유급노동시간이 또한 길어 이혼여성들의 열악한 노동시장 참여 상황과 근로조건을 짐작할 수 있다.²³⁾ 무급노동시간은 관리/전문직이 3시간 17분으로 가장 길고 서비스/판매직이 1시간 44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유급노동시간과 반대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 유급노동시간은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자간에 단지 11분의 차이가 날 뿐이다. 무급노동시간도 고용주/자영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단지 15분 길 뿐이어서 종사상지위에 따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여성의 하위집단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수입노동 참여여부 및 수입노동시간, 미취학자녀의 유무 그리고 직업에 따라 이혼여성들의 일시간과 가족시간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

23) 이혼여성은 평소 업무(수입이 되는 일)가 끝난 후 피곤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89.7%에 이른다. 그리고 업무가 끝난 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로 일자체가 힘들어서(63.3%), 업무량이 많아서(16.1%), 근무여건이 나빠서(6.9%), 직장내 인간관계 때문에(4.6%), 기타(9.2)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의 노동강도가 강하면서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IV-50>이다.

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능/생산/노무직의 경우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시간이 10시간 41분으로 아주 길고, 판매/서비스직의 경우에도 9시간 36분에 이른다. 따라서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하위직을 가진 취약계층의 이혼여성에 대한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50> 이혼여성의 하위집단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단위: 분)

수입노동 미취학아동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직업	전문/관리/ 기술/사무	서비스/ 판매	기능/생산 /노무	전문/관리/ 기술/사무	서비스/ 판매	기능/생산 /노무	-	-
유급노동	5:13	7:43	7:45	4:39	7:47	6:52	0:00	0:11
무급노동	2:36	1:53	2:56	2:08	1:43	1:59	4:49	3:23
유급+무급	7:49	9:36	10:41	6:47	9:30	8:51	4:49	3:34

2) 이혼여성과 여가

<표 IV-51>은 이혼여성의 하위 집단별 여가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요일별로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요일 5시간 1분, 토요일 4시간 47분, 평일 4시간 28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가활동의 하위범주별로도 평일보다 일요일의 시간이 약간씩 많지만 단 레저시간만큼은 일요일보다 평일과 토요일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요일의 여가시간이 평일보다 단지 34분 길어지고 있어 평일과 일요일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것은 앞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평일과 일요일에 많은 차이가 없었던 것과 관계된다.

<표 IV-51> 이혼여성의 생활시간: 여가시간

(시간: 분)

구 분		전체 여가시간	조직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 활동	레저활동
전체평균		4:38	0:28	1:01	2:15	0:54
지역	서울/경기	4:16	0:27	1:04	2:01	0:44
	6대광역시	4:30	0:23	0:57	2:19	0:51
	기타	5:03	0:36	1:05	2:18	1:04
조사요일	평 일	4:28	0:26	0:57	2:10	0:56
	토요일	4:47	0:21	1:05	2:22	0:59
	일요일	5:01	0:43	1:10	2:23	0:45
연령	29세 이하	5:03	0:11	0:04	2:33	1:16
	30~39세	4:01	0:17	0:54	1:56	0:55
	40~49세	4:26	0:22	1:00	2:18	0:46
	50세 이상	5:30	0:55	1:09	2:25	1:02
주거점유 형태	자가	5:02	0:31	1:06	2:17	1:18
	전월세 및 기타	4:28	0:27	0:59	2:14	0:48
교육	무학	6:43	0:43	1:20	3:33	1:06
	초등이하	4:40	0:34	0:55	2:19	0:53
	중등이하	4:38	0:20	1:06	2:27	0:44
	고등이하	4:25	0:26	1:00	0:08	0:51
	대학이상	4:26	0:36	0:55	1:22	1:32
가구형태	1인 가구	5:25	0:34	1:14	2:32	1:06
	본인+미혼자녀	3:44	0:18	0:57	1:54	0:36
	기타	4:51	0:34	0:49	2:22	1:06
미취학 자녀	있다	3:38	0:23	0:34	1:51	0:50
	없다	4:43	0:29	1:03	2:17	0:55
수입노동	있다	3:12	0:14	0:47	1:38	0:33
	없다	7:44	0:58	1:31	3:34	1:41
주당근무 시간	35시간 이하	4:12	0:23	1:03	2:07	0:39
	36시간 이상	3:05	0:13	0:45	1:35	0:32

(계속)

구 분		전체 여가시간	조직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 활동	레저활동
직종	관리/전문직	6:25	3:01	0:51	0:30	2:03
	기술/사무직	4:33	0:33	1:06	2:06	0:49
	서비스/판매직	3:02	0:08	0:46	1:35	0:33
	농업/기능/생산/단순노무	2:53	0:10	0:41	1:42	0:1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01	0:10	0:42	1:38	0:30
	고용주/자영자	3:36	0:23	0:57	1:37	0:38
	무급가족종사자	3:15	0:00	0:00	3:00	0:15

지역별로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타 도지역 거주자의 여가시간은 5시간 3분, 6대광역시 거주자는 4시간 30분,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는 4시간 16분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 6대광역시 > 기타 도지역 순으로 유급노동시간이 많았던 것과 반대의 결과이다.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는 여가시간이 적지만 조직활동과 교제활동시간은 6대 광역시 거주자보다 많아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점유형태별로는 자가소유자의 여가시간이 5시간 2분으로 전월세자의 4시간 28분보다 많다. 이것은 앞의 자가소유자의 유급노동시간이 전월세자보다 적었던 것과 관계된다. 특히 여가시간의 하위범주시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레저활동에 있어서 자가소유자와 전월세자와의 차이가 많다는 점이다. 자가소유자는 하루평균 전월세자보다 19분 긴 레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 문화행사참여, 스포츠 등의 적극적인 취미활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별로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무학 6시간 43분, 초등이하 4시간 40분, 중등이하 4시간 38분, 고등이하 4시간 25분, 대학이상은 4시간 26분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형태별로는 혼자 사는 이혼여성의 여가시간이 5시간 25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은 부모, 형제 등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경우로 이들은 4시간 51분의 여가시간을 가지며, 미혼자녀를 데리고 독립가구를 형성한 이혼여성은 3시간 44분의 여가시간을 가질 뿐이다. 다른 가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미혼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이혼여성의 여가활동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미취학아동의 유무별로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여가시간이 3시간 38분으로 미취학 아동이 없는 여성의 여가시간 4시간 43분보다 1시간 5분 더 적다. 이는 미취학아동의 유무별로 유급노동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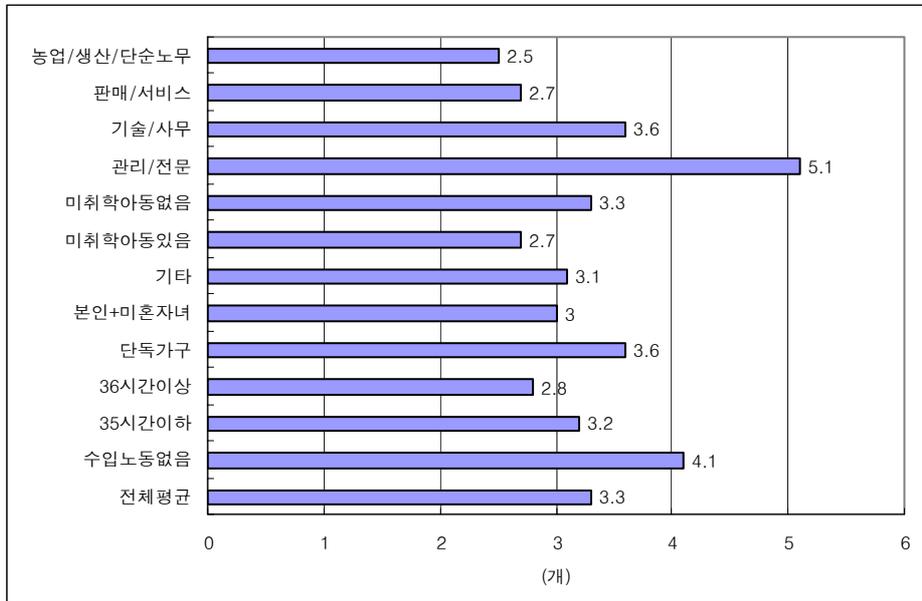
수입노동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단지 3시간 12분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반면, 수입노동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평균 7시간 44분의 여가시간을 가져 여가시간의 차이가 많았다.²⁴⁾ 수입노동이 있다고 응답한 이혼여성 중에서도 주당 평균 36시간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평균 3시간 5분의 여가시간만 가지고, 주당 평균 35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평균 4시간 12분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어 수입노동의 참여여부와 수입노동시간의 길이가 여가시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의 여가시간이 6시간 25분으로 가장 많고, 기술/사무직 4시간 33분, 서비스/판매직 3시간 2분, 농업/기능/생산/단순노무직이 2시간 53분으로 나타나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여가시간도 적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길었던 것의 반대현상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의 여가시간이 3시간 1분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이들의 대중매체활동시간은 자영업자들보다 근소하나마 더 많아 임금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TV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혼여성의 하위집단별 여가행동을 ‘하루 동안 선택하는 여가행동의 종류수’를 통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 IV-21>은 이혼여성의 하위 집단별로 하루 동안 선택한 여가행동의 개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만을 선택하여 나타내었으며 행동시간의 길이에는 관계없이 하위집단별 하루 동안 선택한 여가행동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24) 수입노동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여성은 단독가구일 때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여가시간이 감소한다. 수입노동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여가시간이 29분 더 적고, 수입노동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여가시간이 103.3분 더 적다. 이는 수입노동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이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이든 수입노동이외의 시간에서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면서 여가시간이 감소하지만, 수입노동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노동시간이 단독가구일때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등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IV-21> 하루동안 선택한 여가행동의 개수

이혼여성은 하루평균 3.3개의 여가행동을 선택하고 있었다. 하위집단별로는 먼저 수입노동 참여여부와 수입노동시간의 길이에 의해 선택하는 여가행동의 개수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수입노동이 없는 경우 하루평균 4.1개의 여가행동을 선택하고, 주당 평균 35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평균 3.2개의 여가행동을 선택하며, 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하루평균 2.8개의 여가행동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1인가구인 경우 하루평균 3.6개의 여가행동을 선택하는 반면 미혼자녀를 데리고 있거나 부모, 형제 등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3.0~3.1개의 여가행동만을 선택하고 있었다.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경우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적고 자유롭게 자신의 여가행동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취학아동의 유무에 따라서도 선택한 여가행동의 개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2.7개의 여가행동만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미취학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3.3개의 여가행동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행동

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위세에 따라서도 하루 동안 선택하는 여가행동에 차이가 있다. 관리/전문직은 하루 평균 5.1개의 여가행동을 선택하는 반면, 기술/사무직은 3.6개, 판매/서비스직은 2.7개, 농업/생산/단순노무직은 2.5개의 여가행동을 선택하고 있었다.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길 뿐 아니라 하루 동안 선택하는 여가행동의 종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이 몇 가지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여가시간을 즐길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말하며, 선택하는 여가활동의 수가 적은 이혼 여성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혼여성 집단 내에서는 수입노동 시간이 긴 여성, 미혼자녀를 데리고 독립가구를 형성한 여성,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 위세가 낮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이렇게 단순화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혼 여성은 어떠한 여가활동을 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 IV-52>는 ‘생활시간조사’에 제시된 49개의 소분류 여가활동 중에서 이혼여성들이 하루 동안 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행동의 종류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여가행동의 종류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혼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를 보면 표에서 보듯이 이혼 여성의 84.1%가 하루 동안 TV시청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이혼 여성이 많이 참여한 여가행동은 가족이외의 이웃·친구집단과의 교제(45.2%) 및 교제관련 전화통화(36.2%), 가족·친척과의 교제(20.1%) 등으로 교제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여가행동에 40.1%의 많은 이혼 여성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여가행동의 종류는 독서, 신문, 종교활동, 걷기 및 산책, 운동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52> 이혼여성이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와 여가행동시간의 순서

순위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	선택비율 (%)	선택한 여가행동의 시간	시간량 (분)
1	TV시청	84.1	TV시청	123.1
2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45.2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33.3
3	아무것도 안하고 쉬	40.1	아무것도 안하고 쉬	18.7
4	교제관련 전화통화	36.2	개인적 종교활동	12.4
5	가족·친척과의 교제	20.1	교제관련 전화통화	11.9
6	독서	10.1	가족·친척과의 교제	10.3
7	신문	9.9	독서	10.2
8	개인적 종교활동	8.6	종교 집회, 모임 참가	8.7
9	걷기, 산책	7.6	유흥	4.8
10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6.9	걷기, 산책	4.4
11	종교 집회, 모임 참가	5.9	이웃, 친분있는 사람돕기	4.1
12	유흥	5.5	신문	3.8

다음으로 이혼여성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여가행동의 종류를 보면 TV시청활동이 2시간 3분으로 전체 여가활동시간의 44.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이혼 여성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 여가활동은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아무것도 안하고 쉬, 교제관련 전화통화, 가족·친척과의 교제 활동으로 여가가 대부분 집에서 이웃 및 친구, 가족들과 만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한다할지라도 개인적 종교활동과, 종교집회 모임에 참가하는 활동 시간이 많아 위축된 여가활동을 보여준다.

라. 소결

전반적인 이혼남성과 이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30대와 40대의 이혼자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고, 이혼한 여성과 남성은 83%이상이 독립가구를 형성하여 가구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혼자들의 교육수준은 전체인구의 학력분포보다 대학이상졸업자가 더 적어서 저학력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입노동 참여여부나 수입노동시간에 있어서 이혼여성과 이혼남성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혼남성의 자가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남성이 혼자들의 주거안정도가 이혼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입노동에 참여한 남성의 직업은 기능/생산/단순노무직의 비율이 75%를 차지하며 여성은 65%가 서비스/판매직에서 종사하고, 24%는 기능/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이혼여성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지만 저임금 비숙련직종에 종사하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혼 남성과 이혼 여성의 전체적인 하루생활을 그려보면 전체적으로 이혼자들은 개인유지에 10시간 25분, 유급노동에 5시간 7분, 무급노동에 1시간 48분, 여가활동에 5시간 1분, 이동에 1시간 39분을 사용하고 있다. 성별 차이가 큰 시간은 무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며, 개인유지, 유급노동, 이동시간에 있어서는 성별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이혼여성의 경우 경제적 필요에 의해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으로 무급노동에의 부담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혼한다할지라도 성역할 사회화에 의해 여성은 무급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남성은 제3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미루는 것이며, 이러한 무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혼여성의 하위집단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입노동 참여여부 및 수입노동시간, 가구형태 및 미취학자녀의 유무 그리고 직업에 따라 이혼여성들의 일시간과 가족시간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미혼자녀와 다른 친인척의 도움 없이 사는 이혼여성, 특히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들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부담과 무급노동에 대한 부담이 다른 이혼여성들보다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지고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하위직 여성들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하위직을 가진 취약계층의 이혼여성에 대한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혼여성의 하위집단별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혼여성의 여가시간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노동시간과 여

가시간이 서로 교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여성 집단 내에서는 수입노동시간이 긴 여성, 미혼자녀를 데리고 독립가구를 형성한 여성,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 위세가 낮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여가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여성의 대부분의 여가활동은 TV시청활동이며 다음으로 이혼여성이 많이 참여한 여가행동은 가족 및 이웃·친구집단과의 교제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가 대부분 집에서 이웃 및 친구, 가족들과 만나는 제한된 여가활동인 것이다.



결론 및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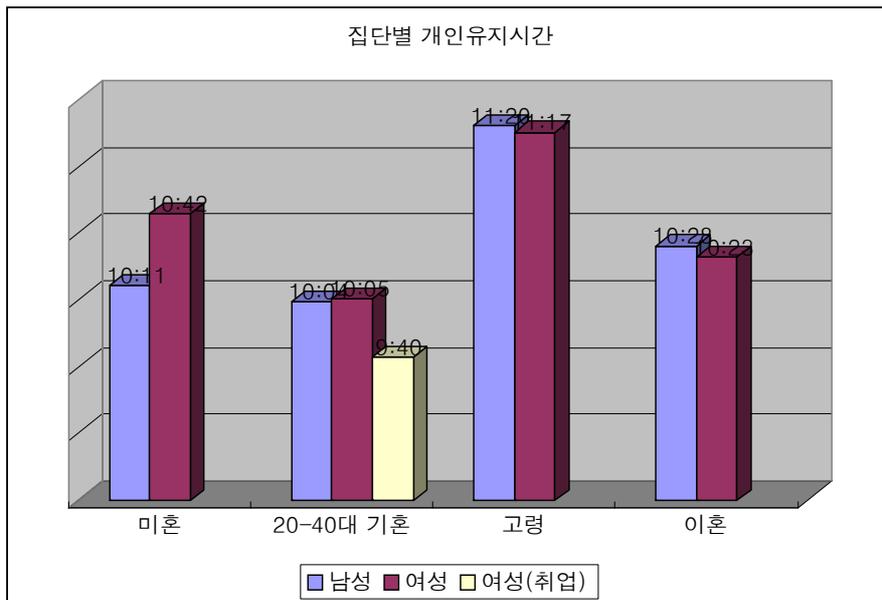
1. 결론: 유형별 여성의 생활세계	193
2. 정책 제언	203



1. 결론: 유형별 여성의 생활세계

가. 일, 가족, 여가의 성별·생애주기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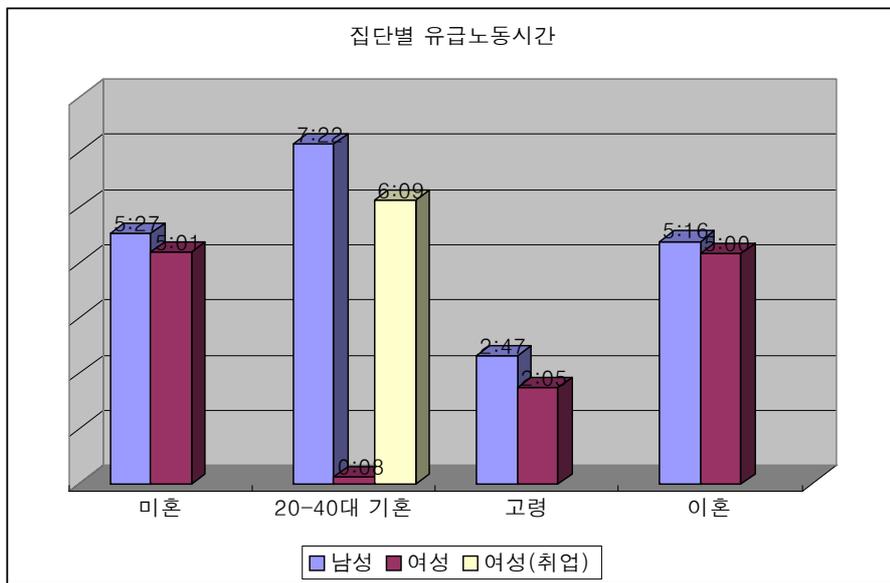
수면, 식사, 개인관리, 건강관리 등을 포함하는 개인유지 시간의 집단별 분포는 <그림 V-1>과 같다. 개인유지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남녀를 불문하고 고령집단으로서 이것은 생애주기 특성상 당연한 결과이다. 개인유지 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은 단연 기혼취업여성 집단으로 이 집단의 시간 압박감이 매우 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여성의 개인유지 시간이 조금씩 짧다. 다만 미혼집단에선 남성의 개인유지 시간이 여성보다 짧아서 기혼취업여성 집단과 유사한 생활세계를 암시한다고 하겠다.



<그림 V-1> 집단별 개인유지시간

<그림 V-2>에 나타난 집단별 유급노동시간은 위의 집단별 개인유지시간의 패턴과 반대이다.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은 남녀를 불문하고 고령집단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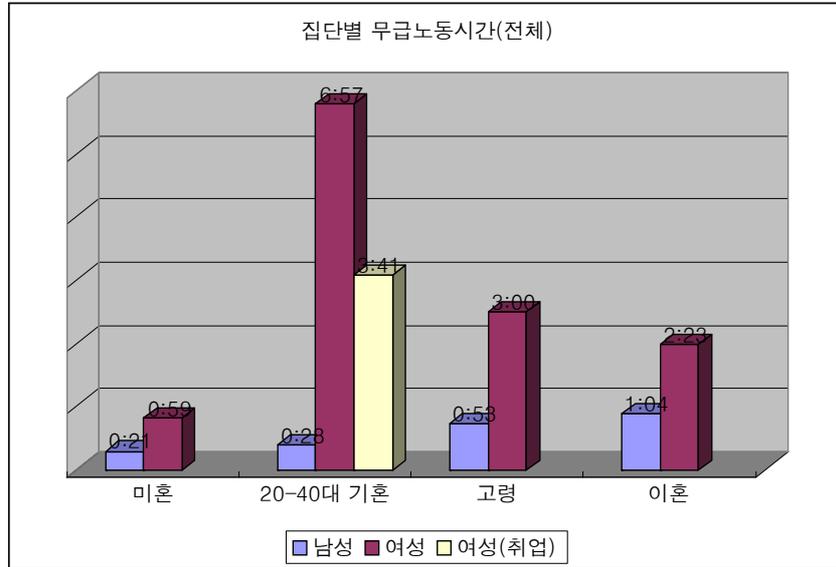
(기혼전업주부 제외)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20-40대 기혼집단이다. 모든 집단에서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보다 조금씩 긴데 이것은 성별 경제활동참여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급노동시간의 성차는 성별분업 규범이 강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인다. 즉 유급노동시간은 성차보다는 생애주기의 차이 또는 결혼 여부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림 V-2> 집단별 유급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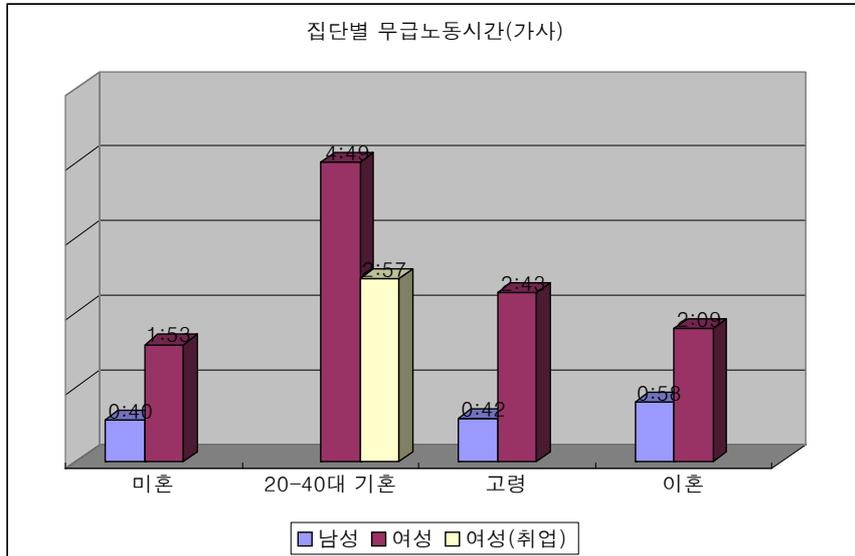
<그림 V-3>에 나타난 집단별 무급노동시간 분포를 보면,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와 같은 집안일이 거의 대부분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혼전업주부의 경우 같은 집단에 속한 기혼남성에 비해 18배, 기혼취업여성에게 비해 2배 많은 시간을 집안일에 할애하고 있다. 생애주기와 결혼상태에 따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집단내 남성과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와 같은 무급노동의 여성 전담 관행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과도한 이중부담

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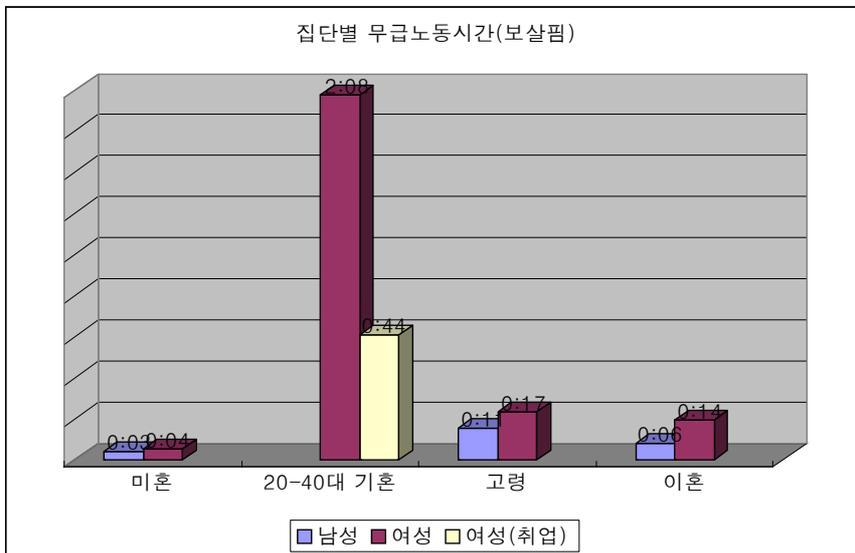


<그림 V-3> 집단별 무급노동시간(전체)

<그림 V-4>와 <그림 V-5>는 무급노동시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전통적 가사노동과 가족보살피기 노동으로 나뉘서 집단별,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미혼이나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수록 전통적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현저하게 높다. 가족보살피기 노동의 경우 자녀양육기가 집중되어 있는 기혼 전업주부의 전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 여성의 경우 역시 손자녀 보살피기와 같은 역할로 장시간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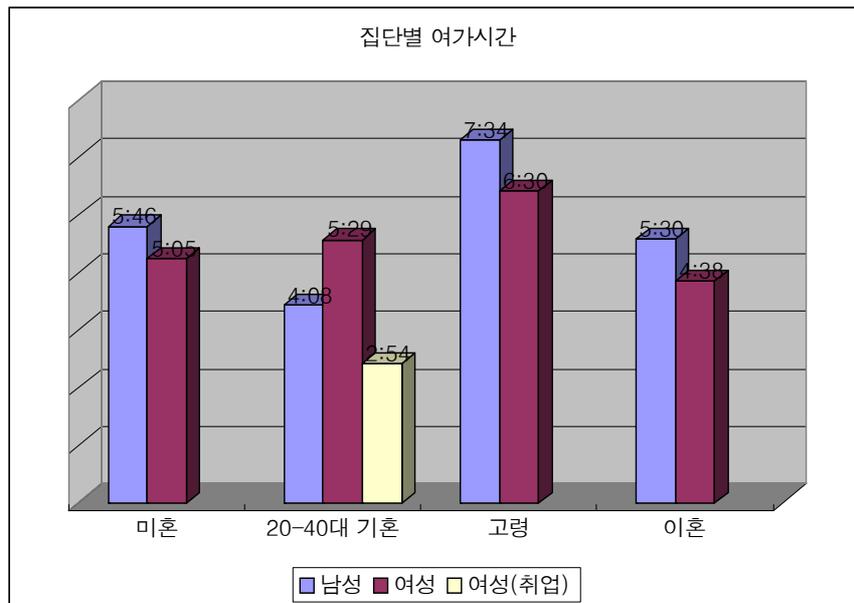
<그림 V-4> 집단별 무급노동시간(가사)



<그림 V-5> 집단별 무급노동시간(보살핌)

<그림 V-6>는 집단별 여가시간 분포이다. 전업주부를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남성의 여가시간이 여성보다 길다. 여가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은 기혼취업여성 집단으로 이 집단은 개인유지 시간과 여가시간을 줄임으로써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견뎌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여가시간이 짧은 집단은 기혼남성 집단으로서 이 집단 역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량과 별도로 여가 활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별·생애주기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혼자의 경우는 분가하여 독립한 경우의 여가 활용이 훨씬 다양하고, 다른 집단의 경우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세할수록 여가 활용도 다양하여 여가의 계층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6> 집단별 여가시간

나. 유형별 여성의 생활세계 비교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미혼여성, 20~40대 전업주부, 20~40대 기혼취업 여성, 고령여성, 이혼여성의 생활세계를 정리·비교하겠다. 먼저 분석 결과 나타난 집단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해당 남성 집단과의 비교, 각 유형별 여성 내부집단에서의 차이 비교, 각 유형별 여성 집단의 취약점과 특성을 차례대로 정리하였다.

조사대상집단의 일반적 특성	
미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세의 비중이 큼 · 고졸이상이 대부분(95%)으로 높은 교육수준 · 80%가량이 수입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금노동자임
20~40대 전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대가 많으나 젊은 여성들의 비중이 높음 · 고졸이상이 80% 정도로 교육수준은 높은 편 ⇒육아부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있음
20~40대 취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30~40대 여성들로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낮은 직업지위를 지님. · 연령상 육아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으로 보임 · 유급/무급노동의 동시 수행으로 이중부담을 겪고 있음
고령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74세에 많이 분포 ·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편 · 주로 농림어업에 종사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높음 · 연령에 따라 유급노동/무급 노동시간 감소, 여가 시간 증가
이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에 가장 많이 분포 · 교육수준은 저학력자가 많음 · 2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음 ⇒미혼자녀와 동거시 유급노동/무급노동시간이 길어짐

남성집단 대비 집단의 동질성	
미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 높음 ▸ 직종분리 현상 뚜렷(서비스직/판매직/사무직에 집중) ▸ 비정규직 비율 높음 ▸ 남성에 비해 유급/자유시간은 짧고, 무급노동시간은 김 ⇒성별분업현상
20~40대 전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무급노동을 전담 ▸ 요일별로 유급노동 및 무급노동, 여가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남성과 달리 요일별 시간사용 패턴이 비슷함
20~40대 취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교육수준 ▸ 하위 직종 ▸ 파트타임 비율 높음 ▸ 남성에 비해 유급노동 시간은 짧으나, 무급노동 시간을 합산할 경우 총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김 ⇒취업주부의 시간부족
고령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여성의 교육수준은 고령남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편 ▸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은 고령여성의 직업지위(직종,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남성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보조 노동력의 성격 ▸ 고령층에서도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하는 전통적 성역할 드러남
이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노동참여율이 높음(남성과 비슷) ▸ 무급노동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 ⇒생계부양자와 가사노동자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음 ▸ 이혼여성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나 저임금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음

여성 집단내 다양성	
미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교육수준,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 존재 특히 미혼자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주요변수는 '가족과의 동거여부'임 동거미혼자에 비해 독신 미혼자가 긴 유급/무급 노동시간을 가지며, 짧은 여가시간을 지님 미혼여성의 여가 내용 및 시간은 직종, 고용형태, 학력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음 동거미혼자에 비해 독신 미혼자의 여가시간이 짧으나 활동면에서는 보다 다변화되어 있음
20~40대 전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업주부의 생활세계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는 '미취학아동유무'와 이와 상관관계를 갖는 연령임. 미취학아동 유무는 취업주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보다는 보살핌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침. ⇒미취학 아동이 있고,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보살핌 노동이 크게 증가 미취학아동 유무는 여가시간에도 영향을 미침 ⇒육아부담 →여가시간 감소
20~40대 취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아동 유무,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 존재 특히 유급노동시간에 따라 무급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이 달라짐. 유급노동시간은 연령, 학력, 미취학아동 유무, 직종에 따라 상이 미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유급 노동시간 감소 ⇒파트타임선택 가능성 ↑ ⇒무급노동시간 증가 (주로 보살핌노동)
고령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여성의 생활세계의 주요변수: 수입노동여부/수입노동시간의 길이 수입노동여부는 농가/비농가여부와 연령의 영향을 받음 수입노동참여/농업종사 : 고령이 되어도 상당한 유급노동시간을 가지며, 이로 인해 유급/무급노동의 이중부담이 있음 ⇒이들의 경우 은퇴한 고령자의 여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있음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아지면 고령여성의 유급노동/무급노동은 감소하지만 농업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의 감소폭이 적음
이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교육수준, 수입노동여부, 미취학아동 유무,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 존재. 유급노동/무급노동시간은 수입노동시간과 미취학 자녀 유무, 직종에 따라 상이함 미취학자녀 유무 : 유급노동시간에 영향 없음 ⇒경제적 필요와 노동환경의 경직성 때문 : 무급노동시간은 증가(보살핌노동) 수입노동여부 수입노동을 할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크게 감소(보살핌시간의 감소) 여가시간은 수입노동여부, 수입노동시간의 영향력 큼

특 성	
미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집단에서도 전통적 성별분업유형은 유지되지만 성차보다는 “주거 형태”에 따른 차이가 큼(특히 독거미혼남성의 경우 기혼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중부담이 큼) ⇒미혼자라는 동질성보다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 있음 ▶ 고졸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대졸여성에 비해 매우 김 ⇒직종특성 반영
20~40대 전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가사노동은 상당히 일정한 편이며, 집단별 차이도 매우 적음 ⇒전업주부라는 집단내 동질성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보다 두드러짐 ⇒전업주부라는 동질성에 더 주목할 필요 있음
20~40대 취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노동/무급노동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 같은 집단내 동질성보다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이 두드러짐 ⇒취업주부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집단 내부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있음
고령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력 노인일수록 유급노동/무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남 ⇒고령여성 대부분이 저학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고령이 되어서도 상당한 유급노동을 하고 있으며, 무급노동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이중부담이 심각할 수 있음. ▶ 수입노동여부와 유급노동시간의 길이는 무급노동시간에 별다른 영향 없음 ▶ 직종/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 상태는 고령여성의 유급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무급노동시간에 별다른 영향 없음 ⇒고령이 되어도 여성은 기본적인 무급노동 수행함
이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노동여부와 주당 근로시간에 있어 性差가 크지 않음 ⇒취업여성과 달리 남성과 비슷한 노동형태를 나타냄 ▶ 평일에 비해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긴 시간을 사용 ⇒경제적 필요와 직종의 영향 ▶ 평일에 비해 주말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나, 이는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로 보살핌노동은 오히려 감소 ⇒취업여성, 가사노동 증가/보살핌노동 비슷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함

취 약 점	
미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보다 높은 수입노동 참여율과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남성에 비해 낮은 노동시장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 미혼자집단에서도 여전히 성별분업현상이 드러나고 있음 ▶ 다른 집단에 비해 젊고 사회경험도 많은 집단임에도 여가내용면의 취약성은 별 차이가 없음
20~40대 전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및 육아부담으로 인해 젊은 여성(특히 고학력)들이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음 ▶ 육아 및 가사 책임 등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의 생활세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침
20~40대 취업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무급노동으로 인한 이중부담, 이로 인한 여가시간의 감소 등 기혼여성 중 가장 열악한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음 ▶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는 취업여성의 경우, 파트타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로 인해 취업여성의 노동조건 및 환경이 저하될 수 있음. ⇒ 취업주부들의 이중부담 경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고령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학력과 보조적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고령여성은 수입노동 참여여부나 근로시간에 있어 남성에 비해 떨어짐 ▶ 이는 고령여성의 경제적 자립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가 및 생활세계 구성에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됨 ▶ 일반적으로 여가시간은 학력이나 직종/직업위세가 높을수록 증가함. 고령여성의 경우 저학력이 많고, 남성에 비해 직종/직업위세도 낮으며, 경제적 자립도도 열악한 편임. 따라서 고령여성의 여가활동은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고, 고령층에게 있어 여가는 곧 대부분의 생활이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됨
이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여성은 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유급노동/무급노동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음. 그러나 이혼여성의 경우,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취업여성보다 더 긴 유급노동시간을 가지며, 따라서 시간 부족의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생활세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음 ⇒경제적 지원 필요 ▶ 긴 유급노동시간은 보살핌 노동 및 여가시간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이혼여성들의 자녀양육의 문제와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지원 필요

2. 정책 제언

여성의 생활세계는 이와 같이 연령이나 결혼 상태, 독거 여부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취업유무, 직종, 고용상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생애주기에 따라 그리고 성에 따라 개인의 생활세계를 규정하는 데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또한 달라진다. 지금까지 분석한 각 집단의 일상생활 특성 및 취약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생 동안 무급노동의 전담자인 여성들:

여성집단은 남성집단과 비교하여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로 유사한 생활세계를 지니고 있다. 동질성의 핵심은 전 생애과정에 걸쳐 가사노동이나 보살핌 노동과 같은 무급노동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짐 지워져 있다는 데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무급노동의 내용과 양은 변하지만 가사분담을 둘러싼 가족내 성 형평성(gender equity)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물론 독신으로 지내는 미혼집단이나 이혼자 집단과 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노동 참여의 성차가 타 집단 구성원에 비해 작지만, 이것은 강제된 상황에 의한 것으로 성역할 규범의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가족구성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개인이 독신으로 지내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성역할 규범이 약화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여성들도 무급가사노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나, 남성 생계부양자와 유사한 일상생활 패턴을 지니는 이혼여성들에게조차 주말에 집중되는 무급가사노동, 보살핌 노동 활동 등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공평한 가사분담을 실현한다는 게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미혼 남성들의 상대적으로 장시간인 무급노동이 결혼 후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결혼한 취업 여성들의 이중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이유와 형태로든 여성들의 취업률은 증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들이 이와 같이 무급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공통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면, 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결혼관계내에 있는 여성들까지도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급노동, 그 중에서도 특히 보살핌 노동의 ‘양성화’와 ‘사회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나. 여성들 내부의 이질성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요구:

한국여성들은 남성집단과 비교하여 동질적인 여성집단임과 동시에, 각 생애주기 단계에서 하위 집단별로 구별되는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혼자 사는 미혼여성인지,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여성인지에 따라서 혹은 전업주부인지 결혼한 취업여성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세계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도 달라진다. 따라서 여성 내부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의 특성과 요구, 취약점 등을 구별하여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위 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미혼 여성 집단:

혼자 사는 미혼자 집단은 남녀를 불문하고 총노동시간량 증대에 따른 시간 압박감이 큰 편이다. 유급노동의 장시간 노동 제도는 전 생애과정에 걸쳐서 개인의 여가를 열악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미혼자 집단을 위시하여 우리 사회 성원들이 다양한 내용의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적 제도와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미혼자 집단을 볼 때, 일상생활 시간 사용의 성별 차이는 미약한 편이지만(미혼 여성의 경우, 성별직종분리,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열악한 노동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집단에서부터 확인되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입직한 이후 정규직으로의 탈출이 어렵다는 많은 연구 결과(김종숙·박수미, 2003; 장지연, 2004)에 터하여 미혼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여성노동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미혼 여성의 높은 학력 수준과 높은 비정규직화 현상은 한국사회의 차별적 노

동시장 관행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일관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취업, 승진, 해고 및 고용 형태와 같은 여타의 고용 조건에서 성차별적 관행을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젊은 미혼자 집단의 입직 전·후의 차별 경험은 이후 일생 동안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2) 20~40대 기혼여성 집단:

미취학아동의 유무는, 기혼 남성의 경우와 달리 기혼여성의 생활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유지와 여가의 절대적 시간 및 그 질에 있어서도 열악하였다. 이것은 반대로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이 여성의 경제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 양육으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가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도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육아부담이 가장 큰 핵심이므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가)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탁아 및 보육서비스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영아를 보살펴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출산 및 육아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함으로써, 양육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 다) 여성의 생활세계가 열악한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스웨덴 방식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① 전업주부의 동질성에 주목할 때:

- 가)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육아 이후 경제생활복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
- 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여가의 질적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문

화센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②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주부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장시간 집안일의 병행이라는 이중 부담이다. 따라서 그 어느 집단보다도 취업주부의 여가 활동은 열악한 상태이며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자기 재생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장시간 노동으로 표현되는 경직된 노동환경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서구사회의 경우 오래전부터 가족·생활 친화적인 노동환경에 대해 주목해 왔으며 이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적 상황에 걸맞는 기업 문화를 모색하는 데 사회의 전 영역이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 저소득층의 경우 가사 및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 유연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 일자리 노력이 또다시 공적 부문에서의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중산층 취업주부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충 및 양육비 지원, 추가적 세제혜택(소득공제)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3) 고령 여성 집단:

고령 여성의 비중은 날로 증대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고령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사노동을 계속 하면서, 사회적 통념과 달리 수입노동 활동 역시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유로운 은퇴기라는 이미지는 한국 사회 고령 여성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물론 지속되는 수입노동의 성격이 가장 주변적인 고용형태 및 농림업의 특수성과 연관되지만, 고령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는 고령 여성의 일할 능력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기업과 같은 다변화된 일자리 창출 방식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도입함으로써 유희 노동력 활용 및 고령 여성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열악한 여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령자 중심의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집단은 생애주기 특성상 그 어느 집단보다도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집단인 만큼, 이전 생애주기 단계에서부터 노년기의 여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이혼 여성집단: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혼자 집단의 생활세계는 좀 더 가시화되고 그에 터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은 다양한 가족구성의 증가에 따라 경력을 중시하는 자의식 강한 이혼 여성의 이미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이혼 여성의 이미지와 거리가 있다. 이혼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혼여성들은 생계와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열악한 생활세계의 주인공들이다. 이혼 여성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며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혼여성들은 열악하나마 수입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이중부담은 기혼취업여성의 이중부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편부모 가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혼 여성의 열악한 생활세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은 가사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상응하는 수입보전의 형태보다는 노동권의 안정 및 지속성 보장에 무게 중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여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이혼여성집단은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는 상당히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치관 및 가족구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가치에 대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혼으로 인한 이혼자와 이혼 가족의 구성원이 증대하는 마당에 결혼 지위에 따른 차별

이 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으로 삶의 질 제고할 필요성 증대: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특기할 사항은 전반적인 여가 활용의 열악함이었다. 이것은 비단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집단은 역시 여성이었다. 화려한 싱글로도 표현되는 미혼여성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성집단이 많은 고령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기간 동안 여가시간의 확보와 내용 모두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것은 문화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가 시설의 확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노력 이전에,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이 '일'과 공존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 여가 활용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 확보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가족·생활 친화적인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보다 미시적인 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한국여성들은 사안에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면 때로는 매우 동질적인 형태로 살아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한국여성들 사이의 '같음'과 '다름'은 어쩌면 모든 사회 현상과 사회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다이내믹에 다름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이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가름하는 시점과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5개의 유형별 여성 집단에 대한 1차적인 규명을 시도해 보았다. 여성 정책이 포괄하는 범위와 내용이 보다 심화되고 섬세해지는 데 이 연구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표된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될 계획이며 그럼으로써 한국여성의 생활세계를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택, 1994. “일상생활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제28집.
- _____, 1992. “산업체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사회성에 관한 사례연구 : 주관적 의미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6집.
- 강유진, 2003. “한국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3호.
- 권소영·옥신화, 2005.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3호.
- 김경애, 1999. 『한국여성의 노동과 섹슈얼리티』, 풀빛.
- 김경화, 200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일과 결혼: 대졸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6집 3호, pp.175-199.
- 김승권·송수진, 2001.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1권 1호.
- 김승권 외, 2003.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1.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시간 조사 종합 보고서.
- 김왕배, 1999. “일상생활세계론 : 시·공간과 실천의 합리화”, 『경제와 사회』, 제43호 가을호.
- 김외숙, 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외숙·이기춘, 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3호.
- 김종숙·박수미, 2003. 『한국여성의 노동이동』,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김미경, 2002.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김종숙, 2002. 『여성 청년층집단의 취업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효숙, 1983. 『도시와 농촌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재, 2003.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 『사회조사연구』, 제 18권.
- 문숙재, 1996. 『생활시간연구』, 신정.
- 문숙재·김혜연, 1995. “취업주부의 시간, 에너지, 금전, 심리적 취업비용에 관한 연구-전업주부와와의 비교를 통한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권 6호.

- 문숙재·윤소영, 2000. 「결혼과 노동」, 교문사.
- 문숙재 외, 2005. 「여가문화와 가족」, 신정.
- 문옥표, 1992.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민경애·윤복자, 1985.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 박명숙·백경임, 1997.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6호.
- 박수경·홍향숙, 1994. “조기 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권 2호.
- 박수미, 2004.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유형별 시간사용”, 2004년 후기인구학대회 발표문.
- 박순일 외, 2004. 「저출산 현황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재환, 1984.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부산대 「사회과학논총」, 제3권 제 11호.
- 박찬욱·박미혜·송미영, 1992. “우리나라 기혼여성 및 미혼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비교연구”, 「소비자학연구」, 제3권 2호.
- 박충선, 1995.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맞벌이가족의 형성과정과 접근방법」,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하우.
- 백옥인, 1989. “노동자계급의 상태연구방법론 시론”, 「경제와 사회」, 통권 제3호.
- 백주현, 1989. 「여가 선택 행동이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송다영·김영란, 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조은희, 2003.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손문금, 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맞벌이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 28권 제 1호.
- _____, 2005. “취업여성의 무급노동시간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2월호.
- 심영희, 1995. “일상생활과 권력”, 「사회비평」 여름호.
- 안영희, 1977. “주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 논문집 16(2).
- 안순덕 외, 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부, 2004.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 옥선화·최세은·권소영·강유진, 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1호.
- 유영주, 1999.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조사 및 복지대책: 가족 생활실태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이용도 조사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 유영주 외, 2000.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000년 봄호.
- 윤소영, 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혼 및 기혼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0권 6호.
- 윤여덕·나영선, 1994. “건설일용노동자의 자활방안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한국사회학』, 제28집 1호.
- 윤택림, 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 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제 12권 2호.
- 이가옥 외, 1995.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기영·이승미, 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3호.
- 이기영·김의숙·서창원·이승미, 1994. “도시근로자 가정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1호.
- 이기영 외, 2001.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생활시간조사 종합 분석 보고서.
- 이성림, 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2권 1호.
- 이승미, 1996.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권 3호.
- 이시재, 1990. “사회발전과 생활세계의 구조”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사회발전과 사회운동』, 한울.
- 이재열, 2002. “생활세계의 가시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일반사회조사 -이론과방법-』.
- 이효재·지은희, 1988. “한국 노동자계급 가족의 생활실태”, 『한국사회학』, 제22집.
- 임정빈, 1980.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 임정빈·서병숙, 1989. 『가정관리학』, 동명사.
- 임호남·박준석, 1997.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 장애요인의 관계”, 『한국여가레

크리에이션학회지」, 17.

장경섭, 1995. “생활정치와 사회민주화 : 정치적 장, 제도, 기제, 행위주체로서의 가족의 중요성”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한국사회학평론』, 2호.

장혜경·민가영, 2002. 『이혼여성의 부모 역할 및 자녀 양육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외, 2001. 『여성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정경희, 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61호.

정경희 외, 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조경욱, 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 27권 봄호.

조성연, 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2권 1호.

조영희, 2004.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2권 1호.

조정문, 1994. “결혼 후 여성의 취업단절에 관한 연구”, 『여성학 연구』, 제5권 제 1호, pp.115-132.

조희금, 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권 1호.

_____, 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3호.

지현진·정윤하·이철원, 2004. “노인정도로 출근하는 여성노인들: 그들의 삶에 투영된 소외와 제약들”,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5권 제1호, pp.115-136.

최명숙, 1987.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재현, 1985. “일상생활의 이론과 노동자의 의식세계 : 서독 거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의 예”, 『한국사회학』, 여름호.

통계청, 2005. 『1970년 이후 혼인·이혼 주요 특성 변동추이』, 통계청.

_____,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_____,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_____, 2005. 『2004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_____, 2002.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_____, 2001.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_____, 200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_____, 20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한국방송공사, 1985. 『국민생활시간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2004. 『2004 여성통계연보』.
- _____, 2003. 『한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 _____, 2001b.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 _____, 2001. 『한국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의식 조사연구』, 여성부.
- _____, 여성통계 DB.
- 한경미, 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9권 2호.
- 홍두승·김미희, 1988. “도시중산층의 생활양식 :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19집.
- 홍성희, 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승아, 1997. “전문대졸 여성의 취업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7권 제1호 pp.91-116.
- Bovone, L., 1989. “Theories of Everyday Life : A Search for Meaning or a Negation of Meaning?”, *Current Sociology* vol. 37(1).
- Braudel, F. 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1 : 일상생활의 구조』, 주경철 옮김, 까치.
- Cho Uhn, 1990. “The Situation of Economic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in Korea: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20th World Conference of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Amsterdam May 6-9, 1991.
- Fildmen, L.P. & Jacob, H. 1981.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7.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 Press.
- Hill, S., 1985. 『Investments of Time in Hours and Durables』, in F.
- Lefebvre, H., 1977. 『Kritik des Alltagslebens』, Bd. I. Kronberg: Athenäum.
- _____, 1992.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세계일보사.
- Robinson, J.P., 1976. 『How American Use Time :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ew York : Praeger Pub.
- Sullivan, O. & Gershuny, J., 2001. 『Cross-national Changes in Time-use: Some Sociological (Hi)stories Re-examined』.



부 표



▶ 1유형

	도수	백분율	누적도수	누적백분율
결혼상태				
미혼	21	15.22	21	15.22
유배우	63	45.65	84	60.87
사별	50	36.23	134	97.10
이혼	4	2.90	138	100.00
미취학 자녀유무				
자녀없음	17	12.32	17	12.32
있다	13	9.42	30	21.74
없다	108	78.26	138	100.00
연령 ²⁵⁾				
20대	18	13.43	18	13.43
30대	19	14.18	37	27.61
40대	16	11.94	53	39.55
50대	16	11.94	69	51.49
60대	65	48.51	134	100.00
학력				
초졸 이하	45	32.61	45	32.61
중졸 이하	40	28.99	85	61.59
고졸 이하	36	26.09	121	87.68
대졸 이하	17	12.32	138	100.00
취업여부				
했음	21	15.22	21	15.22
하지않았음	117	84.78	138	100.0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5	23.81	5	23.81
자영업자	6	28.57	11	52.38
무급가족종사자	10	47.62	21	100.00
직종				
사무종사자	1	4.76	1	4.76
서비스종사자	5	23.81	6	28.57
판매종사자	3	14.29	9	42.86
농업/임업/어업숙련종사자	9	42.86	18	85.71
단순노무종사자	3	14.29	21	100.00

25) 결측값의 개수=4

▶ 2유형

	도수	백분율	누적도수	누적백분율
결혼상태				
미혼	111	75.00	111	75.00
유배우	31	20.95	142	95.95
사별	5	3.38	147	99.32
이혼	1	0.68	148	100.00
미취학 자녀유무				
자녀없음	20	13.51	20	13.51
있다	12	8.11	32	21.62
없다	116	78.38	148	100.00
연령 ²⁶⁾				
20대	24	40.68	24	40.68
30대	11	18.64	35	59.32
40대	8	13.56	43	72.88
50대	6	10.17	49	83.05
60대	10	16.95	59	100.00
학력				
초졸 이하	6	4.05	6	4.05
중졸 이하	25	16.89	31	20.95
고졸 이하	73	49.32	104	70.27
대졸 이하	44	29.73	148	100.00
취업여부				
했음	35	23.65	35	23.65
하지않았음	113	76.35	148	100.0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17	48.57	17	48.57
고용주	2	5.71	19	54.29
자영업자	7	20.00	26	74.29
무급가족종사자	9	25.71	35	100.00
직종				
전문가	2	5.71	2	5.71
사무종사자	5	14.29	7	20.00
서비스종사자	13	37.14	20	57.14
판매종사자	5	14.29	25	71.43
농업/임업/어업숙련종사자	7	20.00	32	91.43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	2.86	33	94.29
단순노무종사자	2	5.71	35	100.00

26) 결측값의 개수=89

▶ 3유형

	도수	백분율	누적도수	누적백분율
결혼상태				
미혼	4	1.59	4	1.59
유배우	227	90.44	231	92.03
사별	19	7.57	250	99.60
이혼	1	0.40	251	100.00
미취학 자녀유무				
자녀없음	25	9.96	25	9.96
있다	85	33.86	110	43.82
없다	141	56.18	251	100.00
연령 ²⁷⁾				
20대	43	17.20	43	17.20
30대	87	34.80	130	52.00
40대	45	18.00	175	70.00
50대	36	14.40	211	84.40
60대	39	15.60	250	100.00
학력				
초졸 이하	20	7.97	20	7.97
중졸 이하	71	28.29	91	36.25
고졸 이하	126	50.20	217	86.45
대졸 이하	34	13.55	251	100.00
취업여부				
했음	55	21.91	55	21.91
하지않았음	196	78.09	251	100.0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13	23.64	13	23.64
자영업자	10	18.18	23	41.82
무급가족종사자	32	58.18	55	100.00
직종				
기술공/준전문가	3	5.45	3	5.45
사무종사자	5	9.09	8	14.55
서비스종사자	12	21.82	20	36.36
판매종사자	10	18.18	30	54.55
농업/임업/어업숙련종사자	19	34.55	49	89.09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5	9.09	54	98.18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	1.82	55	100.00

▶ 4유형

	도수	백분율	누적도수	누적백분율
결혼상태				
미혼	100	22.12	100	22.12
유배우	285	63.05	385	85.18
사별	52	11.50	437	96.68
이혼	15	3.32	452	100.00
미취학 자녀유무				
자녀없음	45	9.96	45	9.96
있다	52	11.50	97	21.46
없다	355	78.54	452	100.00
연령				
20대	90	20.59	90	20.59
30대	93	21.28	183	41.88
40대	129	29.52	312	71.40
50대	63	14.42	375	85.81
60대	62	14.19	437	100.00
학력				
초졸 이하	45	9.96	45	9.96
중졸 이하	171	37.83	216	47.79
고졸 이하	145	32.08	361	79.87
대졸 이하	91	20.13	452	100.00
취업여부				
했음	448	99.12	448	99.12
하지않았음	4	0.88	452	100.0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87	64.06	287	64.06
고용주	9	2.01	296	66.07
자영업자	66	14.73	362	80.80
무급가족종사자	86	19.20	448	100.00
직종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3	0.67	3	0.67
전문가	30	6.70	33	7.37
기술공/준전문가	21	4.69	54	12.05
사무종사자	57	12.72	111	24.78
서비스종사자	87	19.42	198	44.20
판매종사자	62	13.84	260	58.04
농업/임업/어업숙련종사자	66	14.73	326	72.77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29	6.47	355	79.2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20	4.46	375	83.71
단순노무종사자	73	16.29	448	100.00

27) 결측값의 개수=1

▶ 5유형

	도수	백분율	누적도수	누적백분율
결혼상태				
미혼	53	20.38	53	20.38
유배우	161	61.92	214	82.31
사별	42	16.15	256	98.46
이혼	4	1.54	260	100.00
미취학 자녀유무				
자녀없음	23	8.85	23	8.85
있다	38	14.62	61	23.46
없다	199	76.54	260	100.00
연령				
20대	44	18.97	44	18.97
30대	57	24.57	101	43.53
40대	39	16.81	140	60.34
50대	31	13.36	171	73.71
60대	61	26.29	232	100.00
학력				
초졸 이하	34	13.08	34	13.08
중졸 이하	78	30.00	112	43.08
고졸 이하	86	33.08	198	76.15
대졸 이하	62	23.85	260	100.00
취업여부				
했음	92	35.38	92	35.38
하지않았음	168	64.62	260	100.0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34	36.96	34	36.96
고용주	2	2.17	36	39.13
자영업자	18	19.57	54	58.70
무급가족종사자	38	41.30	92	100.00
직종				
전문가	2	2.17	2	2.17
기술공/준전문가	8	8.70	10	10.87
사무종사자	4	4.35	14	15.22
서비스종사자	21	22.83	35	38.04
판매종사자	20	21.74	55	59.78
농업/임업/어업숙련종사자	23	25.00	78	84.78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3	3.26	81	88.0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	1.09	82	89.13
단순노무종사자	10	10.87	92	100.00

2005 연구보고서-12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2005년 12월 29일 인쇄
2005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89-8491-136-4 93330

<정가 7,500원>